

IV. 도계탐사 후기

함께 했던 대원들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윤희경

뜻깊은 탐사였습니다. 마치고 나니 참 많은 시간을 걸었다는게 느껴집니다.

함께 했던 대원들이 벌써 그리워집니다.

제가 기록했던 탐사기를 보면서 그 때의 행복감에 젖어봅니다.

겨울탐사(2007년 2차)

겨울 탐사는 눈 밝은 전문가가 아니면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보이는 건 그냥 나무! 가랑잎! 뿐입니다. 이번 2차 탐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일어붙은 산길에서 참나무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오늘 산행에서도 참나무들을 종류대로 다 만난 듯 합니다.(상수리, 굴참, 갈참, 막갈, 신갈나무). 외촌이고개로 향하다가 자작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조림을 한 듯 아주 많은 어린 자작나무들이 아침햇살에 희고 붉은 수피를 반짝이고 섰습니다. 수피가 열룩덜룩하여 금방 눈에 띠는 물푸레나무도 군락을 이룹니다. 흰 페인트칠을 방금 한 것처럼 수피가 선명하여 멀리서도 희뜩희뜩하였습니다. 박달나무가 드문드문, 물박달나무가 빈번히 눈에 띕니다

봄탐사(2009년 5차)

별채로 가는 길이 멀다. 큰곡재 도로공사 현장까지 갖다가 되돌아 내려왔다. 겨우겨우 장누꼴까지 찾아들어가 놓네 할머니께 길을 물어 벌채 가까이까지 갔다. 장누꼴, 동네가 재벌 크다. 수영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어 한 잎씩 따먹으며 시작했다. 새콤한 맛이 신선하다. 새콤한 맛의 수영은 걸절이로 셀러드로도 그만이다. 입맛없는 봄철의 풀畅通한 한끼 반찬이 된다.

꽃이 깊어서인지 진달래가 아직 한창이다. 숲이 수련수련 깨어나고 있다. 숲바닥은 지난 가을 낙엽들이 수북수북한데. 꽃이 피고 잎이 벌어져 산색이 노란 연두빛이다.

부지런한 올파불나무는 꽂이 지고 열매를 매달고 있다. 꽂이 위낙 작아 잘안보인다. 별채한 산등성이로 봄볕이 쏟아지니 햇빛에 목마르던 노랑제비꽃들이 다투어 피어나고 있다. 어쩜 그리 샛노란지 눈이 부시다. 족두리풀꽃도 피고, 개별꽃도 피고, 솜나물, 혜호색, 산과불주머니도 피었다. 여기저기 원추리싹이 뾰족하게 올라와 식욕을 자극하고 희잎나무(홀잎나무) 이런잎도 푸르다. 마위에 뿌리를 내린 매화발발도리가 개화준비 완료. 주변을 보니 온통 매화발발도리네! 꽃잎 5장의 흰색 꽂이 지난해 묵은 가지 끝에서 피어난다. 다음 주쯤이면 개화하여 환하게 주위를 밝힐 것 같다. 정상에 이르러 애호랑나비와 놀다가 하산!

여름탐사(2007년 8차)

진초록으로 물드는 산빛이 탐사 단원을 여름길로 이끌었던 하루.

산에 들어 나물을 뜯고, 풀뿌리를 캐고, 열매를 따 배고픔을 해결하고 아픔을 치료하던 옛 사람들의 발걸음 같지는 않았어도 산신세를 지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꽂도 보고 더덕도 캐면서 산뜻하게 탐사했던 하루!

산딸기의 계절답게 초입부터 붉게 익은 줄딸기가 눈길을 잡고, 산딸기, 명석딸기, 곰딸기..... 종류가 많네요. 점심먹고 내려오면서 만난 산행도! 그 작고 예쁜 꽂. 보는 순간 행복감 전염됨. 사슬치에 다 내려서서 나무 밑에 다소곳하게 편 큰꽃으아리 발견. 으아, 으아리!

소색의 한지로 잘 오려 만든 것 같은 품위있는 큰꽃으아리는 이다시 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가을탐사(2007년 15차)

단양 쪽에서 자생한다는 줄댕강나무도 계속 보인다. 정말 많다. 산팽나무로 보이는 이런 개체들도 참 많다. 참나무들은 종류대로 다 보인다. 노란색부터 붉은색까지 갖가지 색으로 단풍들이 온산을 가을로 물들여 놓았다. 이처럼 아름다운 참나무단풍은 처음 본다. 진짜 단풍나무도 붉게 물들었다. 당단풍이다. 복자기단풍, 붉나무단풍은 모두 붉고, 생강나무, 개옻나무, 싸리나무 노랗다.

도계를 걸으며 우리나라의 더 많은 산길과 들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는 나를 보고 싶습니다.

삶결따라 이천오백리 충청북도계탐사대원 화이팅!

윤석주

지난 5년간 저는 오른발로 디디는 고향 땅으로 해서 행복했습니다.

구절양장 기나긴 길을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걸었습니다. 몸은 몇 번 빠졌지만

마음은 늘 도계 길 위에 있었습니다. 진드기처럼 달라 붙어 떼어내기 힘들던 새벽 잠, 멀리서 출발하는 부지런한 한 사람을 생각하며 일어나 신발끈을 졸라매고는 문을 박자고 나섰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그 길은 가 볼만한 길, 따뜻한 길이 되었습니다. 출발지가 다시 오년 뒤 도착지, 둘다리방죽 앞, 이름마저 경쾌하고 통쾌한 낙건정(樂健亭). 그 위에 섰습니다.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멧돼지, 고라니, 도슴도치, 풍뎅이, 노린재, 까마귀, 뼈꾸기, 할미새, 곤줄박이는 물론 바람꽃, 바위채송화, 하늘말나리, 족도리풀, 처녀치마, 달맞이꽃, 솔나리....., 진달래, 병꽃나무, 벼들, 충충나무, 노린재나무, 미역줄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줄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와 굴참나무, 정향나무, 잎갈나무, 수없이 많은 풀꽃들과 나무도 만났습니다.

바람과 바위, 멀리 겹치지는 산마루금과 피어 올라오는 앙개, 개절 앞에 매달린 상고대와 우수수 떨어지는 단풍잎 강바람과 피하기 어려웠던 빗줄기, 비탈에 쭈그려 차렸던 소박한 점심 밥상, '어어 이게 무슨 일?' 하며 나도 모르게 돌아가던

링반데룡, 우리가 간 길 뒤에 대통대룡 매달려 호노낄 노란 끄내끼들, 동림산, 솔림산, 만뢰산, 마이산, 오간산, 백운산, 태화산, 형제봉, 비로봉, 도솔봉, 문수봉, 대미산, 조령산, 희양산, 조항산, 묘봉, 관음봉, 문장대, 비로봉, 천왕봉, 천금산, 국수봉, 놀의산, 가성산, 황학산, 삼도봉, 석기봉, 민주지산, 성주산, 천태산 산산산 봉봉봉. 따라 넘던 할머니 옷고름 같은 고갯길 자명골, 널미고개, 지장골 고개, 절고개, 들목이고개, 싸리재, 엽돈재, 배티고개, 옥정치, 노란터고개, 완장고개, 닭이머리고개, 외촌이고개, 배재, 오두재, 구렁재, 새목재, 느릅재, 조을재, 노루목, 곱둔재, 마당재, 싸리재, 지수지, 모녀재, 하늘재, 조령, 은티재, 밀재, 활목고개, 속사치, 근곡재, 별재, 오도재, 장동고개, 추풍령, 패방령, 절마재, 압재, 안압재, 꼬부랑재, 곤룡재, 닭재, 마달령....고개도 많지요

배도 타야지요. 충북이라는 육지 속의 섬으로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 데.... 단암삼합 창암나루, 덕은 용암 덕온나루, 회남문의 대청호, 부용부강 용당나루 그리운 나루터, 냉이꽃 꽂다지 펴나는 봄날에 건너고 싶어집니다.

먼저 지난 5년 내 발을 살려 준 오금에게 고마운 인사를 건넵니다.

삶결따라 이천오백리 충청북도계탐사대원 화이팅! 2010년 아듀 아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대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충청북도 도계탐사를 종료하면서(마무리)하면서

정동주

우리고장 행정구역 역사는 조선 태종13년(1413년)에 경기, 강원, 경상, 전라, 평안, 함경, 황해, 충청도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충청도의 淸은 清州의 상징이요, 忠州의 상징인 忠자를 따 忠淸道라 명명하였다. 그 후 高宗 33년(1896년)에 8도를 13도로 나누는데, 忠淸左道를 북도로 右道를 南道로 하였다

역사적으로 우리 고장은 효자와 효부가 많고, 국난에 처 했을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산화 시켜 나라의 위기를 승리로 이끈 先烈들의 碑室이었다. 그 證票로 고을마다 정자와 충신들의 넋을 추모하는 벌자취가 산재하여 있다. 孝와 忠은 國家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족 발전을 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도계탐사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로서 隣接道와 자연적, 인문적 상이한 점을 재발견하고, 우리 도의 독특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 主眼點을 두고 있다. 즉, 우리 도의 장점을 발굴·육성하고 쪼개 한 층 살맛나는 고장, 살고 싶은 마을로 승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도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여 육상 교통의 발달로 시간·공간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다. 峻峰으로 형성된 소백산맥과 구릉성 산지가 발달한 차령산맥 주변의 침식평야는 우리 지방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과거 내륙 수로 교통으로 각광을 받던 금강과 한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 활용하여 폐허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유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는 도시민에게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심신을 달래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도계탐사를 시작한 것이다.

2006년 5월13일 도계탐사 결성식을 갖었다.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낙건정에서 500여명이 참가하였고, 많은 축하를 받으며 출정식과 더불어 충청북도 도계탐사 5개년 계획 선포식을 하였다.

충청북도 도계탐사단이 결성된 후, 충북 산악연맹, 충청리류, 충북 숲 해설협회, 충북학연구원이 동참하게 되었다. 도계탐사 대장정은 청원군→진천군→음성군→충주시→재천시→단양→충주→제천→충주→괴산→보은→옥천→영동→옥천→다시 청원 출발자로 이어지는 힘든 여정이었다.

힘든 탐사였으나 서적으로만 접해왔던 우리나라의 東高西低 지형을 탐사를 통하여 實測을 하니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청원, 진천, 음성군에서는 해발700m가 넘는 산지가 없고, 차별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구릉선 저산지(200m이하 산)가 눈에 들어오고, 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는 지방중심지로 성장한 도시가 발달된 모습, 또 도시 주변의 침식평야 지대는 上食을 생산하는 논농사가 발달된 모습 등도 확인할 수 있었다. 低山性山地(해발 1,000m 이하의 산지를 말함)에서는 과거에는 蠶業이 盛行했지만, 화학섬유의 반달로 쇠퇴 하였다. 지금은 대표적인 환금작물인 과수농업, 인삼, 단배농사가 주를 이루는 모습이었다.

충주, 제천, 단양은 高山지역으로 백두대간으로 둘러싸인 산간이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육상교통의 발달로 환경오염에 시달린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자연친화적인 농업의 발달과 각종 위락시설, 휴양지의 건설이 추가로 이루어지면 낙후된 북부지방이 발전 될 것이라고 확신도 해보았다.

도계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연이 준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고 최소의 개발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고장으로 육성 발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놀려 줄 의무가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은 5년 동안, 혹한(酷寒)기와 혹서(酷暑)기를 피하여 둘째 냇째 토요일에 내가 출생하여 몸과 마음이 성장한 고장! 충청북도의 도경계 2,500리를 답사한 것이 일생에 기억에 남을 일이니, 이 자리를 빌려 도계탐사단을 기획한 연방회 회장과 선두에서 고생한 박원수 대장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아무 사고 없이 대장정을 마치게 된 것을 자축하면서 김기사 내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장 큰 결과물로 생각되는 것은 '충청북도 도계탐사 기록문'이다. 이 기록문이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자손만대에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장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관계자 모두에게 다시 떠리 속여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芝庵 鄭東珠

충청북도 경계을 걷다

한명일

설레임과 기대로 부끄러 아들과 참여했던 탐사길.
가슴 따듯하고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충북도경계이라는 의미 있는 길을 아들과 동행을 했기에 제겐 더욱 가슴 설레는 테마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지만 송구하게도 한참을 쉬었다 다시 찾은 탐사길을 길이 멀고 험하
기도 하여 제게 힘이 부치기도 하였습니다.

대원 여러분들께서 베푸신 배려에 가슴 절인 감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리에 근육이 둉쳐 탐사를 계속할 수 없어 돌아가야 했을때도

혼자 가게 할 수 없다고 길도 아닌 골짜기를 따라 낙엽을 해쳐가면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중도에 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해아려 상처를 입어가면 지름길을 찾고 만들어
주시어 결국 그 구간을 끝까지 완주 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주신 대원님도 계셨고,
배낭속의 내용물을 대신 들어주시고, 뒤쳐진 제 걸음을 같이 맞춰 걸어주시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따뜻한 맘으로 대해 주신 대원님들의 정을 느끼면서

사람 사는 정을 느낄 수 있는 탐사여행이었습니다

대원님들의 한결 같은 충북을 사랑하는 공지와 자부심이 계셨기에

힘듬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구간 참여는 못했지만 열정과 행복한 모습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짧게라도 같이 했던 도계탐사는 영광스런 추억으로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둘 것입니다

대원님들의 도계탐사 2500리 완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놀토에 생긴 이상증상

윤석위

햇수로 5년이 새로 습관을 만든 것 같다.

놀토마다 새벽에 일어나 도청으로 가야한다는 생각, 노란색 버스를 타고 어딘가 떠나야 한다는
생각, 어느 산길을 만나도 "도계"같이 (?)뵈는 착각,

함께 걷던 대원들의 얼굴과 마을에서 만났던 오지에 사는 이들의 얼굴이 겹쳐 떠오른다.

나는 지난 몇주동안 오년전 지나갔었던 청원군과 진천의 몇몇마을을 돌아보았는데 그때 정정
했던 마을의 노인깨선 노환으로 입원중이라하고-----

마을마다 농가는 더 많이 허물어져가고 있었다. 오년전의 삼성면 상일리, 100년 넘은 성서와
대한신지지를 발견했던 낡은 집은 흔적도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또 오년이 지나면 도계는 어떻게 변할까?

변하면서 사라져가고 또 다른 모습들이 생겨나겠지---

누군가 이 길을 다시 걸어 갈테고-----

어느 산길에서 환한 웃음으로 만나게 되길...

박종익

2007년 2월 박연수대장의 권유로 도계탐사에 합류하게 되어 북부지역인 충주와 원주의 경계지역인 소
태재에서부터 탐사대와 걸음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기록을 담당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
에 매달리느라 많이 빠지게 되었고 여전히 되는 날만 참식하다보니 소홀함이 많았는데 어느새 마지막 구

간에 와 있었습니다.

매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참가했던 마지막 구간의 탐사는 그간의 계으름에 책임을 묻는 듯 매서운 바람으로 시작해 공사 중인 구간과 하천 뚝방길, 철길 밑을 어렵게 통과하여 조치원으로 들어가 도계탐사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낙건정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5년여에 걸친 도계탐사는 쉽지 않은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두 다리에 의지하여 걷고 또 걸으며 느꼈던 많은 마음들을 기억에 새기며 마무리의 아쉬움을 달립니다. 함께 했던 많은 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또 어느 산길에서 환한 웃음으로 만나게 되길...

배워가는 기쁨도 커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권현진

2008년 9월 27일 옆지기의 권유로 폐산 구간의 대야산부터 합류하게 되어 처음 말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 잠든 이른 시간에 열심히 아침밥 쟁기먹고 도시락까지 싸서 어두운 기운을 가르며 문을 나섭니다. 전체 구간의 딱 질반을 참여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차례 결석을 하면서도 늘 마음은 도계 능선 위에 있었습니다.

늘 일상에서 부딪히며 함께하던 분위기와는 다른 새로운 분들을 만나며 또 다른 선생님을 발견하고 하나 하나 배워가는 기쁨도 커던 시간들 이었습니다.

살아 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며 자신을 담금질하는 시간이기도 했구요. 무언가 습관이 된다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마지막 구간을 마치니 다음부터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을 아닐기라 믿으며 또 다른 시작을 꿈꿉니다.

그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또 다시 반가운 얼굴, 환한 웃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시 맞는 새해에도 늘 건강과 웃음 가득한 날들 되시길 기원하며 .

마음만 분주한 12월의 마지막에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

충청북도 도 경계 탐사를 마무리 하면서

이진이

“삶결 2500 리”라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의 첫발을 디딘지 어느덧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산이 좋아 산을 찾고, 아름다운 금수강산 우리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백두대간 보존시민연대에 몸을 담고 활동하면서 운 좋게 충북도계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내 일생의 큰 복이라 생각한다. 충북은 우리나라 8 도 중에서 유일하게 내륙을 도경계로 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소백산 구간과 속리산 구간이 지나고, 우리 인간으로 치면 허리부분에 해당한다.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것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산천의 기운을 지탱해 주는 충북도의 도경계를 따라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아는 터라 빠지지 않고 참석하리리라 각오를 하였지만, 우둔하여 가치의 혼돈을 느껴 많이 빠진 것이 한스럽기만 하다. 언제 또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걸을 수 있게 튼튼한 다리를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대 장정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을 적습니다.

우리나라 중심 도인 충청북도의 도 경계를 걸이시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둘은 셈입니다. 삶결 2500리, 도상거리는 약 1000km, 실제 걸은 거리는 더 되겠지요.. 약 5 년정도 걸렸습니다. 무사히 대장정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모든 대원님들과 함께 자축하고,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함께 했던 우리 탐사대 원님들, 연방회 단장님을 비롯하여 박연수 대장님, 윤석주 대원인, 윤희경 대원님, 정동주 대원님, 이동수 대원님, 이홍원 대원님, 정경숙대원님, 박종익내외 대원님...그 외 바쁘신 가운데도 가끔씩 같이 했던 대원님들... 특히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항상 탐사 시작점까지 데려다 주고, 탐사 끝 지점에서 기다려 주신 김정식 기사님께 심심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복 받을 실 겁니다. 탐사일정을 계획하고 자료를 준비하여 나누어준 연방회 단장님과 박연수 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을 뒤돌아 보면 탐사를 시작한 시점이 어제인 듯합니다. 그 동안의 소중한 기억들을 어찌 다 글로 나타낼 수 있을까 마는 그래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쓰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새벽 3 시경에 일어나 채비를 차리고 충북도청을 향해 운전을 하고 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어떤 때는 반짝이는 별들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이 트는 붉은 동녘을 보기도 하고, 그 끔때는 칠흙 같은 어두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부나 짙은 안개로 운전이 불가능 한 적도 있었지만 도계탐사의 기운을 꺽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 만뢰산 구간에서 목격한 올무에 걸려 죽은 작은 4발 달린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윤석주 대원님이 먼저 발견하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올무에 걸려 죽은 지 오래되어 털과 앙상한 뼈만 올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한 것은 그 옆에는 또 한 마리가 더 있었고 이놈은 올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미인지 자식인지 먼저 올무에 걸려 생사를 헤맬 때 어미인지 자식인지 그 옆에 있어주었고, 끝내 같이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을까?

세 번째는 윤희경대원님으로부터 나무와 야생화 등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평소 이름을 알고 싶었지만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너느리 밥풀이 생각납니다. 항상 맛있는 콧감으로 피로를 달래주신 정경숙 대원님, 사진작가이며 암벽등반가 이신 박종익 대원님, 한번도 거론적 없이 손수 만든 찰떡 캐익을 나눠주신 권현진대원님, 두남강 물을 떠서 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바친 백골부대 3사단 예기를 비롯하여 한국전쟁사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정동주대원님, 간사합니다. 국군의 날도 백골부대가 처음 38선을 넘은 날을 기념하여 정했다고 하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남주동 해장국집, 선생님으로부터 지나온 세월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홍원 화백님이 마동 전시회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동수 대원님, 산 정상에서 웬 수박. 세상에 그 부거운 수박을 산꼭대기 까지 짚어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주행봉에서 식혜 맛도 잊을 수 없습니다. 복 많이 받을 껴.

네 번째는 과도한 석조물로 장식한 장묘문화는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천 상록수 골프장 이었던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량을 사이에 두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단양 영춘과 영월을 드나드는 마을이 있었고, 마당과 안체가 각각 충북과 이천에 속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유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늦한데, 소나무에 깊이 박힌 철조망입니다. 그 나무는 철조망을 자기 살에 묻고 자랍니다.

일곱 번째는 훈훈한 농촌의 인심입니다. 어느 동네에서는 쪐 고구마 대접을 밟기도 하고, 아주머니는 김치를 내어 놓기도 했습니다. 광산김씨 집성촌 이었던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치령에는 태백산신과 소백산신을 함께 모시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태백산신이 되었다고 하지요.

여덟 번째는 솔미산 지나 주천강 변 관란정은 단종에게 드린 음식을 소그리에 담아 띄워 보내던 원호의 사연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조령산구간의 마파봉에 깃든 사연과 조령산에서의 전망은 소나무와 암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분재를 감상하는 듯합니다. 마파봉은 장원급제하고 회향하던 경상도 도령이 마파를 잊어버렸다가 찾았던 곳이랍니다. 아홉 번째 조령 3분에서 이화령구간은 백두대간 구간으로서 평소 많은 산행인들이 함께하는 곳. 주 능선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미끄러지면 실족사 위험이 크고, 특히 이곳은 바람이 세게 불어 더욱 위험한 구간입니다. 약간의 안전시설물이 요구되며, 설치된 로프가 낡아 재설치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수안계-백악산 구간은 청화산, 조향산, 대야산의 백두대간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view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 딱 하나만 도계탐사 기념 표지석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 외 소백산 구간의 도솔봉 입석 표지석의 글씨체가 아름답고, 이 곳 도솔봉에서 바라보는 비로봉, 연화봉, 국망봉 신선봉 등의 연봉을 바라본 것이야 말로 가히 미륵보살이 머무는 지상의 정토인듯 합니다. "다자구야 들자구야" 할머니의 지혜가 생각납니다. 어부동 마을에서 국사봉가는 구간에는 광산김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자손을 걱정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중한 글귀를 얻었습니다. 鷓路雲開九萬天, 雨順風調. 堂上父母千年壽, 鷓負三災天外去.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잘난 놈들은 다 도회지로 출사하고, 못난 놈만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고향산천을 지키며 선산을 가꾼답니다. 못난놈이 효자라 십니다. 백하산-압

재구간에는 도둑질 하려고 미리 가지를 쳐 모양을 내 놓은 아담한 어린 소나무 한그루가 위태롭게 암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압재-3 도봉-성주산구간에서 3도 경계지점(충남금산, 충북영동, 전북무주)에 작은 표지석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높은 곳만 표지석을 세우기를 좋아하지요. 밀재-고모재 구간을 마치고 삼송리로 내려오는 계곡에서는 이상기대원님의 안내로 귀중한 음각글귀를 발견하였습니다.

수안재를 거쳐 백악산에서 도계를 따라 하산하면 곧 사각형 바위위에 뿌리내린 기풍도 당당하고 잘 생긴 장정의 소나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으면 합니다. 속리산 천황봉은 천왕봉을 고침이 옮고 작은 입석의 자연석으로 표지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춘면 하원리-태화산 구간에는 하늘아래 첫 동네인 듯한 해발 600m에 영월홍교 마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발아래 있습니다. 혼로께서는 영월의 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다고 하십니다. 만나절은 족히 견될 것 같았습니다. 별재-천금산 구간에서는 맹반데룡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절은 안개와 완만한 구릉지에서 능선 길을 찾지 못하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산행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크고 험한 산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닭이머리 고개에서 덕은나루구간에서는 마을 어부의 나룻배를 이용 도경계를 지나기도 하였고, 덕은나루-안골구간에서는 황산천변을 걸으면서 도계를 확인하였습니다. 비선골 보답사에서 장고개를 거쳐 먹골 탐사구간에서는 이장근 진천 부군수님과 김찬기 향토사학자 등 몇 분이 탐사팀을 격려차 아침을 제공하셨고, 일본의 조선지배 전략 중 첫 번째 정책이 조선의 문화, 풍수지리를 조사하여 자신들의 정부에 보고하고, 자명을 바꾸어 놓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찌, 그 동안 도계를 걸으면서 노끼고 깨닫고 배우고 듣고, 그리고 다시 새겨진 각오를 다 퍼력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 한 구석에 고이 간직할 따름입니다.

인생은 걷는 것이다.

이동수

인생은 걷는 것이다.

가야만 한다. 걷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올수도 없는 것이다.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이산, 저산 다니는 것도 좋지만 3구간 이상을 연결하여 종주산행을 해 보셨나요? 산에서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도 이정표 없는 충청북도경계 능선 숲속에서 도로에 하산했을 때 충북의 경계선에 도착할 수 있는 방향을 잡는 능력이었으리라.

산을 끌고 가는 사람, 산에 끌려가는 사람 그러나 산에 가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삶견따라이천오백리 장도의 산길 충북도계탐사 5개년 계획 일정을 마무리 하며

청주를 안고 충북을 품은 청풍명월 산사람이었다.

충북도계탐사 연방회 단장님, 박연수 대장님, 연재환 선배 산악인님, 정동주 선배 산악인님, 윤석주 선배 산악인님, 송태호 선배 산악인님, 박종익 선배 산악인님, 김정식 선배 산악인님 충주의 대표 이상기 교수님, 충남의 대표 이진이 교수님, 박재인 교수님, 이홍원 화백님, 윤석위 시인님, 이동수 시인님, 윤희경 숲해설가님, 정경숙 대표님, 육성준 기자님 그리고 고행의 산길을 오르고 내리신 태원 여러분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도계탐사에 참여하신 도민 여러분 모든 산악인 산우 여러분 농토의 겨울날 새벽 마명에 길 없는 산길 입산 하신 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끄럼 없는 표정

육성준 충청리뷰 사진기자



마을탐사를 위해 제천시 백운면의 한 시골마을 터줏대감 댁을 찾은 일이 있다. 70평생을 그 곳에서 일가를 이루며 산 조경행(71) 할아버지는 단기연도를 사용하며 물맹퇴치와 농촌계몽활동 등을 했던 것을 기억했고 낯설 법도 한 우리 일행들에게 따뜻한 화로와 술상을 대접하고 사연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깊게 파인 주름에 하나 밖에 없는 아랫니, 거기에 콩깍는 기계에 잘린 손 마디까지 할아버지의 사연 많은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뒤 할아버지는 일행들에게 문 앞까지 나와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해맑은 어린 아이 같은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풋풋하게 해 주었다.

남들 앞에서 갑추고 싶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전혀 거리낌 없이 보여주시는 할아버지의 부끄럼 없는 표정이 개성이 잘 표현된 포트레이트가 된 셈이다. 비록 이가 없고 손마디가 없지만 할아버지의 환한 '웃는 주름'을 누구 하나 무표정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일명 '뽀샵'(포토샵)으로 얼굴의 눈, 코, 입만 보여주는 사진이 주를 이룬다. 그 영역은 아기 사진에서부터 영정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누구나 깊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원래 얼굴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함으로 수정하는 것은 외모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다. 조경행 할아버지의 이 부끄럼 없는 천진난만한 표정에서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세월에 맞게 나이든 얼굴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법이다.

원래 잘 웃지만 카메라만 들이대면 순간 근엄한 무표정의 얼굴로 변해 버리는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 표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 사진을 찍을 때 "와이기기~~" 하는 소리를 내며 입꼬리를 올려보자.

충북도계 마을탐사를 위해 충주시 엄정면 소림마을을 찾았다. 이곳에 별·달·해 라는 농장이름을 짓고 유기농 밭작물을 재배하는 김백상(60)·이정의(54세)씨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서울에서 귀농한 부부였다. 두 내외는 탐사단을 반갑게 맞이하며 후한 대접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자도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꼼꼼히 카메라에 담았고 이들의 사는 이야기는 본보에도 실었다.

누군가 찍어준 사진이 소중한 추억이 된다.



얼마 전 남편 김백상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부인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현재 뇌사 상태에 있다며 그때 찍었던 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다. 기자가 찍은 사진이 생애 마지막 찍은 사진이라며...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내 사진 여러장을 뽑아 우편으로 보냈다. 그리고 며칠 뒤 울먹이는 목소리의 전화가 왔다. “사진을 보니 마치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 너무 기쁘다” 그는 이어 탐사단을 만난 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었다고 꼭 한번 찾아오라며 인사를 마쳤다. 직업 사진가로서 이들을 하나의 회사체로 보고 작업에 임했던 기자는, 비록 그 얘기에 마음은 무겁고 슬펐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추억이었다는 사실로 새삼 위안을 삼았다. 안타까운 사연의 사진이지만 한 장의 사진이 역사가 되고 사람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했던 일이었다.

인물 사진은 외면을 통해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사진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물과 많은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 사진을 부탁하고 거기에 선뜻 응한다면 그들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사진을 부탁할 때 주저하지 말고 찍어주면 어떨까? 그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되는 것이다.

충청북도 도계탐사를 마치며

박재인
(청주시 개신동 기주,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충청북도는 바다를 면하지 않은 유일한 도이다. 그래서 사방이 다른 도와 접해 있다. 우리네 삶에서 주변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다. 한 집에서 그 집이 온전하려면 울타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하나의 행정단위인 광역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라. 지방자치가 실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결정권을 갖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인 국경보다는 훨씬 낮은 의미를 지닌다. 국경은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이의 필요성은 국방과 외교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국가의 흥망과 정치변동에 따라 국가의 소속이나 경계에서 매우 변동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을 벌이던 삼국시대 때가 제일 심했다고 보인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는 국경이 아니고 행정구역변경에 의한 변동이 있었다. 도계가 현재의 상태로 된 것은 다른 원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알고 있다. 백두대간을 탐사하고 도계를 탐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도계의 설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인위적이라는 것이다. 수계나 능선, 하천을 따라 도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충북의 경우는 좀 손해나는, 즉 타도가 충북 쪽에 속해야 할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동쪽이 특히 그러한데 이런 현상을 접할 때는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나와 남을 따져야 하는 것은 생존법칙이기 때문이라.

본인은 도계탐사 초기부터 참여한 것은 아니다. 진천을 지나 음성부터 참여 한 것이 기억난다. 그때는 현충주시장이신 우건도 당시 음성 부군수가 격려차 참여했던 것이 기억난다.

탐사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놀토라고 불려진다)인 월 2째주 4째주 토요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가하는데 무리는 없었지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가끔 일이 생겨 참여가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식물 탐사는 줄을 지어 가다가 일정구간 가면 돌아오는 식이라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원칙적으로 표본을 채집하고 그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참여도 일부 이루어졌다. 인도에서 한 달간 와 있다간 바르티다산대 자야발란교수가 같이 참여한 것이 생각난다. 배가 좀 나온 관계로 또 산에 가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무척 힘들어 하던 것이 생각난다. 그분이 최근에 그 때 갔던 지역은 제천시로 매우 험준한 구간이었다.

도계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알게 된 것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된다. 연방회 단장님 박연수대장님은 물론이고 정동주 선생님 윤석주선생님 윤석위대표님, 산에 대해 너무도 훌하게 아시어 늘 놀라움으로 대하게 되는 연재환선생님, 특히 홍성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하여 참여하기를 계속한 이진이교수님 충주의 이상기교수님 식물에 해박하여 식물박사별칭을 얻으신 윤희경선생님, 사업을 하신다는 정경숙님 등 박종의 정현진 부부교사님, 김주영선생님 등이 계속 기억될 것이다. 충청리뷰 육성준기자도 새로이 알게 되었다. 이동수 시인의 시낭송도 기억에 남는다.

도계탐사는 5년동안 수행되었고 특성상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고 계절에 걸쳐 이루어져 계절에 따른 특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이를 보고서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한데 게다가 예산 뒷받침도 빈약하고 인쇄비마저 부족한데다 분량은 커서 더욱 어려운데 이와 같은 보고서가 발행된 적이 없어 매우 유용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탐사에 참여하며 이루어진 운동은 부차적인 효과라고 하겠다.

이제 걷기운동이 봄을 아름에 따라서 걷기길 만들기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열성이다. 제주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괴산산막이산길 등등 청주삼백리에서도 몇 년 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청주 주요산의 등산로를 안내하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이제는 청원청주 통합이후를 생각하여 청원군계를 돌아보는 것이 소망이다.

▶ 작자 소개 ◀

- ◆ 사진으로 보는 도계 – 윤성준
- ◆ 구간별 진행 사항 – 박연수
- ◆ 충북도계 행정구역 현황 – 윤석주
- ◆ 도경계마을 및 인구수 – 박연수
- ◆ 충북 도경계상의 문제점 – 박연수
- ◆ 충북지역의 하천현황 – 이진이, 박연수
- ◆ 구간별 고도표(GPS) – 이상희
- ◆ 경계탐사 – 정동주
- ◆ 마을탐사 – 송태호, 윤석위
- ◆ 이 고장의 스토리텔링 – 이상기
- ◆ 이고장의 전설과 민요 – 윤석주
- ◆ 도계를 따라 흐르는 산성 – 박주영
- ◆ 충북의 주요산별 식물분포 – 박재인
- ◆ 100년전 기록보기(충북의 옛 모습, 타도의 모습) – 윤석주
- ◆ 대청호 둘레길 – 송태호

V. 부 록

◎. 100년전 기록보기

1. 충북의 옛 모습(장지연의 '대한신지지' 중)
2. 타도의 모습(충남, 경기, 강원, 경북, 전북)

◎. 생명의 호수 대청호 둘레길

◆ 100년전 기록보기 ◆

1. 100년전 충북의 옛 모습

대한신지지(장지연)

14907년 발행

(광무11년 6월 발행)

2006년(1차년도 탐사) 9.23일 삼성면 상곡리에서 발견된 책자 중 충북편 – 번역내용

공교롭게도 100년전의 모습을 짐작하게 해 주는 책자가 그 때, 거기서 발견되어 탐사대 모두놀람.

충청북도의 우치.경계와 연혁, 산과 고개, 도회지를 주요 군별 모습이상 세히기록되어 있음.

*충청북도(忠淸北道)

(위치경계)

충청북도는 경기도 동남방에 있으니, 동북쪽은 강원도를 접해 있고 동남쪽은 경상도와 이웃하고, 서쪽은 충청남도와 연해 있고, 남쪽은 전라북도에 이른다. 동서의 잇수는 약 200 리요, 남북이 약 200 리이니 북위 36도 0으로부터 37도 0에 이르며 동경 127도 반으로부터 129도에 이르니 그 지형이 동북으로 둥글길쭉하여 반쯤 활처럼 굽은 형국이다.

(연혁)

충청북도는 옛날 마한의 땅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 나누어 근거지를 삼았던 곳이다. 고려 성종 14년에 충(忠), 강(剛), 환(歡) 등 13주로 중원도(中原道)를 삼았다가 예종 원년에 관내도(關內道)를 합하여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 일컬고 명종 원년에 다시 합쳤다가 이를 나누어 2도를 삼았다. 충숙왕 원년에 다시 합쳤다가 공민왕 5년에 충청도라 하고 신우(辛禡) 말년에 평창군을 분할하여 교주도(交州道)에 이속(移屬)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원년에 영월군을 분할하여 강원도에 이속시켜 강원도 영춘군에 딸리게 했다. 또 태종 13년에 여흥, 안성, 음죽, 양성, 양지 5군을 분할하여 경기도에 딸리게 하고, 경상도 옥천, 영동, 청산, 보은 등 5군에 내예(來隸)하였다. 고종 33년에 충청남북도를 나누니 모로 17개 군이었는데 광무 10년에 문의군을 포함시켜 18개 군이 되었다.

(산과 고개)

경상북도 대소백산(大小白山)과 조령 산맥이 서남쪽으로 이어지며 충청북도 동남으로 속리산과 추풍령이 되어 경계를 가로게 되니 동북은 산꼭대기의 날카로운 봉우리가 중첩해 있고 지세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형상이며, 서남쪽은 점점 편편하고 넓어지는 형세로 인정(人情)이나 풍토(風土)가 경기도와 별반 다름이 없다.

속리산(俗離山)은 보은군 동쪽 40리에 있으니 아홉 봉우리가 우뚝 솟아 구봉(九峰)이라 부르기도 한다. 산세가 자못 웅장하고 넓다. 산의 정상 부근은 모두 바위 봉우리로 하늘에 우뚝 솟아 벌여 있는 것이 마치 옥으로 만든 연꽃과 흡사하니 달리 소금강산이라고도 부른다. 산꼭대기에 문장대(文章臺)가 있으니 포개진 돌이 하늘로 솟았는데 그 넓이는 30여명이 앉을 만하고 위쪽에 돌구덩이가 있어 가마솥과 비슷하다. 그 가운데서 물이 나와 흥수 때나 가뭄 때나 그 물이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다고 한다. 또 이 물줄기가 세 갈래로 나뉘어 떨어지는데 동류(東流)는 낙동강으로 흘러가고, 서류(西流) 북으로 흘러 달천이 되어 한강으로 흘러가고, 남류(南流)는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천왕봉은 문장대 남쪽에 있는데 아주 높

고 험하다. 산 아래에 팔교구곡(八橋九谷)이 있으니 제 1교는 수정교로 다리 위에 비각(飛閣)이 있어 사람들이 이 걸쳐높은 높은 다리로 통행하여 법주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절은 신라 때 중 의신이 창건했는데 의신이 흰 노새에 불경을 실어 왔다고 한다. 절 안에 석조(石槽), 석교(石橋), 석옹(石甕), 석획(石鑊), 산호전금신장육상(珊瑚殿金身丈六像)과 동종(銅鐘)이 있으며 이 동종에 통화(統和) 24년에 만들었다고 새겨져 있다. 또 이 절 서쪽에 거북 형상을 하고 있는 돌거북이 있고 그 등 부위에 50여 명이 앉을 만하며 그 머리를 번듯이 서쪽을 향하여 쳐들고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원나라 때 솔사(術士)가 소문을 듣고 찾아와 보고는 중국의 재물이 동쪽나라로 날로 빠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거북 때문이라고 하여 거북의 머리를 내리쳐 잘라버렸다고 하는데 이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궤설(詭說)에 불과하다. 신라 때 이 산을 중사(中祀)에 제사하고 조선 조 세조대왕이 남순(南巡)했을 때 복천사(지금의 복천암, 세심정에서 문장대 방향 가까이에 있다)에 머무르셨다.

속리산의 서북쪽 한 가지는 원성산(元城山), 금산(錦山, 拜槐山), 백족산(百足山), 보현산(普賢山 陰竹), 수정산(水精山), 가업산(迦葉山 陰城), 길상산(吉祥山 鎮川), 천문령(天門嶺 鎮川), 두타산(頭陀山 清安) 등 여러 산이 되어 산악이 빽빽하게 중첩하고 있다. 속리산 북쪽에 청화산(青華山), 도장산(道藏山)이 나란히 솟아 있고 그 가운데는 용유동(龍游洞)이 있으니 너른 용유동 반석이 펼쳐진 위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 크고 작은 폭포와 용소를 이루어 그 경개가 기기절묘하다. 돌들은 돌구유, 돌솔, 도끼, 절구의 웅장함과 같고 무수한 섬돌과 봉우리를 만들었으며 양, 호랑이, 닭, 개 등 동물 모양으로 기이하고 교묘한 형상이 천하의 절경이다. 청화산 동북에는 선유산(仙遊山)이 있으니 그 꼭대기가 평탄하고 산과 계곡이 깊고 길며 위에는 칠성대(七星臺)와 호소굴(虎巢窟)이 있다. 이곳은 최진인(崔眞人) 도()와 남궁도사(南宮道士) 두(斗)가 단련하던 곳이다. 칠성대 서쪽은 파곶산(葩串山 일명 落影山)이 있으니 이곳 역시 산에 싸이고 내에 둘린 절경이다. 큰 시내가 돌 사이에 흘러 넘쳐 웅장함은 금강산 만폭동(萬瀑洞)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기괴함은 빼어나니 삼남(三南) 자연의 으뜸이다. 그 아래 화양동(華陽洞)은 수석이 더욱 기이하며 그 경치와 모양이 밤에도 대낮과 같이 수려하다. 만동묘(萬東廟)가 이곳에 있다.

속리산의 또 한 가지는 남쪽으로 내달려 천둔(天菟), 덕의(德義, 청산을 바라보는)산이 되고 또 다른 가지는 화령(火嶺), 추풍령(秋風嶺) 등 고개를 넘어 덕유산(德裕山)에 이르고 또한 가지는 북으로 달려 거령산(巨嶺山)과 대문령(大門嶺 鎮山), 마일령(摩日嶺 木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북으로 음성 서쪽에서 불쑥 솟아 가업산(迦葉山), 부용산(芙蓉山 충주서쪽을 바라보는)이 되어 금천(金遷), 가흥(嘉興) 강안(江岸)에 이르러 장미산(薔薇山), 소속리산(小俗離山)이 되고 거꾸로 나가 옥장산(玉帳山 *왕장산의 잘못인 듯), 팔성산(八聖山)이 된다.

백운산(白雲山)과 감악산(紺岳山)은 제천 서북쪽에 있으니 산이 평탄하고 들이 넓게 펼쳐졌으며 산의 남쪽에 의림지(義林池)가 있으니 호서(湖西)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한다. 신라 때 제방을 쌓아 논밭에 물을 대어 쓰게 하였다. 이곳에 향순(香蓴, *순채)이 자라는데 그 맛이 청향하기 이를 데 없다. 의림지 주변에 김씨의 후선정(候仙亭)이 있고 월악산(月嶽山 일명 月兄山)은 청풍(淸風) 서남쪽에 우뚝 솟아 있으며, 괴산의 보광산(普光山), 연풍의 계립령(鶴立嶺), 영춘의 별퇴산(別退山)이 그 동북쪽으로 벌여 있어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하류(河流)

청풍강(淸風江)은 강원도 금강연(金剛淵)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중앙을 훠뚫어 흘러 한강으로 흘러 드는데 강안(江岸) 남쪽에 청풍리가 있고 한벽루(寒碧樓)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형승이 특별하다. 단양과 영춘 두 군은 이 강을 끼고 있어 산수가 특별히 아름답다. 달천(일명 德江)은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청주군에 이르러 청천(靑川)과 만나고 괴산군에 이르러 괴강나루가 된다. 또 충주 서쪽에 이르러 청풍강과 합류하여 금천, 목계, 청룡나루를 지나 한강이 되니 국조(國朝) 이행(李行)이 물맛을 칭찬하여 이 물이 국내에 제일이라 한 바 있다.

도회승지(都會勝地)

▶ 충주(忠州)

충주(일명 國原, 中原, 昌化, 藥城, 大原)는 경성의 동남쪽 280 리에 있으니 서쪽은 경기도 여주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강원도 원주와 이웃하고 있는 충청북도 관찰부의 소재지이다. 동남쪽으로 영남 지방으로 통하고, 서북쪽으로는 경기도와 접하고 있어 수륙(水陸)의 교통이 편리한 까닭으로 여러 가지 물산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시장이 흥성스러운데, 이는 갑자기 닉치는 사변에 전장(戰場)이 될 수밖에 없는 비운의 땅이기도 하다. 동쪽에서는 청풍강이 흘러 오고 서쪽에서는 달천이 내려와 금천나루에서 합류하여 한강의 상류가 된다. 생선과 소금이 배로 들어 오므로 이곳에 여각(旅閣)이 즐비하고, 서쪽 10여 리에 가을창은 장미산을 뒤로 하고 있으며 지난날 경상 7읍과 충청 7읍의 조세를 수납하던 곳이다. 이로 인하여 이곳 주민이 부요함을 누렸는데 이는 반대로 갑오 동학의 난리 때 여러 차례 병화(兵禍)를 피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서쪽에 말마산(秣馬山)은 십청(十清) 김세필(金世弼)이 들어가 쉬던 곳이고 강북에 내창(內倉)이 있고 창의 서쪽에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의 옛집이 있다. 충주부 서북쪽 7리에 대문산(大門山)이 있고 그 아래는 금휴포(琴休浦)요 바로 위는 탄금대(彈琴臺)이 신라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으로 푸른 절벽이 우뚝하고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다. 강 아래는 양진(楊津)으로 임진왜란 때 신립(申砬)이 전몰한 곳이라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회고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남쪽에 단월(丹月) 역은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옛 사당이 있어 모셔진 영정에 장군의 영웅적 품모와 굳센 법도가 남아 늠름하기만 하다. 금천 서쪽에 월락탄(月落灘)과 하당(荷潭)의 경개가 빼어나고 또 서쪽 목계나루는 화물이 모여드는 큰 시장을 이루었다. 서쪽엔 청룡사 계곡이고 계곡 북쪽은 내촌창이고 동쪽은 월은령(月隱嶺)이니 제천과 경계를 이룬다.

풍류산(風流山)은 군의 남쪽에 있으니 위로 높은 바위 수십 길이 솟아 있어 옛날 선녀포모(仙女泡母)가 놀던 곳이라 포모대란 이름이 붙어 있고 천등산(天燈山)에는 개천사비(開天寺碑)가 있어 사람들 말로는 당나라 개원(開元) 간에 세웠다고 하나 비문이 벗겨 없어져 읽어낼 수 없고, 검암산(劍巖山)은 바위 봉우리가 마치 칼과 같이 날카롭게 솟아 있다.

▶ 청주(淸州)

청주(일명 娘臂城, 娘子谷城, 낭성, 靑州, 西原)는 경성 동북쪽 290 리에 있는 큰 도회지이다. 거대령(巨大嶺 *거대산)을 등지고 동진강(東津江)을 임해 있어 남쪽은 물길이 높고 서쪽은 편평하기 때문에 해마다 물난리가 끊이지 않는다. 거대령이 서쪽으로 진천 길상산(吉祥山), 옥천 마일산(摩日山) 등 여러 산들과 서로 마주 대하여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그 가운데로 그지없이 너른 들판이 4,50 리나 펼쳐져 있고 낮은 언덕 큰 언덕들이 평야에 잇대어 있고 여러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합류하여 작천(鵲川, *까치내)이 되어 동남쪽으로 부용진(芙蓉津, 금강 상류)으로 들어가니 이 내의 서쪽은 옥천, 전의, 연기군을 이루고 내의 동쪽은 청안, 청주, 문의 군이니 그 중 청주가 가장 크고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목면(木棉)을 풍성히 생산해낸다. 그 안에 팔봉(八峯)이 웅장하고 너르게 솟아 있고, 맑은 시내 흰 모래밭, 평평하고 고운 산록(山麓)이 종횡으로 벌어 있다. 성안에는 오래된 구리 담장이 있으며 관가 뜰에 압각수(鴨脚樹, *은행나무)는 고려 말에 목은(牧隱) 이색(李穡), 도은(陶隱) 이술인(李崇仁) 공이 갇혀있던 곳이며 영조 무신(戊申)에 도적 이인좌가 병사를 일으켜 성을 함락했던 곳이기도 하다. 상당산성은 극히 높이 솟아 그 동쪽에 있는 청주창(淸州倉)은 고령 신씨의 세거지요, 또 변(卞)씨의 인풍정(引風亭)과 옥류대가 있으며 그 동쪽은 구만(龜灣)이요, 그 동북에 송전촌(松田村)이 있어 모두 시내와 산의 경치가 아름답고 궁실에서 쓸 수레나 배의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청주군 남쪽에 국사봉(國士峯)은 중봉(重峯) 조현(趙憲)이 일병(日兵)과 크게 싸움을 벌인 곳이고, 검단산(僉丹山)은 백제 명승(名僧)의 옛 세거지이다. 그 동쪽에 초정(椒井)이 있으니 세종, 세조가 일찍이 행행(行幸)하던 곳이며 그 동쪽에 주애향(*周崖鄉)이 있으니 옛 주애(周崖)의 땅이다.

▶ 진천(鎭川)

진천(일명 萬弩, 絳州, 黑壤, 黃壤)은 충청북도 서쪽에 있어 경기 죽산과, 충청남도 옥천과 이웃하며 산수가 아름답다. 군 서쪽에 길상산(吉祥山, 일명 胎靈山)이 있다. 신라 진평왕 때 태수 김서현의 처 만명(萬明)이 임신한지 스무 달 만에 유신(庚信)을 낳고 태를 이 산에 묻었기 때문에 태령산이 되었다. 金庚信祠가 있고 보련산(寶蓮山), 두타산(頭陀山)과 협단령(脅存嶺), 대문령(大門嶺)이 서로 나누어 버티며 경계를 이루고 있다.

▶ 단양(丹陽), 영춘(永春), 청풍(淸風), 제천(堤川)

충청북도 동북쪽 한강 상류에 연해 있는 단양(丹陽), 영춘(永春), 청풍(淸風), 제천(堤川) 네 군(郡)을 연강사군(沿江四郡)이라 부른다. 그 강산의 경치는 단양이 가장 빼어난데 수많은 그것은 산 가운데 둘러 싸여 있기 때문이다. 십리(十里) 평야가 없으나 강과 시내, 바위와 동굴의 경개가 빼어나 세상에 이담삼암(二

潭三巖)이 알려져 있으니 2암은 도담(島潭)과 구담(龜潭)이요, 3암은 상선암(上仙巖), 중선암(中仙巖), 하선암(下仙巖)을 말한다.

도담은 북쪽 영춘 경계에 있어 강류가 휘돌아 나가고 물 가운데 세 바위봉우리가 뾰족하여 조물주의 송씨가 놀랍기만 하다. 구담은 단양의 서쪽으로 청풍 경계에 있다. 석벽은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강물은 협곡 중에 훌러가니 문호와 같고 왼쪽에 강선대(降仙臺), 분운봉(粉雲峯), 옥순봉(玉筍峯)이 솟아있다. 강선대는 강을 향한 높은 누각처럼 생긴 바위로 그 위에 백 여 명이 앉을 만하고 분운봉, 옥순봉은 만 길 바위 봉우리가 죽순처럼 빼어나다. 강물이 훌러가는 강바닥엔 여기저기 반석이 많다. 3암은 군내 서남쪽 계곡 안에 있으니 큰 시내가 높은 바위 안쪽으로 훌러내려 시내의 바닥과 양 계곡이 모두 바윗돌로 기암절벽이 천태만상으로 그 어디에 비할 데가 없다. 물과 돌이 서로 다질려 밤낮으로 떠들썩하고 좌우는 키큰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실로 세상과 다른 곳이므로 여기를 상선, 중선, 하선이라 부른다.

군 동남쪽에 운암(雲巖)의 경치가 놀라우니 석벽 위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의 정자터가 있고, 단구협(丹丘峽)은 양 절벽이 서로 대치해 있다. 한 가닥 강이 가운데로 흐르며, 오로봉(五老峯)이 있고 가운데(加文)고개는 영춘(永春)으로 나가는 길에 있는 가장 험난한 고개이다. 영춘 역시 산협(山峽) 한 가운데 있는데 남쪽 성산에 있는 석굴은 끝을 모르게 깊고 물이 혼흔(混混)히 훌러나오고 그 물은 얼음처럼 맑고 차다.

단양의 서쪽은 제천이다. 신라 내토(柰吐 일명 奈堤, 義原) 군이다. 서쪽 방향은 온통 산이요, 산 위로 들이 열려 북으로 의림자가 있으니 조선 세종 조에 축조되어 관개 사업에 유익함이 엄청나다. 동북쪽은 평창, 영월의 깊은 협곡을 접해있고 남쪽은 청풍(청풍, 사열이)이니 비봉산, 월악산, 금병산, 금수산 등이 강을 사이하여 둘려 있고 치솟은 수많은 봉우리가 서로 다투는 듯하다. 봄꽃 가을 단풍의 계절에는 찬연히 비단 장막을 휘두른 듯하다. 그 안에는 수많은 약초가 있다. 한벽루는 강을 내려다 보는 유명한 누각이고 그 서쪽 황강 마을에 수암 권상하의 옛집이 있으며 청초호는 병산 아래에 있는 호수로 그 물빛이 쪽빛으로 아름답다. 공황(恐惶) 여울에는 양쪽 바위들이 마치--과 같은데 여울이 깊어 쪽빛이며 물 아래는 모두 반석으로--한 모양이 도끼와 한가지이다.

▶ 괴산(槐山), 연풍(延豊)

충주의 동남에 괴산(槐山)과 연풍(延豊) 두 군은 새재, 느릅재 사이에 끼어 있는 궁벽한 고을이다. 괴산 괴강(槐江)의 일대는 관개가 아주 편리하고 차령(且嶺, *鳥嶺의 잘못인듯) 남쪽을 관통하는 큰길인 까닭에 많은 물자가 모여드는 곳이다. 그 서북쪽은 음성(陰城)이니 보현산(普賢山), 수정산(水精山), 정자산(亭子山) 등 여러 산의 사이에 있는 작은 고을이다. 수정산 아래쪽 많은 바위 모습이 기이하다.

▶ 보은(報恩), 청산(青山), 황간(黃澗), 영동(永同), 옥천(沃川)

청주의 동남에 보은, 청산, 황간, 영동, 옥천 5군이 있고 청주 서북쪽으로 청안, 회인, 문의 군이 있으니 모두 궁벽한 산속의 작은 고을들이다. 보은은 신라 때 삼년산성(일명 오정산)군이니 3년에 걸쳐 축성되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 태조가 머물러 싸운 곳이기도 하다. 속리산은 경치가 빼어나다. 그 남쪽 청산은 덕의산, 천둔산, 문수산, 도술산이 연달아 우뚝 솟아 있어 땅이 대추농사에 적당하므로 주민이 대추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 남쪽 황간은 황악산(黃岳山)이 수백 리에 웅반(雄盤)하여 호남(湖南)과 영남(嶺南) 2도를 사이하여 있고 추풍령(秋風嶺)은 경부선(京釜線) 길에 정거장이 되어 시장이 번성하고 석천(石川)과 장교(長橋) 두 강이 돌아나가 관개(灌溉)가 수월하다. 서쪽은 영동이니 천마산(천마산, 일명 남각산), 박달산 두 산이 남북에 솟아 있고 고당강(고당강)이 서쪽으로 훌러 금강으로 훌러들어 간다. 성서쪽에 있는 낙화대는 예로부터 송별의 장소였고, 군 서쪽에 용연폭포가 깎아지른 절벽 위에 걸려 있다. 또 그 북쪽 옥천은 동림산, 마성산, 마니산이 있으며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적등강이 금강으로 훌러든다.

영동, 옥천 두 군(郡)은 경부선이 가로질러 나가니 밖으로부터 물목의 드나듦이 빈번하다. 그 남쪽에 있는 양산은 신라 김흥운(金歆運)이 전몰한 곳이다. 회인은 보은 북쪽에 있는 산중소읍이다. 풍계촌(楓溪村)이 있고 기후 풍토에 맞아 담배 농사를 많이 한다. 청안은 분적현 아래 있고 문의는 구룡산이 있어 그 산마루에 노인성전(老人星殿)이 있고 그 서쪽에 월굴산(月窟山), 옥녀봉(玉女峰)이 있다. (p139~151)

2. 타도의 옛 모습

1) 100년전 충청남도

(위치. 경계)

충청남도는 경기도 남쪽에 있으니 남은 전라북도와 접하고 서북쪽에 연해 있는 군들은 해상에 돌출하여 멀리 황해도 연안군, 용진군 등과 마주하고 있다. 또 서쪽 일대는 해면을 임하여 바로 청나라 상해, 천진과 일본에 왕래하는 항로가 된다. 동쪽은 충청북도와 달아 있다. 동서는 약 2백 리, 남북은 약 2백 오십 리이다. 북위 25~27도에 이르며 동경 126~127.5 도에 이른다.

지세는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들이 중첩하며 도의 반 정도가 온통 산이다. 그렇지만 너른 들판이 많으며 토지는 기름지고 섬들이 많다.

(연혁)

옛날 마한의 지역으로 백제가 점주(占住)했던 곳이다. 문주왕이 웅진(공주)에 도읍을 옮기고 성왕 때 사비(부여)로 옮겼다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 당나라가 웅천도호부를 설치하고 후에 신라에 속하여 웅주를 세웠더니 고려 성왕 13년에 공운 등 11주로 하남도를 두었다. 그 후 예종 원년에 관내도에 합해지고 명종 원년에 다시 나뉘었다가 충숙왕 원년에 다시 합쳐졌다. 조선조 태종 2년에 충청도로 불리다가 고종 33년에 충청남북도를 나누었으니 군의 수효가 37개 군이었다. 광무 10년(서기 1907년)에 문의군을 충북도에 내어주고 36개 군으로 고쳐졌다.

(산령)

속리산맥이 덕유산에 머물러 서쪽으로 마이산이 되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 계룡산을 만들었다. 속리산 한 가지는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대문령, 마일령이 되고 또 차령이 되며 서쪽으로 더 나아가 무성산, 오서산이 되었다.

계룡산은 공주, 진잠, 연산 등 여리 군에 걸쳐있어 에두른 능선길이 구불구불하며 산정기가 빼어나다. 국초에 이 산의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수레로 친히 행차하여 그 터를 점쳤는데 조운이 불편하므로 파하고 그 터를 신도라 불렀다.

그 남쪽에 용천동이 있으니 양 봉우리가 어금니를 벌린 듯하고 큰 바위의 구멍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온다. 또 봉립동에 있는 큰 절구에선 물이 넘쳐 폭포를 이루고 이 물이 북류하여 금강으로 들어간다. 이 유역이 바로 유성 들판이다.

(산봉우리)

산봉우리 한 줄기가 서쪽으로 내려와 판현이 되고 또 우뚝 솟아올라 월성(공주), 망월(석성), 부소(서천) 등 산봉우리가 된다. 금강 북쪽의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는 본도 북부의 길상(진천), 오봉(연기), 갈현(공주) 등의 산줄기가 되어 구불구불거리다가 또 울릉불룡 이어진다. 이것이 동쪽의 큰 산줄기와 마주하고, 오봉산의 한 줄기는 북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뻗어 있다가 천안, 온양 경계에서 불끈 솟아 연암산이 되니 그 산기슭에서 온천이 솟아난다. 본도의 남쪽에 있는 공명산, 은제산은 모두 혐준하지는 않다.

차령(수레티)은 공주 북쪽에 우뚝 솟아 있다. 산세가 구절양장 빙 돌아나가며 우거진 숲과 깊은 골짜기가 첩첩하다가 북쪽으로 한 고개가 점점 낮아져 통행로를 열어놓으니 여기가 차령(수레티)이다. 이 지맥이 서남으로 이어지다가 무성, 유구 등의 산줄기가 되어 금강 북쪽 언덕에 병풍 모양으로 둘러서 있다.

오서산은 홍주 남쪽에 있는 큰 산인데 높고 험하여 늘 구름 위에 솟아 있는 듯하다. 그 아래로 여러 산들이 멀리 줄지어 솟아 있다. 오서산의 한 줄기가 남으로 달려 성주산(염포), 아미산(염포), 월명산(비인) 등 명산이 되고 백월산(청양), 월산(홍산), 가야산(덕산)으로 서로 겹치며 이어져 있어 산세가 돌올하여 그 자태가 맑고 빼어나다. 이 이외에도 고용산(아산), 입암산(아산), 태미산, 다불산(면천)은 북쪽에 널찍하게 펼쳐져 있다.

(하천)

금강은 충청전도의 큰 강이다. 그 근원이 하나는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달계(용담), 소이진(무주), 고당강(영동)이 되고, 또 하나는 속리산에서 발원하여 황간, 영동의 물줄기인 심천, 송천이 되어 서쪽으로 흐르다가 옥천 동북쪽에 이르러 차탄(), 화인진()이 되고 적등진에서 합류하여 말흘탄(懷仁), 이원진, 신탄진이 되고

공주 동북에 이르러 동진강(연기)이 흘러들어 합쳐지고, 다시 남쪽으로 꺾여서는 와탄, 웅진, 금강, 백마강(부여)이 되고, 강경 포구에 이르러선 진강(鎭江)이 되고 서천에 도달하여 바다로 빠져든다.

동진강(일명 까치내)은 그 근원이 천문령(天門嶺, 진천)에서 발원하여 수많은 봉우리 사이의 시냇물을 아울러 남으로 흐른다. 청주, 문의를 지나 금강으로 들어가니 물이 맑고 깨끗하다. 맑은 산봉우리 이어진 곳에 부용나루가 있으니 그 풍광이 수려하고 지세가 비옥하다.

소사하(素沙河)는 그 근원이 미륵천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신창에 이르러 단장포(丹場浦), 정포(井浦)가 된다. 서쪽으로 돌아 아산, 영인 근처에서 그 물이 휘돌아 곡교천과 합해지며 아산만 커다란 호수가 되고 수문을 벗어나면 바로 바다에 이른다. 하구에 일대 암석이 우뚝 솟은 형상이 마치 발해의 갈석(碣石)과 흡사하다. 이 북쪽은 소사평(稷山)이니 백리 너른 평야 지대이다. 선조 30년에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가 원병을 풀어 일본 군사를 대파하던 곳이다. 논밭 가는 농부가 왕왕 칼과 창날 조각을 발견하는 곳이기도 하다.

(해만과 도서)

아산만은 충청 경기 사이에 있어서 앞뒤 두 개의 만으로 나뉘니 앞은 고온포, 뒤는 공세관호 일명 대내산진의 조창(租倉)이다. 만곡이 아주 넓어 선박의 정박이 원활하여 충청도 공세미를 받아 쌓던 곳이다. 그 남쪽은 소사하가 된다.

당진포는 본도의 서북쪽에 있는 당진에서 서쪽으로 30 리에 있다. 옛날 수군 만호의 진이다. 선박의 정박이 편리하고 지난날 중국 사신이 왕래하던 요지인 까닭으로 채운교와 석문산은 양국 사신이 시부(詩賦)로 예찬하던 유명한 곳이다. 맹관과 난지도, 초락도 등 여러 섬이 늘어서 있고 당진포와 서로 싸안는 다른 쪽 만은 파지도이다.

서양인들이 말하는 ‘네시부손만’(*)은 배의 정박이 편리하다. 서쪽 태안군과 서산군 사이에 깊이 파인 곳은 굴포만이다. 또 태안으로부터 서산까지 한 줄기 땅을 사이하여 천수만(淺水灣)이 있으니 이는 육지 안쪽으로 생겨난 천혜의 항구이다. 그러나 바다 밑이 암초와 얕은 모래가 많아 그 점 배의 정박이 불리하다. 결성 동산포(일명 난정포)는 내해에 임한 포구인데 조류가 급해 닻을 내리기에 불편하나 서쪽으로 안면도가 가깝다.

보령진 역시 내해를 끼고 안면도와 서로 바라보는 곳에 있는 수군절도의 진이다. 서호와 영보정이 산과 바다의 빼어난 경치를 갖추고 있으며 무수한 작은 섬들이 서남쪽으로 펼쳐져 있다. 그 남방에 마량진(庇仁)과 비인만, 서천포(고려 때 장암진)이 있으나 수심이 얕아 큰 배가 정박하지 못한다. 그 남쪽은 전라도 옥구진포와 접해 있으며 용당진은 금강의 입구이다.

태안 반도는 동북으로 서산군과 가늘게 이어져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려 있으나 그 서쪽에 있는 안흥진, 소근진은 수군 성곽이 있는 곳이다. 백화산 줄기가 바다로 흘러들어 암초로 솟아오르니 선박들이 자주 좌초됨으로 안흥량(安興梁)이라 부른다. 그 동쪽 일대는 바닷물을 깊이 감싸안는 해안선이 발달해 있고 서쪽에는 멀리 수십 개의 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그 형세가 기묘하다. 백사장 십여 리를 둘러 순체연못, 해당화가 만발해 그 향내가 그윽하다.

안면도는 태안 반도 남쪽에 가로 놓여 있다. 길이 70 리, 넓이 23리. 여러 봉우리가 고리처럼 늘어서 있고 계곡이 많으며 곳곳이 경포금사(鏡浦金沙)로 풍경이 수려하다. 석웅황청등()을 생산하고 또 조정에서 사용하는 배를 제작할 목재를 많이 생산한다.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서산, 태안, 홍주에 속한다. 옛날에 평파 일대가 육지로 닿아 있었기에 안면곶이라 불리다가 연륙처를 파내니 섬으로 되었고 그곳을 굴항포라 하였다.

안면도의 서쪽으로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는데 죽도는 화살을 생산하는 곳이며 요아량과 파지도, 완산도는 모두 수군이 진을 차던 곳이고, 오호도(내분도, 어청도)는 토지가 비옥하여 화살과 닥풀이 생산되고 옛 성터에서는 돌무더기가 완연하여 전횡도라고 부른다. 삽시도는 고라니를 많이 기른다. 그밖에 계봉산도, 가문도, 개야도, 연도, 형제도, 간월도, 웅도, 마도, 외안도, 동을비도, 흥아음도(유도), 고태도(장고도), 인도(사아음도), 고만도, 오도, 율도 등 무수한 섬들이 아득히 펼쳐져 있다.

(도회, 승지)

공주(회주)는 충청남도 관찰부 소재지이다. 경성 남쪽 3백리에 있다. 공주 북쪽에 있는 한 작은 산줄기가 공자(公字)와 닮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강줄기가 만든 산세를 따라 성을 축조하니 금강이 이 고장을 둘러 천연의 요새가 만들어졌다. 인조 원년에 이괄의 난을 피하여 이곳으로 거동하실 때 성내에 쌍수가 있었다. 임금이 이 나무를 의지하여 북망하여 첨보를 들으니 후에 ‘삼품대부’를 내렸고 성의 이름을 쌍수로 바꾸었다. 북쪽에 공북루가 강안에 서 있어 경개가 빼어나다.

금강은 군산과 강경포를 통하여 상선이 빈번히 오르내리고 물화가 넘쳐나 시장을 번창하게 만들며 인파가 몰리게 한다. 또 백제 문주왕의 고도이다. 당나라 장수 유인귀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하고 당악을 가르침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풍속이 생겨났다.

북쪽에 있는 취리산은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 장수와 동맹을 맺던 곳이다. 동쪽의 효가리(孝家里)는 신라 효자 '향덕'(香德)의 옛 고향이다. 차령은 북쪽의 큰 고개로써 천안, 온양 등 10 개 군을 가른다. 또 쌍령, 각흘령(일명 가문현), 개치, 마치 등 협준한 고갯길이 있다. 월성, 주미, 무성(마곡), 동혈, 유점, 모악 등 여러 산이 벌여 있기는 하나 그리 높지는 않다. 오직 계룡산이 동쪽에 웅장할 뿐으로 태조가 점쳐 정한 신드가 있는 곳이다.

금강 유역은 토지가 비옥하여 농산이 풍요하고 동쪽 60 여리에 태전 부용(부용진)의 정거장은 경부 철도의 유명한 시장이다. 유성, 경천, 이인, 유구 등 마을은 논밭이 비옥하여 오곡 면마가 고루 생산된다.

갑천(유성) 근처는 관개 시설이 편리하여 흉년이 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문산, 구봉산이 우뚝 하고 궁원, 광정, 덕진 등 들판이 모두 기름져 농사에 마땅하다.

부여(남부여, 부주)는 공주 서남 금강 가에 있는 백제의 고도이다. 북에 부소산(영월대, 송월대가 있다)이 있고 그 아래 백마강이 빙 돌아 나가니 백제의 반월성이 활모양으로 펼쳐져 있다. 동쪽 바위 조룡대는 바위 위에는 용과 사자가 맹렬하게 쟁투를 벌인 흔적이 완연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용을 낚던 곳이다. 서쪽 낙화암은 바위 절벽으로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패하자 궁녀들이 바위에 올라 강으로 뛰어들던 곳이다. 자온대, 천정대에는 볼 만한 고적이 있다. 사비하(沙比河)는 근원이 오산으로 남에 있다. 무왕의 연회를 벌이던 대왕포는 강산의 풍경이 아름답고 빼어난 곳으로 소정방, 유인원의 옛 비석이 있어 지나는 여행객을 붙잡는 곳이다. 그 남은 탄현이고 동은 석탄(이촌오의 옛집이 있다)으로 충신열사의 유적이 천고의 감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홍주(일명 해풍, 해흥, 안평, 홍당)는 공주 서북쪽에 있는 큰 도시로 땅이 넓고 평평하여 농산이 넉넉하다. 서남은 바다와 섬이 달아 있어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여 상업이 발달되어 있다. 백월산, 오서산이 동남에 우뚝 솟아 있고 동북의 팔봉산은 세상 사람들이 소금강이라 부르며 그 아래 장군석은 최영 장군이 즐겨 찾던 곳이다. 합덕 저수지는 둘레가 수십 리로 그 관개의 편리함이 여러 군에 미친다.

홍주 오서산의 동남쪽 바다로부터 금강에 이르는 여러 읍 넓은 지역을 내포라 이르니 토지가 풍요롭고 기름지다. 물이 넉넉하고 지대가 낮아 물고기, 소금, 쌀의 생산이 용이하다. 지방 토호의 세가(世家)가 많다. 모시가 많이 생산된다. 비인, 암포, 서천, 한산, 임천, 홍산, 정산 등 7읍은 풍속과 물산이 비슷하다.

오서산의 북쪽은 대흥, 청양인데 대흥은 옛날 백제의 임존성(봉수산이 있다)이다. 백제가 무너지자 뒤에 종실 복신(福信)이 왕자 풍(豊)을 세우고 왕업을 회복하고자 나당 양군과 수년 동안 혈전을 벌이던 곳이다. 위낙 구원군 없는 외로운 고성에서 양국의 기세등등한 군사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침내는 스스로 스러져 꿈을 이루지 못하니 천고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을 뿌리게 하는 곳이다.

임천은 백제의 가림성이니 칠성산이 너른 벌판에 우뚝하고 그 북쪽에 장암진이 있다. 보광사에 원나라 때 위소(危素)가 찬(撰)한 국사비가 아직도 있고, 그 서쪽 한산(일명 마산 또는 鶴州)은 건지산성, 기령, 적현 등으로 자못 험하다. 서천(일명 서림 또는 설림)은 영취산, 부소산, 천방산이 있으며 금강이 여기에 이르러 서해로 빠져드는 곳으로 용당진이 그곳이다. 그 남쪽 박포는 큰 도량을 파서 길산포에 빠지게 되니 관계 범위가 매우 넓다.

은진군(일명 德恩, 또는 市津)은 공주 서남쪽 백 리에 있으니 군의 서쪽 강경포는 금강 연안의 포구 중 가장 양호한 곳이다. 이곳은 선박의 출입과 차마의 왕래가 경성대로처럼 끊이지 않는 일대 도회의 시장을 이루는 곳이다. 그 남은 전라도 예산, 진산과 접하며 군산항과 맞닿아 있어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일, 청 상인의 거리가 날로 번창하여 외국 무역액이 매년 수백 만원에 이른다. 불명산, 소호산, 마야산, 황화산 등이 경계상에 줄지어 솟아있다. 황화산 정상에는 황화대가 있어 푸른 강물을 내려다 보는 경개가 훌륭해 의자왕이 주연을 즐기던 곳이라고 전해온다. 그 서쪽에 어상산이 있다. 논산은 군의 북쪽이 있으니 역시 시장이 크게 번성하다. 증산포에 조암교가 있고 물밑에 암석이 숨어 있다.

은진의 동은 연산군으로 계룡산의 남에 있다. 용천동, 봉립동이 있고 그 동쪽의 황산(黃山)은 백제 명장 계백이 신라 김유신과 싸움을 벌이다 전사한 곳이다. 후백제 견훤이 불사(佛舍)에서 분사한 곳이다. 고려 태조가 천호산이라 개명하고 개태사를 일으켰으므로 왕건의 어진이 아직도 남아 있다. 반야산 관촉사의 둑미륵은 높이가 54 척으로 고려 광종 때 혜명 스님이 세운 것이다.

공주 유성의 서쪽은 진잠이요 동은 회덕이다. 노성과 석성 모두 평야 지대에 자리잡아 농작에 힘을 쓰는 곳이다.

공주 동북은 연기, 전의, 목천, 천안, 직산 등으로 모두 경부선 철도와 닿아 있다. 공주 서북쪽 백 여리 쯤에 가야산이 웅장하게 솟아 있고 이 가야산의 남쪽은 홍주, 결성, 보령군이며 서북쪽에 있는 해미, 당진, 면천 군은 모두 해만(海灣)과 도서(島嶼)가 많다. 덕산에는 가야산 사당이 있다.

온양군(일명 湯井 또는 溫昌)은 광덕산이 남쪽에 우뚝하고 월라산이 군의 서쪽에 솟아 있으며 근방에 온천이 있어 조선 역대 왕들이 행차하여 목욕하던 행궁이 있다. 또 남으로 태화산이 높다랗게 솟아 있다. (대한신지지, 권2)

2) 100년전 경기도(京畿道)

(위치. 境略)

경기도는 전국의 중앙에 있으니 동북쪽은 강원도와 접하고 서북쪽은 황해도와 연하고 남쪽은 충청도와 인하고 서쪽은 바다를 임하니 동서가 320여 리요, 남북이 400여 리이다. 북위 37도로부터 동경 127도에 이른다.

(연혁)

본도는 고조선과 마한의 지역이니 한강 이북은 임둔(臨屯)에 속하였다가 후에 대방군이 되고, 이남은 마한의 땅으로 백제가 아우른 바 되었다가 그후 고구려 남 평양과 신라 북 한산주(漢山州)가 되어 서로 침범하여 빼앗다가 급기야 고구려·백제가 망하니 신라가 한주(漢州)를 설치하였다. 고려가 통합한 후 성종 14년에 개성부에서 맡아 다스리다가 관내도로 바뀌었다. 현종 9년에 개성부를 없애고 정주, 덕수, 강음 3현으로 개성에 속하게 되고 송림, 임진, 면산, 임강, 적성, 파주, 마전 7현으로 장단현에 속하게 하여 상서도성에 직속으로 두고 경기(京畿)라 불렀다.

** 충숙왕 원년에 양광도로 바뀌었고 공양왕 2년에 경기 좌우도를 나누었다. 태종 2년에는 관찰사 각 1인을 두었다. 태종 13년에 사방 원근을 적당히 해아려 연안, 백천, 우봉, 강음, 토산은 황해도에 돌려주고, 이천은 강원도에 딸리게 하고, 충청도 여흥부 안성, 양자, 양성, 음죽 및 강원도 가평 등 현을 쪼개어 나누고 좌우도를 합하여 경기도라 처음 정하였다. 세종 16년에 안협은 강원도에 내어 주니 무릇 4부 34개군이다.

(지세)

본도는 북동은 산악이 많고 서쪽은 바다와 만, 섬들이 많다. 한강, 임진강 2 개의 큰 강이 서쪽으로 흘러바다로 들어가니 운수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또 황도의 소재지인 까닭으로 정치상 문명의 중심이 되어 사방 화물이 부챗살 모이듯 하니 실로 제왕의 웅장한 고을이요 산하 중 장대한 땅이다.

(山嶺)

경기도의 산맥은 세 갈래로 나뉘니, 첫째 갈래는 문천곶 여향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황해도를 지나 송악산, 천마산이 되고, 둘째 갈래는 회양 분수령으로부터 서남쪽으로 평강, 화천, 영평 등지를 지나 양주, 도봉, 삼각산이 되고, 셋째 갈래는 속리산으로부터 서북으로 달려 죽산, 용인, 수원, 광주 등 여러 산을 이룬다.

삼각산(일명 부아악 또는 화산)은 한성 북쪽의 진산(鎭山)이다. 백운, 국망, 인수 3봉이 하늘 가운데 우뚝 솟아 세 갈래 연꽃과 같으므로 삼각이라 하였는데 그 정신 기세가 만화조천(萬火朝天)의 모습이다. 그 높이는 2,634척이다. 예전에 백제 온조왕이 이 산에 올라 도읍하여 살 만한 땅을 바라본 산이 바로 이 산이니 정상에 올라보면 황도(皇都)의 왕성하고도 아름다운 기상과 수백 리 산천의 자연이 그대로 눈 앞에 펼쳐진다.

백운대는 높고도 험한 바위로 이루어져 날고 뛰는 형상으로 푸른 하늘에 닿아 있으며 그윽한 샘과 사나운 여울이 폭포를 이루고 있다. 바위 사이에는 푸른 소나무들이 빽빽한 속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참으로 기이하고 절묘하여 이에 비길 절경이 없다. 태조 이성계가 어렸을 때 이곳에 올라 지은,

引手攀蘿上碧峰 (담쟁이 넝쿨 더위잡아 푸른 봉에 오르니)

--庵高臥白雲中 (작은 암자 하나 백운 중에 누워 있었네)

이란 시가 있어 백운대라 이름하였다. 백운대를 따라 남으로 내려 오면 남경대니, 태조 조에 중 무학에게 덩하여 이곳에 올라 천하를 보았으니 국망봉이라 하였다. 산의 허리에 중흥사의 샘들이 기이하더니 북한산성을 쌓을 때 모두 깎여 평평해졌다. 성의 둘레는 수십 리에 달하며 산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절벽에 임해 있어 수비가 견고하다. 그 안에 별궁과 사원이 있고 역대 보배롭게 간직해야 하는 사고(史庫)를 두었다.

백악은 삼각산, 만경대의 남쪽 가지이니 곧 황성 경복궁의 북쪽 진산이다. 그 형국이 아직 활짝 피어나지 않은 모란과 같아 정기가 빼어나다. 높이는 1,296척이며 그 서쪽은 인왕산이니 바위가 뾰족하고 날카롭다. 그 동쪽엔 타락산이 있다. 목멱산(일명 인경산, 종남산)은 그 남쪽에 있으니 높이는 853척이며 정상은 잠두봉(속칭 갈두, 용두)이니 소나무가 울창하며 그 아래로 사대부의 정자가 많다.

남한산(일명 일장산, 주장산)은 한성 동남쪽 40 리에 있어 그 형국이 삿갓과 닮았다. 백제 온조가 위례성으로부터 이 산 아래에 도읍함으로 이제 산꼭대기에 온조왕의 유적지가 남아 있다. 산성은 신라 15대 경덕왕 때 돌로 쌓았는데 조선 인조 4년에 다시 쌓아 황성의 보장을 담당하게 했다. 이를 위해 수어청을 두었다. 아홉 군데 절을 짓고 승도를 보충하여 통괄사 1명을 두고 매년 초에 각도에서 승정을 선발하여 무예를 익히게 하고 이곳에 머물러 지키게 했다.

천마산은 개성 북쪽에 우뚝한 산으로 많은 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웅장한 기세를 떨치고, 성거산과 오관산이 좌우로 연해 있으니 그 중간에 대홍동천이 있다. 동천에 맑은 샘과 사나운 여울이 솟구쳐 나와 만길 폭포를 드리우고 그 아래는 또 천 길 맑은 못을 이루니 곧 박연폭포이다. 그 위에 관음굴과 구담이 있으니 물 아래 흰 돌이 속까지 환히 트여 밝으며 암벽에는 키 작은 소나무가 군데군데 박혀 있고 수목은 울창하여 여름날에는 녹음이 가득하고 가을철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물 아래 거꾸로 비쳐 참으로 또 다른 세상을 이룬다.

숙종 조에 산성을 쌓으니 대홍산성이다. 밖에서 보면 위태하도록 험준하고 안은 고저가 없이 평坦하나 참으로 자연의 요새지라 아니할 수 없다.

송악은 처음 이름은 부소갑, 곡령(일명 송악, 신고, 청목)이니 곧 개성의 진산이다. 그 남쪽은 만월대로 고려 궁궐의 옛터요 그 북쪽은 자운동으로 자연이 그윽하여 고려 재상들의 별장이 많고 그 서북쪽은 영통동과 화담의 자연이 특별히 아름다워 서경덕이 은거하던 곳이다. 송악의 남은 용수산, 진봉산으로 철쭉이 피는 계절이 유명하여 유득공의 시에,

'進鳳山中紅躡躅 春來猶自發層層'이라 하였다.

마니산은 강화도 남단에 있으니 이 산꼭대기에 단군의 제천당이 있어 높이가 10척이요 위쪽은 모가 나고 아래쪽은 둥글어 참성단이라 하고 그 동북에 전등산이 있다. 단군이 왕자 3인을 데리고 성을 쌓음으로 삼랑성(일명 정족산성)이라고 이름한다.

영평의 백운산과 적성의 감악산과 양주의 불곡산, 아차산, 수락산은 기보(畿輔)의 동쪽에 이어져 있고 지평의 미지산, 양근의 용문산, 마유산과 여주의 환희산과 죽산의 칠장산, 정배산은 동남에 솟았으며, 과천의 관악산, 청계산과 수원의 광교산, 석성산과 용인의 보개산과 안산의 수리산과 양성의 백운산은 강남에 대치하고, 부평의 안남산(계양산)과 통진의 문수산과 인천의 소래산, 남양의 해운산은 한강의 서남쪽 높고도 큰 산이다.

고양의 현달산과 파주의 파평산, 회음령과 교하의 심악산은 서북에 솟아 있고, 장단의 월봉산, 망해산, 풍덕의 덕적산은 임진강 서쪽에 나열해 있으니 덕적산 꼭대기에는 고려 최시중의 사당이 있다.

(하류)

경기도에 2대 하류가 있으니 남은 한강이요 북은 임진강이다. 한강은 옛날 이름으로 열수 또는 한산하(漢山河)니 그 발원지의 하나는 오대산에서 나와 강원도 정선, 영월, 평창 땅과 충북 영춘, 단양, 청풍 땅을 지나 충주 서북에서 달천(일명 단월강)과 합하고 원주 서쪽에서 안창수(安昌水, 일명 섬강)와 합하여 경기도 첫 경계지인 여주에 이르러 황려강이 되고 양근(陽根)군 남에 이르러 대탄, 월계탄이 된다. 대탄은 물속에 바위가 가로로 잘려 있어 물이 많으면 보이지 않고 물이 얕으면 파도가 솟구쳐 왕왕 화물선이 조난을 당하므로 고려 때 바위를 깨뜨려 보다가 공역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하다가 조선 세조 때 다시 한번 시도하였으나 미진하니 그 험함을 염예(鑿預)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양근 서북에서 춘천 소양강과 홍천강 하류 용진강이 만나고 광주 동에서 도미진(일명 두미전)이 되니 강가 석벽에 험한 벼랑길이 마치 실같으므로 세상에서 월계, 두미 양천(兩遷)의 혐난함에 비교한다. 그 하류는 광진, 삼전도(三田渡, 송파강), 두무포 위에 옛날 상당부원군 한명희의 압구정이 있고, 삼전도에 저자도

가 있으나 고려 한 종유의 별장이 있었던 곳이다.

한성 남에 이르러 비로소 한강이라 일컬으니 장강(長江)이 물위에서 떠돌고 푸른 파도 만 이랑이나 된다. 이로부터 사평진(또는 서빙고), 동작진, 노량, 용산이 되니 강촌에 어가(漁家)는 연안에 즐비하고, 뜻폭에 바람을 실은 배가 창파에 분주하다. 공경 귀족의 정자와 누대, 별장은 아래 위에 흩어져 있어 금빛, 푸른빛으로 맑게 비친다.

근래에는 경인, 경부 철도의 교량이 노량을 가로지르고 전차의 궤도가 용산까지 부설하므로 광평 은은한 기차, 전차의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는다. 서쪽으로는 인천 바다를 통하여 화물의 운송을 기선으로 빠르게 나르고, 강의 연안 곳곳에 서양식, 일본식 외국인의 집들이 반 이상을 점유하여 마을의 혼잡하고 시끄럽고 귀찮음이 지난날과 같지 않다.

용산은 곧 용호니 한강의 물줄기가 이 용산 남안으로 따라 흐르고 또 한 갈래가 북안 아래로 날카롭게 빨려 들어와 십 리 너른 호수를 빙 둘계 만든다. 소금창고, 모래 언덕이 서쪽으로 비스듬히 펼쳐지고 그 가운데 연꽃이 빽빽이 피어나 풍경이 절승이라 고려 때 왕과 귀족들, 나그네 시인이 이곳에 와서 머물며 이를 감상하였다. 나라가 안정되어 소금 염창사안이 어느날 갑자기 조수에 파괴되고, 바닷물이 용산에 들이닥치며 팔도 조운이 용산을 중심으로 정박하며, 만리창을 두어 각도의 공세미를 쌓아 두었다.

강이 용산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한 갈래는 남안으로 시흥에 이르러 방학호를 이루고, 또 한 갈래는 서쪽으로 똑바로 흘러들어 마포와 서강이 되고 양천의 동쪽에 이르러 두 갈래가 합쳐져 양화도가 되니 그 동에는 옛날 월산대군의 풍월정이 있고 모래섬과 모래 사장이 널리 펴져 있다. 갈대숲에 목동의 피리와 어부의 노래 소리 들리는 풍경이 아름답다. 또 서북은 공암진이 되니 예전에 형제가 한 배를 타고 건너다가 금덩이를 던졌다는 곳이다.

김포군에 이르러 고도강(孤島江)이 되니 바다가 가까움으로 물은 짜고 흐리다. 교하 서북에 이르러 임진강과 만나고 통진 북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고 서남으로 갑곶진이 되어 강화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갑곶의 남과 마니산의 북에 흥수로 무너져 내린 산맥이 수중에 가로놓여 문지방과 같으므로 손돌항이라 이르니 지난날 각도 세선(稅船)이 이곳에 이르면 조수가 드나드는 시각을 맞추어 지나가되 만약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면 좌초를 면치 못하였다.

임진강은 옛날에는 대수(帶水, 七重河)라 불렀으니 백제 온조왕이 패대이수(湊帶二水)를 건넜다함에 대수가 바로 이 강이다. 그 발원은 함경도 문천, 노령에서 나와 강원도 이천(伊川), 안협과 황해도 토산을 지나 경기도 삭녕군 남에 이르러서 우화진이 되고 연천군 서에 이르러 휴류탄, 장파도가 되고 마전군 남에 이르러 대탄강(양주)과 합류하여 종연이 되고 적성군 북에 이르러 구연강, 이진(배나루)이 되고 장단부 동에 이르러 두기진(일명 장단도)이 되니 양안에 푸른 바위가 개의 어금니 같이 출몰함이 6,70리에 이르러 바라보면 그림과 같다. 고려 태조가 일찍이 놀고 즐기던 곳으로 민간에서 아직까지도 부르는 '장단가'의 땅이다. 또 호로탄은 옛날 당나라 장수 유언제가 신라 칠중성을 공격할 때 병사들을 호로하에서 잃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또 임진 고현(古縣) 동에 이르러 임진도가 되니 그 험함이 마치 성 모양을 이루어 실제로 서쪽 길의 요충지가 된다. 교하군 북에 이르러 낙하도(洛河 나루)가 되고 봉황암을 자나 한강과 합쳐진다.

예성강은 한강, 임진강 2대 강 외의 작은 강이다. 그 발원지는 황해도 수안군으로 곡산, 금천을 지나 개성부 서쪽에 이르러 이포, 전포를 지나 동쪽으로 흘러 이 강이 되니 고려 때 중국에서 오는 사신이 내왕 할 때 이 강에서 배를 띄움으로 예성이라 이름 붙여졌다. 전포(錢浦)는 당 선종이 상선을 따라 건너올 때 조수가 빠져 온통 진흙탕 길이 되니 그 진흙탕 길에 돈을 깔고 땅으로 올라왔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그 흐름이 또 벽란도가 되어 바다에 들어간다.

(해만과 도서)

제물포는 북위 38도 28분과 동경 126도 37분에 위치한 강화만 안쪽 한강 하구 동북 언덕에 있으니 한성과 그 거리가 80리이다. 개국 492년에 일본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제일 먼저 개항한 곳인데 땅이 인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천항이라 이름 붙였다. 앞에는 월미도와 소월미도, 중도 등 작은 섬들이 둘러싸고 그 안은 작은 항만을 이루고 그 밖은 외항이나 내항은 협소하여 2천 톤 이상 선박 출입을 금하고 각국의 군함과 큰 선박은 모두 외항에 정박하게 한다. 경인 철도를 부설한 후 1시간 여에 경성을 통행하니 운수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수륙의 화물이 부챗살처럼 모여 들어 상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각국의 거류지는 일·청·양국인의 집들이 아주 많다.

남양만은 남양 서쪽 바닷가에 있으니 마산포라 불리기도 한다. 인천항과 같이 해수를 안고 있는데 만의 안쪽 수심이 깊어 군함의 정박이 가능하다.

화량만은 마산포 남에 있으니 옛 첨사가 잔을 두었던 곳으로 바위 맥이 바닷속으로 이어져 높이 솟고

굽곡이 져 선박의 왕래가 불편하다.

옹포는 조수 간만이 심하여 다만 배를 묶어 정박해 둘 뿐이다.

내포는 경기, 충청 양도 사이에 육지쪽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아주 큰 만이다. 그 남은 아산, 면천의 땅이니 만의 안은 심히 넓어 군함이 왕래는 하되 정박은 어렵다.

강화도는 남북이 백 여리요 동서가 50리이니 서남은 바다를 면하고 동북은 강이 두르고 있는 한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 북은 풍덕, 승천포를 사이하여 강안(江岸)이 모두 절벽으로 절벽 아래는 진흙 뺨이라 배델 데가 없고 오직 승선포 대안과 갑곶진 두 곳에만 간신히 뱃길이 통하니 이 두 곳만 지키면 그야말로 하늘이 만든 요해지(要害地)이다. 이는 고려 고종이 몽고병을 피해 강화로 이도했을 때 감히 침범치 못한 걸 보면 자명하다. 그 땅이 요해지이기에 막영을 설치하고 방어를 엄히 하였는데 인조 정축년 방어가 허술해졌을 때 청병(淸兵)에게 함락당하고 말았다. 그때 청장이 통진 문수산에 올라 온 섬의 지형을 감지했기에 수비에 실패하게 되니 숙종 조에 문수산성을 쌓게 하고 영조 무렵에 북쪽 연미정으로부터 남쪽 손돌항에 이르기까지 강성(江城)을 축성하고 강가 진흙 뺀을 토석으로 메워 강안을 견고하게 하니 인다가 통행하고 선박의 왕래가 편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고종 3년에 프랑스 함대의 침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교동도는 강화도 서방에 있으니 길이는 30 리요 폭은 10 리이다. 서북으로 비끼어 황해도 백천, 연안, 용매 여러 섬과 마주 보고 있다. 섬 전체가 모두 바위로 되어 있고 중앙에 화개산이 있으니 이전에 통어영을 설치하고 경기, 황해, 평안 3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를 방비하였다.

영종도는 길이 20 리요 폭이 10 리이니 강화도 동남에 있어 첨사의 잔영이 있던 곳이다. 이제 고종 13년에 일본 전함과 대포를 쏘던 곳이다. 섬 안에 백운산, 석화산이 뾰족하게 솟아 있고 산기슭에 밭과 들이 약간 있다.

연평열도는 대연평, 소연평, 경배, 장도, 만항도 등을 아우르는 말이니 대개 교동 서해 중에 흩어져 있고 대부분, 소부도는 화량만 10 리에 있다. 전도가 비옥하여 벼곡식이 넉넉하고 물고기, 소금이 많이 생산된다. 그 바닷속에 바위 줄기가 굽곡져 있어 해수가 심히 얕다. 병자년 강화가 함락되었을 때 호병이 추격하자 섬 사람들은 바위 줄기를 타고 달아났는데 호병은 그걸 모르고 뒤를 따르다가 모두 물속에 함몰되었다.

대부도 서쪽 30 리에 영흥도(연여 또는 제비섬)가 있으니 옛날 고려말에 종실 익령군 기(琦)가 나라의 위급을 알고 성을 고치고 왕실을 버리고 이곳으로 숨어들었는데 그 자손이 아직까지 생존하여 말을 기르며 산다. 익령군이 기거하던 집 3간을 봉쇄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연평 서편에 벌이어 있는 여러 섬들은 수심도, 독협도, 선협도, 풍도, 황자도 등이니 푸른 덩굴들이 창창 번성하여 소와 말의 목장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줄여 말하면 해중에 암초가 무수하여 선박의 내왕이 극히 어렵다는 점이다.

(도회.승지)

한성은 본래 백제의 고도로 고구려 장수왕이 취하여 남평양이라 하고, 신라 진평왕이 취하여는 신주(新州)라 하다가 또 북한주, 한산주를 두었고, 경덕왕이 한양군이라 고쳤다. 고려 초에 양주라 하였고 성종이 좌신책군이라 하고, 문종이 승위 남경이라 하고, 충렬왕이 한성부라고 고쳐 불렀다.

조선조 태조가 북은 백악과 삼각산을 뒤로 하고, 남은 목멱산(남산)을 마주하고, 동은 타락산과, 서는 인왕 여러 봉이 둘러싸고 보호하여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는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다. 한강이 그 남을 흐르니 산하의 형세가 실로 전국에서 가장 중요로운 곳이다.

태조 5년에 8도 백성을 뽑아 경성을 석축하니 그 둘레가 9,975 보(步)요, 높이가 4백 척 2촌, 문을 세움에 남은 숭례문, 북은 숙정문, 동은 흥인문, 서는 돈의문이고 동북은 해화, 서북은 창의, 동남은 광희, 서남은 소의문이다. 백악의 남에 경복궁을 세우니(태조3년) 궁성의 4문은 남은 광화, 북은 신무, 동은 건춘, 서는 영추문이다.

정전은 근정전이요, 기타 사정, 연생, 경성(후에 강령전으로 고침), 교테, 함원 등 제전과 청언, 융문, 융무, 경희 등 여러 누대가 있으며, 경복궁의 동에 창덕, 창경 2궁이 있으니 맑은 샘과 흰 바위들과 푸르른 소나무 삼나무 숲은 옥류천과 어울려 궁궐 정원에서 제일이다. 경복궁 서남쪽에 경운궁이 있으니 옛날 월산대군의 집이다. 선조 계사년에 용만으로 순행했을 때 궁궐이 불타 없어졌기에 잠시 머무르던 궁으로 이제 광무 원년에 거처를 옮기니 정문은 대한문이요 포덕, 영성, 평장 등 문이 있다.

성안을 5서(署) 49방(坊)으로 나누니

중서는 징청, 서린, 수진, 견평, 관인, 경행, 정선, 장통 등 8방이요

동서는 중신, 연화, 서운, 덕성, 승교, 연희, 광덕, 천달, 흥성, 창선, 달덕, 인창 등 12방이요

남서는 광통, 회현, 명례, 대평, 훈도, 성명, 낙선, 정심, 명철, 성신, 예성 등 11방이요

서서는 인달, 적선, 여경, 황화, 양생, 신화, 반송, 반석 등 8방이요

북서는 광화, 양덕, 가회, 안국, 관광, 진장, 명통, 준수, 순화, 의통 등이다.

가구(戶)는 4만2천 6백30호요

인구(口)는 19만 6천 4백 여명이다.

태묘는 창덕궁 동련화 방(坊)에 있고 영녕전은 태묘의 북에 있으며 태사태직(太社太稷)은 경복궁 서쪽 인달 방에 있고, 원구(원형제단)는 경운궁 동남에 있고 문묘는 창경궁 동에 있으며 각 관아와 공관은 광화문 앞에 좌우로 벌려 있으니 육조 거리라고 이른다. 육의전과 각종 상점은 종루 거리를 중심 삼아 좌우에 벌려 있으니 동 흥인문까지, 서 돈의문까지, 남 숭례문까지는 모두 여섯 군데로 통하여 왕래가 잦은 큰 거리가 되니 상점이 즐비하고 수많은 물품이 구름처럼 쌓이어 동남 양대문 안에는 매일 아침 시장을 열어 일용 잡물을 판매한다.

최근에는 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고 종로로부터 동대문 밖 청량리까지, 서문 밖 서강까지, 남문 밖 용산까지 전기 철도를 부설하여 오고가는 전차가 밤낮으로 인마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상점의 앞머리에 전등과 장명등을 시설하여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북악의 삼청동은 성제정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와 맑고 차가움이 성안에서 제일이다. 그 동쪽 백록동은 삼나무가 올창한데 취운정이 있고 바위들 사이에서 샘물이 솟아 나오고, 서는 백운동이요 그 서쪽의 인왕산에 필운대가 있어 샘과 바위가 절묘하게 어울어져 있다. 문충공 오성 이항복의 반선처가 그곳에 있다. 청학동은 목멱산 아래에 있으니 노인정, 홍업정 등 높은 벼슬아치의 벌장이 많고 노인정 서쪽은 구 남별영이니 이제 장충단을 지었고 그 아래는 국초 묵사(墨寺)의 유하지요 그 서쪽 언덕은 왜장대니 이제 일본인의 공원지로 빌려 주었다. 남문 밖 연지는 막혀 통하지 않아 몇 이랑 모난 연못만 겨우 남아 있고 서문 밖 연지는 호반에 반송이 있었으므로 반송지라 부르니 고려왕의 피우처(避雨處)요, 동문 안 연지는 메워져 없어져 버렸다.

개천(開川)의 근원은 인왕산으로 동으로 자수궁과 옥류동 누각동 등 여러 다리의 물을 모아 남으로 금청교, 종침교, 승전색교의 물을 지나 송사교에 이르러 좌로 북어교 물을 지나 굽어져 동류하고 삼청동 물과 합류하여 종학교에서 남류하다가 혜정교와 운종가 남교(속침 모교)를 지나 대광통교와 곡교, 장통교와 통운교(속침 칠물교) 물과 합해지고 수표교, 하량교, 영풍교, 태평교를 지나 한강으로 들어간다.

개성(송도, 송경)은 신라 때는 송악군이요 고구려 때는 부소갑, 백제에서는 동비흘이니 고려 태조 2년에 서울로 정해진 후 4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고도이다. 경성과의 거리가 160 리요, 임진강 서북 40 리에 있다. 그 북 송악이 천마산으로부터 맥을 받아 웅장하고 깊고 그윽하며 성과 요새로 에워 싸임이 수십 리에 달한다. 송악의 아래는 만월대이니 소위 중제전이라 하는 곳이다.

고려 궁전의 유적이 500여 년 계단 초석과 다듬어진 돌들이 옛날 같이 남아 있는데 근래에 들어 많이 훼손되었고 특히 철도 건설 용도로 문지도리가 마구 깨뜨려져 다만 1단의 돈대뿐이다. 그 북에 다래정이 있고 대 뒤에 있는 자하동은 샘물이 그윽하고 꽃나무가 번창 화려하여 아침 전 풍경이 지금까지 비슷하니 채홍철 기영회 중화당의 옛터이다. 자하곡이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 문현 최충의 구재당고 여기에 있다.

선죽교는 성 동쪽에 있으니 충신 는 정몽주의 순절한 곳으로 혈흔이 얼룩얼룩 다릿돌 위에 있어 풍우에 씻기지 않고 남아 있다. 또 탁타교(야교)는 고려 태조가 거란의 공물로 낙타 50 팔을 이 다리에 매어 두었던 곳이다. 그 동남에 남산은 최충현의 옛 집터와 공민왕의 화원 팔각정을 세웠던 옛 터가 완연하고 성동남에 용수, 진봉 양산이 있으니 진봉산은 진달래가 아주 유명하다. 그 동쪽은 취적봉이요 봉우리 아래는 옛날 천수원이니 귀한 손님을 맞이하고 배웅하던 곳이다. 예왕 때에 화가 이녕의 '천수사도'는 송나라까지 유명하다. 성 동북에 산대(山臺)가 있으니 의왕이 재난을 만난 곳이다. 이 대의 서북에는 영통동과 귀법사가 있고 그 북에 현화령을 넘으면 곧 대홍동천이다. 성안에 목청전이 있으니 조선 태조의 옛집으로 태조 영정을 봉안하였다.

양온동에는 태사 강감찬, 목은 이색의 구택 터와 두문동이 있다. 그 서문 밖 만수산 기슭에는 고려 7능이 있고 한 고개를 넘으면 여기가 청석관이니 십 리 깊은 계곡이 굴곡지고 구불구불 돌아간다. 계곡 양안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며 일대 장계(長溪)가 쏟아져 흘러간다. 한 사람이 고개를 지키면 만 명을 막아낼 수 있는 요충지라 지난 날 청 태조가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이곳에 이르러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동북쪽 백치(白峙)로 진로를 바꾼 곳이다.

광주(한산주)는 백제 온조왕의 옛 도읍지이다. 경성 동남쪽 40 리이니 인조 3년 병인에 남한산성을 축조하고 고을을 옮겨 기보보장(畿輔保障, 서울 가까운 곳을 보호하고 뒷받침함)하였다. 또 승병을 두어 완급을 준비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를 폐지하였다. 서쪽 무락산 바위 위에 한 그루 낙락장송이 당간 같

이 서 있으므로 3품 관직을 주었다.

수원은 경성 동남으로 거리가 90 리이니 삼남 통로의 인후부(咽喉部)이다. 북은 광교산을 지고 있고 동남은 광주, 용인, 안성, 진위 등 여러 산이 멀리 연해 있고 서쪽은 남양만을 임해 있으니 이곳 역시 형승이 빼어난 도회지이다. 정조 13년에 화산(華山)에 융능을 옮겨 유수부를 두어 다스리게 했으며 성가퀴를 세우니 둘레가 10 여 리요, 용두각, 소라각 등 유명한 점자가 성위에 벌여 있고 망루의 견고하고 치밀하며 장엄하고 화려함이 각 도의 으뜸이다. 성내에 행궁과 화녕전이 있어 정조의 어진을 봉안했고, 건능은 융능 서쪽 언덕에 있다. 남문 밖으로 융능에서 북문 밖 저지현(遲遲臺)에 이르기까지 수십 리에 어로를 수축하고 소나무, 버드나무를 길 옆에 줄지어 심어 여름날 녹음이 가득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지나는 사람들이 더위를 모른다. 또 서둔지가 있어 연꽃, 마름, 가시연 등으로 경치가 빼어나며 살지고 연한 영어가 이곳에서 나 서둔영어라 흠여 유명하다. 언덕 위에 교구정은 유수가 서로 교체하던 곳인데 지금은 경부 철도 정거장이 연못가에 세워졌다. 유수 감영을 폐한 뒤 관찰부 관할이 되었다.

강화도(강도, 심부)는 경성 서해 중에 있고 거리는 120 리이다. 동북은 강물이 빙둘러 에워싸고 서남은 나다에 임해 있다. 마니산이 북쪽에 우뚝 솟아 있고 그 아래에 관청이 있으니 석벽이 빙 둘렸고 성안에 인가가 즐비하다. 이곳에 행궁과 병영, 무기고를 두었으니 오래 전부터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이다.

고려 고종이 몽고병에 피난하여 이곳에 왔기에 강도(江都)라 불렸으며 그 궁터가 아직도 남아 있다. 고종과 희종의 능이 있고 남쪽에 있는 전등산은 단군의 삼량성(단군이 세 아들에게 명하여 쌓았다는 경기도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에 있는 옛 성)이니 그 산사에 충렬왕비 정화궁주가 대장경을 송나라에서 구해다가 이곳에 보관하였고 인조 정묘에 오랑캐 난을 아곳에서 피하여 강도(江都)로 이궁하니 승격이 되어 유수 감영을 두었다.

그 동남 손돌목은 가장 험한 물길로 암초가 많고 밀물 썰물이 거세 선박의 내왕이 극히 위험하다. 강 안쪽으로 포대를 설치하였는데 고종 8년 미 군함을 격파했던 곳이다. 손돌목, 덕진진은 충장공 어재연 장군이 순사한 곳이기도 하다. 동쪽 문수산성은 프랑스 군함이 대패한 곳이다. 본 섬의 형승이 실로 서해의 요충지이며 경성의 목구멍과 같기 때문에 자주 격전지가 되었다. 동남 영종도는 지난날 일본 군함과 포격을 주고받던 곳이다.

인천은 옛날 미추홀이니 비류왕의 고도이다. 동북은 소래산이 빙 둘려 솟아있고 산세가 웅줄하다. 서남은 인천만을 임해 있고 부 남쪽엔 문학산(일명 남산)이 있으니 산꼭대기에 비류왕의 남은 터가 있어서 세상에서 예분성(비류왕이 성을 내고 죽었기에)이라 부른다. 그 아래 바닷가에 미추왕능이 있고 제물포항은 월미도와 갑도가 둥그렇게 싸 안아 군함과 상선이 항상 폭주하고 무역이 번성하며 시가에는 각국 상점이 즐비하다. 세관과 관청, 경찰서와 각국 영사관 등이 산재해 있으며 최근에는 월미도에 부교를 가설, 왕래가 아주 편하다. 섬 안에 등대가 기상대가 세워져 있다.

여주(황려, 영의, 여흥으로도 불림)는 경성 동남 190 리에 있다. 관아가 여강 남안에 있어 경성과의 수로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상업이 아주 번성하여 충청도와 강원도 양도의 요충 지점이다. 시가가 넉넉하고 풍요롭다. 강 기슭 청심루와 강한사, 강북에 신륵사가 있다. 신륵사(일명 벽사)는 명승 나옹화상이 머물던 곳이다. 강월현의 풍경이 아주 멋지고 또 남쪽 언덕에 마암이 있다. 전하는 이야기로 황려마가 출현했다 하는데 목은 이색의 사례,

提水攻高馬巖石

浮天勢大龍門山

이라 하던 곳이다. 서북 성산에 세종 영릉이 있다.

장단(장임, 임단)은 옛날 임둔의 땅이다. 경성 서북 140 리 있다. 백학산(백악)을 등지고 임진강을 바라보고 있으니 고려 공민왕이 천도할 요량으로 신궁을 만들고 새서울이라고 했다. 그 북쪽 보봉산에 화장사가 있으니 옛날 명승 지공(指空)이 이 절에 머물러 총림을 크게 일으켜 패엽경(貝葉經)과 전단향(旃檀香, 일명 牛頭香)을 남겼다. 그 동남은 고려로부터 조선조까지 능침과 공경대부의 총묘가 많음으로 사람들이 북망산이라 부른다. 그 서쪽 경계에 오관산은 오석봉이 빼어나며 높고도 둥글며 관 모양과 흡사하다. 그 아래 영통동이 있어 그 형승이 기이하고 절묘하여 호자 문충이 복계곡(일명 오관산곡)을 부르던 곳이다. 보현원은 도원역의 물이 빙빙 돌아내리 깊은 못을 이룬 곳이니 의왕 때 정중부가 문신을 던져 넣고 조정침(朝廷沈)이라 이른 곳이다.

고량포는 장단 동북 40 리에 있으며 임진강 가에 있는 제일의 시장이다. 파주, 연천, 적성, 마전, 양주 등 여러 군의 화물이 이곳에 모였다가 나가기 때문에 사람과 물산이 넉넉하고 풍성하다. 상선이 폭주하여 큰 시장을 이룬다. 또한 적벽의 경치가 유명하다.

풍덕(정주, 해풍, 덕수)은 개성 동남 15 리에 있고 북은 부소산, 남은 백마산, 동은 임진강이 에워싸며 흘러 조강(祖江)이 되고 서는 개성 빽란도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고려 고종 37년에 궁궐을 백마산 남에 세우고 우소(右蘇)라 부르니 곧 임해궁, 수강궁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곳이 승천포인데 강화의 북안(北岸)과 상대하여 배들이 왕래하는 곳이다.

부소산에 경천사가 있으니 절 안에 있는 13층의 옥탑은 인물을 조각하여 제작한 그 정교함이 국내에 짙어 없다. 세상에 원 승상 탈탈이 원찰을 짓고 이름난 장인을 모집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 그 절 동쪽에 침향석이 생산되고 동쪽 30리에 덕적산이 있으니 그 아래는 옛날 덕수현(덕물)이다.

경성의 동으로 흥인문 밖은 곧 양주 땅으로 동은 포천이고 포천의 동은 가평, 북은 영평인데 이를 동교(東郊)라 부른다. 서로 돈의문을 나서서 사현부터는 고양 땅으로 고양의 서는 교하, 북은 파주, 파주의 동남은 적성이니 이를 서교(西郊)라 부른다. 이 모두 임진 이남과 한강 이북에 있는 기전(畿甸)의 땅이다.

양주(창화, 견주)는 낮은 산들이 율릉불릉 중첩하여 금대, 묘적, 아차, 왕방, 천마, 소요, 소라, 덕암, 주업, 아미, 수락 등 여러 산이 동북으로 연달아 있고 동남으로 천장, 문수, 불암, 천보, 도봉 등 여러 산이 우뚝 솟아 있다. 그 동남은 한강과 임해 있고 북은 대탄강이 흐르니 황성을 병풍이나 장지처럼 가리고 있다.

검암산은 조종 능침의 땅으로 10능을 봉하였고 주업산은 세조 광릉을 봉했으며 회암(천보산), 망월(도봉산), 수락사는 저명한 사찰로 회암사는 인도 승려 지공이 이르기를 산수의 형세가 천축 아란타와 완연하다 함으로 고려 명승 나옹화상이 이곳에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 그 크고도 으리으리함이 전국 제일(무려 162칸)로 고려 왕자 원경의 필적이 있으니 金使(?)가 보고 이르기를 소순(蔬筍)의 기(氣)가 있다고 하였다.

포천(청화, 견성) 재벽동은 조선 태조가 미천하던 때 농장이 있던 곳이고 송우장은 북로를 통한 시장으로 화물이 모여드는 곳이다.

가평(병평)은 검봉산과 화학산이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고 신연강이 동에서 흘러 안판단이 되고 옛날 조종 폐현(심천)이 있으며

영평은 백운산이 빼어나 한 모서리가 마치 관을 쓰고 있는 듯하며 그 중 백운동은 골짜기가 넓어 주루평(注婁坪)이 있고 그 위에 우뚝 응봉이 솟아 있다. 군 동쪽에 풍류암과 서쪽에 창옥병(蒼玉屏)은 경개가 절묘하다. 산벼랑이 깎아지른 듯하여 둘레가 수백 척이고 바위빛이 비취빛이어서 창옥이라 이름 불렸다. 백운 시내가 그 아래를 지나고 남쪽으로 청학, 백학 양대가 있으며 백운천의 하류에 화적연이 있어 바위가 물속에서 쑥 내밀어 수백 척 솟아 올라 높고도 험하여 벽가리를 쌓아 놓은 듯하다. 그 아래는 물이 용솟음치며 깊은 소를 만든다. 그 서쪽에 백로주가 있으니 수중에 석봉이 우뚝하다. 대체로 영평은 산수가 빼어난 고장으로 경기도 오른쪽에 유명하다.

고양(고봉)은 장령, 고령, 회음령 등 여러 산이 동북으로 빙 둘러 있다. 동쪽 벽제역은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패전(그 아우 여매가 죽은)한 곳으로 지금도 밭 가운데서 칼, 창검, 탄환이 발견된다. 그 남 20리 강연덕에 옛 행주(왕봉, 덕양)산성이 있으니 예전 계사년에 도원수 권율이 왜병과 죽기살기로 싸워 크게 이긴 곳으로 그 아래 최립이 글을 지은 대첩비가 있다. 그 서북은 견달산이니 고려 공민왕릉과 시중 최영의 묘가 있다. 묘 위에 풀이 나지 않으므로 '적총'(赤塚)이라 한다. 그 동 효경현에는 국조 5릉(경릉, 창릉, 효릉, 희릉, 예릉)을 봉하였다.

파주(파평, 영평, 곡성, 서원)은 장산을 서쪽에 두고 임진강을 끼고 있으며 북에 우포가 있다. 강 언덕에 옛 궁궐터가 완연하다. 이곳은 정사 우계 성흔의 은거지이다. 산수가 맑고도 빼어나며 임진 동쪽 언덕에는 이이의 별장 화석정이 있고 남쪽 보시동에는 공릉을 봉하였다.

교하(굴화, 선성)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으로 금단, 심악, 월룡산이 둥그렇게 솟아 있다. 낙하도, 임진강의 하류이니 군 서쪽에 이르러 금척진이 되고 적성(옛날 칠중성)은 감악산이 그 동쪽에 마주하여 바위 봉우리가 큰 이빨 같이 솟아 있다. 산꼭대기는 2,300여장(丈)으로 3장의 돌단 위에 옛 비석이 오래되어 글씨가 긁하고 깎여 떨어져 나갔다. 그 옆에는 당나라 장수 설인귀의 사당이 있고 그 서쪽 봉우리 아래 운계폭포가 있다. 용두산은 사면석벽이 구연강에 높이 솟아 있다.

임진강 위쪽 연안은 장단과 마전이고 남쪽은 연천, 삭녕으로 마전은 암단이라고도 한다. 미두산, 염창산이 동서로 이어 있고 정파도가 그 남쪽으로 흐른다. 숭의전을 세우고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원종 4왕을 제사하며 고려 공신 16인을 배향하였다.

연천(장주, 마연, 장포)은 마전 동에 있다. 보개, 오봉, 견불산이 우뚝 솟아 푸르고 서쪽으로 임진강이 흐르니 휴류탄, 정파도의 풍경이 빼어나다. 동남은 마하천과 대탄강이 있으니 이곳 역시 산수가 빼어난 고장이다.

삭녕(삭읍, 승령)은 연천의 서쪽, 장단의 북에 있다. 강원도 안협과 황해도 토산의 사이에 쑥 들어온 땅이다. 동북 말탄산(효성)은 철원, 평강의 경계와 연접하고 봉이, 영원, 견질, 수청산 등이 둥그렇게 이어 있으며 마룡연, 손청탄, 우화진이 동남으로 흐르니 형승이 훌륭하다.

한강의 동은 양근, 지평이 용문산 동서에 나뉘어 있다. 양근은 여강과 신연강이 용진에서 합류하고 홍천강이 북쪽 40리에 있으니 역시 용진의 상류이다. 백은탄, 병탄, 악탄, 대탄이 있어 물결과 여울이 위험한 곳이다. 월계의 벼랑에 난 돌길은 극히 위험한 길이다.

지평은 동북으로 강원도 원주, 홍천을 이웃하며 서쪽 백운봉 아래 장생동이 있으니 그 가운데가 아주 넓

다. 여강 서쪽은 이천, 음죽이다.

이천은 남천(南川)이라고도 한다. 원적, 설봉, 양각, 대덕 등 여러 산들이 고리처럼 둘러 있다. 복하천이 북으로 흐른다.

음죽은 설성, 영악, 백족산이 벌여 있으며 천민천이 남류하고 그 남에 만불지(萬佛池)와 추태(秋澤)이 있어 순채를 생산한다. 남은 충주와 경계를 이룬다.

한강의 이남은 과천, 시흥, 양천, 김포, 통진 다섯 군이 연강 서남 언덕에 있다. 부평, 안산, 남양은 서남 연해에 있고 진위, 양성, 안성, 용인, 양지, 죽산 여섯 군은 한강 동남에 있다. 과천은 관악, 청계의 경치가 좋으며 그 정상에 오래된 절이 있다.

시흥은 옛날 금주(또는 금양, 곡양)이니 동쪽의 호암산에 궁교(弓橋)와 사자암, 도화동이 있으며 금지산, 삼성산이 동북에 벌여 있다.

영등포는 경부 철도 정거장의 시작점으로 외국인의 가옥이 즐비하여 거칠고 황량하던 포구가 혼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이 되었다.

양천은 증산과 선유봉이 철관포에 솟아 있으며 김포는 고도강이 북류하고 굴포가 있다.

이 네 군은 모두 넓은 논에 물이 그득하며 풀이 무성한 넓은 벌은 거칠지만 서울의 부호들의 별장이 산재해 있다.

통진은 조강의 연안이다. 문수산성이 있어 강화의 보호처가 되고 그 동쪽 동성산 아래에는 당산 고현의 터가 있다. 또 그 남 수안산 아래에는 수성 고현의 터가 있다. 전류참(顛流站)은 동쪽 경계에 있으나 인가 없는 들판이 편편하고 넓으며 여염집이 물고기 비늘처럼 늘어서 있다.

부평(부토, 장제, 수주)은 옛날 안남, 계양의 땅으로 북에 고양산이 있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 고려 이 구보가 망해지(望海志)를 지었다. 황어가 풍성하게 생산된다.

남양은 옛날 당성(영제, 익포)이며 익주라고도 한다. 해변에 석경(石鏡)이 생산되며

안산(연성)은 옛날 장항구(노루목)이니 수리산이 우뚝하고 여월음도(여암도?)는 조문의 중요한 길이요 초지량에는 병영이 남아 있다.

진위(부산연달, 금산송촌)는 천덕산이 양성과 경계를 이루고 양성(적성)은 소사천이 남류하며 서쪽 백여리에 괴태길곶이 있으니 수로가 똑바로 나 있다.

안성(백성)은 경성과 거리가 150리이다. 남에 서운산이 있으니 그 남서봉에 기우단 세 우물이 있으며 그 아래 목동지는 둘레가 수(數) 리에 걸쳐 있다. 그 동에 연화지, 곡지가 있다. 안성장은 삼남 대로의 요충지로 물화가 구름처럼 모여 들어 경성으로 통하니 가개와 점포가 아주 번창하다.

죽산(개산, 음평, 연창, 죽주)은 안성 동쪽 20리에 있으니 남쪽은 충북 진천과 경계를 이룬다. 칠현산이 있고 그 가운데 칠장사는 고려 장사처요 그 북 정배산은 한 봉우리가 불쑥 솟아 바위를 이고 넓은 들판에 특별한 모양으로 서 있어서 죄지어 죽은 자의 매장지로 삼았기 때문에 조피산(朝避山)이라고도 불렸다. 수정산, 쌍령산, 구봉산은 그 서북에 둑글게 솟아 있어 안성, 양지의 경계가 되며, 죽주 고성은 고려 때 송문주가 몽고병을 포격하여 대파한 곳이다.

양지(추계, 양량)는 광주 남서쪽 10리에 있으니 정수산, 성륜산이 있고

용인(구성, 거려)은 양지 서쪽에 있어 보개산, 부아산, 석성산, 선장산이 동남쪽에 막아 서고 금령천이 그 아래 흐르며 금령 시장은 호령(湖嶺, 호남과 영남)의 큰 길이다. 죽산, 백암 시장과 거리가 가까워 물화가 많이 모여들어 자못 번창한 정황이다. 처인(處仁) 고성은 고려 때 중 김윤후가 몽고와 크게 일전을 벌인 곳으로 적장 발대를 화살로 쏘아 죽인 곳이다.

3) 100년전 강원도

(위치경계)

강원도는 우리 나라 동쪽 해안을 차지하고 있으니 북은 함경남도에 닿아 있고, 서는 황해도, 경기도 양도를 이웃하고, 남은 충청북도,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동쪽은 너른 바다다. 동서가 200여 리 넓은 곳은 300리, 남북이 약 500리에서 700리에 이른다. 북위 36도 40분에서 40도에 이르고 동경 126도 50분에서 129도 20분에 이른다.

(자세)

지세는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아서 한 마리 물고기 형상이고 전체에 산악이 중첩하고 평야가 적으며 토

지가 메마르고 돌이 많다. 주민의 삶이 애써 부지런히 일해야 하며 검소하다.

(연혁)

옛 예맥(瀝貊)의 땅이니 후에 낙랑군에 속하였다가 신라, 고구려에 병합되었다. 고려 성종 14년에 연해명 주도라 고치고 춘추도는 동주도라 부르고 원종 4년에 강릉, 교주 2도로 개칭하였다. 충숙왕 원년에 교주 도를 회양도(淮陽道)라 개칭하였다. 신무 14년에 강릉도를 비로소 삭방도와 가르고 교주도에 합쳐 충주 소관 평창으로 옮겼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조 4년에 강원도(江原道)라 부르기 시작했다. 정종 원년에 영춘을 충주의 영월과 바꾸었고 세종 때 철원, 안협을 본도에 환속했다. 효종 때 원양도(原襄道)라 바꾸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옛 이름을 되찾으니 26개 군에 이른다.

(산령)

금강산은 분수령의 한 가지가 7.800리를 남으로 길게 구불구불 뻗어 나가다가 회양군 130리에 이르러 창해에 깎아지른 듯 높이 솟아 있다. 뾰족뾰족한 바윗돌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어 흰 빛이 아득하며 바윗돌에는 무성한 이끼가 구름과 이내에 낮게 가라앉아 눈빛과 같으므로 개골산(皆骨山)이라 부르기도 하고 풍악산(楓嶽山)이라고도 한다. 일만이천 봉우리 중 비로봉이 제일 높아 천 길 낭떨어지에 쇠줄을 늘어뜨려 놓았는데 이를 잡고 꼭대기에 이르면 천만 봉우리들이 모두 일개 훑덩이 둘무더기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 동쪽 너른 바다는 하늘에 닳아 그 끝을 볼 수 없다.

만경대, 백운대, 천일강과 지장봉, 돈도봉, 망고대, 혈망봉, 일출봉, 월출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서로 가장 빼어난 양 서 있다. 만폭동은 비로봉 아래 침침이 겹쳐진 깊은 골짜기 물이 날아서 똑바로 떨어지는 굉장한 폭포와 맑고도 넓은 물웅덩이를 이루니 엄청난 포효와 세찬 물줄기는 격렬한 천둥 벼락이 마구 쏟아져 내리니 천하에 놀라운 광경이다. 벽하답은 눈에 띄게 곱고 아름다우며 화룡담은 웅장하여 어마어마하다. 이 이외도 무수한 연담이 만폭동 안에 들어 있다. 동구(洞口)에 거대한 바위가 말안장 같아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다. 바윗돌에 봉래 양사연이 쓴 ,봉래풍악원화동천(蓬萊楓嶽元化洞天) 여덟 자가 새겨져 있는데 자획이 마치 용과 사자가 맞잡고 맹렬히 싸우는 듯하여 산악과 더불어 웅장하며 그 왼쪽은 금강대와 원통골, 향로봉이 있으니 항내나는 등나무 덩굴이 서로 꿰매듯 덮이고 얹혀 있다. 기암과 괴석과 아름다운 풀꽃 기이한 식물이 계곡을 둘러 싸 휘감겨 있다.

마하연, 보덕굴은 만폭동의 왼쪽에 있으니 돌비탈 돌층계가 얹혀서 돌아 올라간다. 굴 안에 작은 암자를 매달아 놓았는데 마치 현경(懸磬)과 같다. 앞 기둥은 바위 밖으로 빠져 나와 의지한 데가 없으므로 수십 척 구리 기둥으로 아래를 잇고 또 양쪽에서 쇠줄로 바위에 못 박아 두었다. 그 위로 오르면 온몸이 아리저리 흔들리며 반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동쪽으로는 중향성을 지고 그 앞에 혈망봉, 담무갈 여러 봉우리들이 두른듯 펼쳐지고 둘에는 삼나무와 노송이 울창하고 주목이 많다. 그 동남은 영원동 12봉이 깊이 둘려 있다.

마하연으로부터 동으로 안문재, 유점에 이르면 내금강과 외금강이 나뉘는 곳이다. 내금강은 바위가 많고 흙이 적어 희고도 뾰족하며, 외금강은 바위가 적고 흙이 많아 푸르며 웅장하다고 한다.

금강산에는 무릇 백여덟 개의 사찰이 있으니 장안사, 표훈사는 모두 신라의 중 능인이 세운 절로 그 구조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다. 고려 아래로 진귀한 보물과 유명한 스님의 비가 많다. 정양사는 팔각전이 유명한데 네 벽 모두 신라, 고려 때의 명화이다. 비록 단청은 벗겨져 희미하나 정기는 아직고 살아 있는 것처럼 일어나는 기세가 성하다. 암성루는 경치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곳에 오르면 만이천 봉이 일일이 눈앞에 다가와 특별하고도 신비한 모습은 이루 다 말로 하기 어렵다.

영원암은 가장 궁벽한 곳에 있어 사람의 발자취가 달기 어렵다. 유점사는 외금강의 이름난 사찰로 불전의 화려함이 이 산의 제일이다. 법당 안에 향나무로 빚어진 53구의 불상은 천축산을 새겨 보는 이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게 하며 둘 안에는 13층 석탑이 서 있는데 그 솜씨가 자못 정교하다. 산영루는 풍광이 더할 나위없이 빼어나다. 서북쪽으로는 구룡연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지역이다. 그 위는 만경대요 그 밖은 곧 고성군이다.

대체로 이 산을 안으로 보면(내금강) 다만 기이하고 빼어나며 칼로 베어낸 듯 힘하나, 밖으로 나서면(외금강) 잇달아 겹쳐 있는 벳부리가 빙 둘러 에워싸고 있어 그 웅대함을 비로소 알 수 있다.

백천동 안에 한 고성이 깊은 연못가에 있고 돌문이 마치 어금니 같아서 세상에서는 신라 왕자의 피난처라고 전한다. 신라 말 경순왕이 고려에 귀향(歸降)하고자 할 때 태자가 간하기를 ‘나라의 존망은 하늘에 있거늘 어찌 천년 사직을 하루 아침에 가벼이 하리오?’ 하니 왕이 듣지 아니하므로 통곡하여 이별하고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배옷 입고 초식하며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이곳이 그 유적인가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감개 비장함을 금하지 못하겠다.

대개 금강은 천하의 명산이다. 봉래산이라 일러 지리산(方丈山), 한라산(瀛洲山)과 함께 삼신산이라 부르니 중국인들이 매번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 전하니 그 이름이 중국에서도 유명하다. 단발령은 천마산에 있으니 여기에 올라 금강산을 보면 머리를 깎고 세상을 등지고 싶은 생각이 든다 하여 유명하다.

오대산(일명 청량산, 강릉 서쪽 140리에 있음)은 만월, 기린, 장령, 상왕, 지로 등 5대가 높이 벌려 있는데 높고도 크며 골짜기는 깊어 인적이 뚝 끊어져 있다. 그 서대(장령) 아래 우통천이 솟아나와 산중 여러 물줄기와 합류하다가 기린 동쪽 골짜기에 이르러 반야연이 되고, 동대 아래 금강연은 수석이 웅장하며 화려하다. 사면 반석에 폭포가 떨어지니 여기가 바로 한강의 발원지이다. 그 위 월정사는 절집의 구조가 매우 화려하며 또 상원암은 조선의 사고지(史庫地)이다.

오세암은 설봉화상 매월당 김시습이 부처님께 의탁하고 세상을 버린 곳으로 세조 12년에 동구에 머물며 과거를 베풀어 진지(陳祉) 등 18명의 인사를 뽑았다. 그 동은 구룡연과 천유동이 물과 바위가 기묘하고 아름다우며 청학산 죽운봉이 빼어나고 그 북은 정족산이니 5대의 지맥이 서려 있는 용처럼 구불구불하여 보현, 두타, 갈야, 대관 등 산고개가 된다.

대관령(강릉 서쪽 40리)은 장백산 이남으로 동해 바닷가에 뿌리를 내린 여러 산들 중에 가장 웅대하다. 산허리에 아흔아홉 구비가 길게 퍼져나가며 돈다. 전 도의 동서를 나누니 영동과 영서로 갈라지며 경성을 통하는 대로(大路)가 된다. 또 오대의 서남쪽에 있는 연방산이 험준하며 춘양산, 발산, 정양산 등의 관서 여러 산을 거느리고 있다.

설악산은 양양과 인제 땅에 넓게 펼쳐져 있다. 웅장하고 험준하며 아주 높아 가을에 눈이 내리고 여름이 되어야 비로소 녹는 것으로 유명하다. 여러 봉우리들이 우쭐거리며 솟아 있고 흰 바위가 마치 눈 같아서 덜리서 보면 백설이 애애한 듯 세상이 펼쳐진 듯하다. 이 산이 꿈틀거리며 퍼져 나가고 솟아 올라 오색령과 오봉산, 정야산 등이 된다.

본수령(평강 서남에 있다)은 백두산맥이 이곳에 이르러 동서 두 갈래로 나뉘니 동남은 강원도로, 서남은 경기와 황해도로 내달려 각 도의 산마루가 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높고도 험하며 넓게 뒤섞여 펼쳐지니 갈산, 광복, 달마(이천), 만경, 팔봉, 갈등동(안협) 등 여러 산이 서북쪽으로 둥글게 솟아 있고 불정, 오신, 장지(금화), 죽림, 설탄(평강), 백악, 효성(철원) 등 여러 산이 동남쪽으로 늘어서듯 솟아 있다.

한계산(설악)은 인제 동쪽 50이에 우뚝 솟아 높고 험준함이 영서(嶺西)에 으뜸이다. 그 위에 대승폭포가 있으니 푸른 절벽이 수천 척 하나로 뒤섞여 쏟아져 내린다. 떨어지는 폭포가 춤추며 날아 올라 흩어지는 실과도 같다가 길게 드리운 비단과도 같다가 흑 햇빛이 비치기라도 하면 훌연 무지개를 피워내기도 한다. 또 산바람이라도 불면 회오리바람처럼 흩어지고 안개처럼 흩어져 멀리서 보노라면 한 줄기 흰 무지개가 하늘에 드리운 것 같으니 참으로 천하절경이 이보다 멋진 데가 없다. 그 남에 만경대가 우뚝 하고 한계사(寒溪寺)는 관동에서 유명한 가람이다.

태백산(삼척)은 북으로 보현, 두타산이 잇닿아 있고 바다에 이르니 6,7백리에 걸쳐 있다. 그 중 노동(蘆洞)은 조선 목조(穆祖)의 묘가 있으므로 준경묘(潛慶墓)를 봉하였다. 그 산에 당귀, 천궁, 인삼 등 약재와 만백(蔓柏), 자단이 많이 생산된다.

청평산(일명 慶雲)은 춘천 동쪽에 있으니 너른 계곡과 골짜기, 바위와 물의 아름다움이 영서 지방에서 으뜸이다. 용담의 폭포와 영지의 수磜야 모두 기이하고 절묘하니 고려 이자현의 식암(息庵) 옛터는 선동(仙洞) 가장 깊은 곳에 있어 섬돌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바위에 새긴 네 글자가 완연하고 그 곁에 지어진 작은 암자는 포개진 바위 위에 위태하기 짹이 없게 세워져 있다. 청평사에 오래된 주목은 나옹화상이 손수 심었다고 하는데 세월이 오래고 썩어 그 흔적만이 남아 있다.

우두산은 소양강 위에 넓게 솟았고 사인암산은 바위들이 많다.

치악산은 원주 동에 솟아 있는 높은 산이다. 그 꼭대기에 비로봉이 있고 그 남쪽에 주필대가 있으니 태종 원년에 고려 전사 원천석을 놓아 짓는 곳으로 친히 방문하였는데 피하여 뵙지 않으므로 왕이 이곳에 이르러 찬비를 불러 공물을 내리시고 돌아가니 후세 사람들이 그 바위를 태종대라 이름하고 세 글자를 새겼다.

정선 조양산은 큰 바위 사이에 풍혈(風穴)이 있으니 얼음이 여름에도 녹지 않고, 또 수혈(水穴)은 남강물이 이곳에 이르렀다가 못 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 물이 모마촌에 이르러 다시 솟고 그 남은 석혈(石穴)이 있으니 옛날 병사들이 피난하던 곳이다.

추지령(통천)은 한번 철령을 접해 있어 강원도 북단에 솟아 올라와 남으로 뻗어 있다. 도내에 구불거리며 돌아 날카로운 봉우리와 협곡을 만들고 말휘령(회양), 장안산이 그 남에 빼지어 솟아 있다.

소양강은 금강산에서 발원하여 계곡과 산읍을 빙 돌아 남서로 흐르다가 사명산(양구) 서쪽 기슭에 이르러 영동 여러 계곡의 물을 합쳐 점점 커지다가 인제 군 등 여러 물줄기를 모두 모은다. 그 기세로 강원, 경기 양도를 뚫고 신연강이 되어 한강으로 흘러 간다. 이 강의 상류 장안산 남쪽에 장안사가 있으니 여러

총의 탑과 높은 누각이 산을 뒤로 하고 물을 마주하여 풍경이 심히 홀륭하다.

금장강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구불거리며 깊은 협곡의 물줄기를 다 모아 충청북도로 흘러 들어간다.

오십천은 태백산 기슭에서 발원하는 작은 물줄기로 삼척 죽서루 아래에 이르러 심연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바다에 들어가니, 그 물 건너는 나루가 대략 마흔일곱 군데가 되므로 총칭 오십천이라고 한다.

(해안 및 도서)

본도 동쪽 해안은 아주 길다. 그러나 육지 쪽으로 속 들어오거나 바다 쪽으로 빠져나간 곳은 적다. 너른 항만이나 섬으로 인해 막히거나 가려진 데고 없어 이를 동북사해(東北沙海)라고 이른다.

흡곡(歛谷)의 천도(穿島)는 둘레가 3백여 보(步)요, 굴이 있어 남북으로 통하니 바람과 파도가 들어와 서로 부딪친다. 또 난도, 우도, 증도 등 일곱 개 작은 섬이 있고 그 북은 시중대(侍中臺)인데 순찰사 한명회가 이곳을 오를 때 재상의 임명장이 때마침 다다랐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팔경 중 하나이다.

통천 동쪽에 난포가 있고 간성의 동쪽에 가진갑(加津岬)이 돌출해 있으며 울진 북에 용추갑이 있으니 그 해안 모두 죽번곶이라 부르고 울진포는 그 동에 있는 부두이다. 그 남단에 돌출한 곳은 베개실갑이라 하는데 만의 안쪽 수심이 깊어 배를 대기에 편하고 월송포는 그 남에 있으니 역시 선백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다.

장전진은 통천군에 속하는데 만의 입구가 동면남탁(東面南塲)하고 깊이가 깊다. 뒤로는 금강산이 우뚝 솟아 그 산맥이 남북서 3면에 빙 돌아 있는 까닭으로 세 방향의 바람을 피하기 좋은 항구다. 요즘에는 잡은 고래를 재량하여 처리하는 기지로 외국에 빌려 준 상태이다. 그 외 송도, 사도, 무로도, 저도, 죽도, 초도, 덕산도 등은 모두 아주 작은 모래섬에 불과하다.

(도회승지)

강릉군은 옛날 예국(滅國)이니 현토군에 속하였다가 후에 신라에 속하여 소경을 두게 되었다. 이곳 인구가 조밀하고 여염이 즐비하며 동쪽 경포는 둘레가 20리요 수심이 어깨 높이에 불과하되 맑기가 거울 같아서 사면이 균일하다. 서쪽 언덕에 경포대가 있고 그 옆에는 약을 달이던 돌획이 아직도 남아 있다. 다리 밖은 죽도이고 그 북쪽은 흰 모래밭이며 그 너머는 푸른 바다가 아득히 펼쳐져 있어 해돋이를 바로 볼 수 있으며, 한송정은 동해가에 있으니 정자 언덕에 차를 달이던 돌질구는 모두 사선(四仙)의 유적이다. 지금도 악부에 한송정곡(寒松亭曲)이 있다.

양양군(의령, 양주)은 쌍성호 동쪽에 비선대와 상운정이 빠어나고 낙산사는 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동쪽에 관음굴이 있다. 낙산사의 북쪽 간성군의 청간역 동에 바위가 우뚝 솟아 층층이 마치 누대와 같고 높이가 수십 길이다. 위에 뿔 달린 새끼용처럼 구불구불 구부러진 소나무가 서려 엎드려 있고 그 아래 만경호는 바닥까지 훤히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다.

그 남쪽 죽도의 고운 모래밭은 희기가 눈과 같고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소리가 쟁쟁하여 금경(金磬)과 같다. 그 위 무성대는 무송군 윤자문이 노닐던 곳이고 그 남 영랑호는 모래섬 위에 바위가 기묘한데 선인 영랑이 쉬며 즐기던 곳이다. 또 선유담과 열산호의 경치도 빼어나다. 열산호(烈山湖)는 전해지기를 옛날 큰물이 열산 계곡을 덮어 구현(舊縣)이 물밑에 잠겼기 때문에 날이 맑고 파도가 잔잔하면 가옥과 담장이 옛 모습대로 보인다고 한다.

고성군 북쪽에 있는 삼일포(三日浦)는 둘레가 10여 리에 달하며 그 밖으로 서른여섯 개의 봉우리가 빙 둘려 있다. 그 안에 작은 섬이 오똑한데 그곳에 사선정(四仙亭)이 있다. 사선은 신라 때 영랑, 술랑, 안상, 남랑 등 네 명인데 일찍이 관동 지방 여러 명승지를 두루 찾았습니다 이곳에 이르러 사흘 동안 갈 바를 모르고 머물렀기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 정자 남쪽에 작은 바위 위에 짧은 비갈(碑碣)이 있는데 오래되어 긁히고 깎이고 떨어져나가 알아보기가 어렵다. 세상에 전하길 미륵의 매향비(埋香碑)라 한다. 또 서쪽 벼랑에 '술랑도 남석생(述郎徒南石行)'이란 여섯 자를 붉은 글씨로 새겨 놓았는데 사선의 글이라 전해진다. 환도는 모두 기이한 바위 뿐으로 그 위에 오래된 소나무 여러 그루가 서 있어서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슬프다.

고성군으로부터 통천에 이르는 150리 길을 보통 외산(外山)이라고 부른다. 포구산과 괘종암의 경치가 멋지다. 천 길 높은 봉우리가 동해를 베고 누운 듯하고 산꼭대기에는 바위 지붕과 바위 기둥이 서 있다. 길은 모두 바다와 함께 가고 오너 파도가 해안을 때리면 그 무너지고 솟아오르고 오그라지고 밟히는 것이 마치 만 필의 말이 사납게 달리는 듯하다. 길 가에는 깊고도 맑은 높이 많아서 물오리와 갈매기와 백조, 해오라기 따위가 부침하며 파도를 희롱하니 그 풍경이 참으로 청아하다.

총석정은 긴 언덕이 통천 북쪽 50리에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 둥그렇게 솟아 오른 곳에 커다란 돌기둥 네 개가 바닷 속에 뚝 떨어져 솟아 있으니 그 높이가 모두 10여 장(丈, 1장은 10척)이고 한 기둥에 수십 개의 작은 기둥이 뮤인 듯 서 있다. 돌들이 반듯반듯한 직육면으로 빗살처럼 가지런하다. 먹줄과 곡척, 큰칼

로 만든 것같이 신묘해 곧 사선봉(四仙峯)이다. 역시 사선이 유람하던 곳이다. 환정(環亭) 멀리 일어나고 엎드린 것들이 다 바위요, 그 동쪽 벼랑에 짧은 비갈이 있는데 글자가 오래되어 낡아서 읽을 수가 없다. 그 동쪽 금란산에 금란굴과 용천의 훌륭한 경치가 있다.

울진군의 망양정은 대해를 동쪽에 두고 그 북에 영휘원과 임의대, 조도잔(鳥道檻)이 모두 풍광이 밝고 아름답다. 게다가 명사십리에 해당화가 만발하여 비단에 수를 놓은 그림과 같다.

삼척군은 옛날 실직국이니 신라에 속했었다. 죽서루(그 동에 옛날 죽장사가 있어 이름 불음)는 오십천 위에 있으니 천 길이요 기암이 떼 지어 있는 곳에 위로는 날아갈 듯한 누각을 세워두고 아래로는 맑은 청담을 내려다보게 했으니 참으로 산수 조화가 절묘하다.

이상 말한 바 흡곡 시중대와 통천 총석정과 고성 삼일포와 간성 청간정,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은 관동의 팔경이라 하고 그 외에도 명승이 아주 많다.

평해 월송정은 역시 경개가 아름다운 곳이니 푸른 소나무 숲과 흰눈 같은 백사장은 연출현에서의 조망이 아주 상쾌하다.

춘천군은 강원도의 중심부이다. 옛날 예맥이 도읍을 옮긴 곳이요 사군 때에 낙랑군 소명현 소속의 남부도 위(南部都尉)의 고장이다. 후에 신라에 속하며 우수주(牛首州)를 두니 청평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여 소양강을 끼게 되니 곁에 우두대촌(牛頭大村)이 있으며 산은 넓고 들은 평평하고 두 강이 물을 댐으로 토지가 접점 비옥해졌다.

원주군은 옛날 평원 소경이니 치악산을 의지하고 섬강을 낀 들판이 아주 너른 땅이다. 흥법사에는 고려 태조가 몸소 지은 비문이 지금도 남아 있고 각림사는 조선 태종이 독서하던 곳이며 군 동쪽에 임금이 몸스 비각이 있으며 인렬왕후 한씨가 탄생한 옛 터이다.

즈천석(酒泉石)은 주천면 길가에 있는데 돌판이 반쯤 깨진 석조(石槽)와 같다. 명유(明儒) 진계유(陳繼儒)가 이로써 해동(海東) 신천(神泉)이라 이름하였다.

영월군은 울치 남쪽에 있으니 금장강이 그 동으로 돌아 흐르고 여러 험한 산들이 사방을 에워싼 곳이다. 다만 금강정(錦江亭)이 강가에 있고 그 외 상덕촌(尙德村)이 있으며 자규루(子規樓)는 단종 순위(遜位) 때 자규사를 친히 자으시던 곳으로 지금은 장릉(莊陵)을 봉하고 죽어 지조를 지키던 신하를 배향하였고 어라사연(於羅寺淵)은 세종 조 수십 장의 뱃 허물이 발견된 곳이기도 하다.

철원군은 궁예의 옛 땅이다. 보개산 동쪽에 있고 그 풍천 벌은 궁예의 옛터로 궁궐의 흔적이 완연하다. 뜨재송평(栽松坪), 고석정(孤石亭)이 등이 있다.

4) 100년전 경상북도

(위치. 경계)

경상북도는 우리나라의 동남쪽에 있으니 동북은 강원도와, 북서는 충청북도와, 서남은 전라도와, 남은 경상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길이는 동서로 약 350리요 남북은 약 450리이니 북위 35도 30분에서 37도 30분에 이르고, 동경 128도에서 129도 30분에 이른다.

(지세)

지세는 서쪽과 북부 지역에 산악이 중첩하고 동남으로는 큰 언덕이 곳곳에 솟아 올라 중앙은 대체로 평坦하여 전답이 비옥하고 인구가 조밀하며 낙동강이 중앙을 가로지르니 뱃길이 편리한 곳이다.

(역학)

옛 진한의 땅으로 신라 땅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가 통합한 후에 *경주에 두었고 성종 14년에 상주 소관으로 영남도를 삼고, 경주 금주 소관으로 영동도를 삼았다가 예종(睿宗) 원년에 고쳐서 경상 진주도라 하고, 명종 원년에 또 나누어 경상도라 하였다. 신종 7년에 또 상진 안동도라 합쳤다가 이어 경상 진안도라고 치고 고종 46년에 평해, 영덕, 덕원, 송생 4현을 떼어내 명주도에 속하게 하였다.

후에 덕원, 영덕, 송생은 다시 경상북도로 환속하고 충숙왕 원년에 경상도라 정함에 조선조에서도 그대로 경상도라 부르다가 고종 33년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로 나뉘니 42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령)

태백산이 본도의 북쪽에 우뚝 솟아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니 태백의 한 가지는 서쪽으로 소백산(풍기), 죽령(풍기), 작성산(예천), 계립령(문경), 주출산(문경), 희양산(문경), 청화산(상주), 속리산(상주), 추풍(황간), 황악(금산), 덕유산(안의), 장안산, 지리산 등이 되어 서북으로 큰 고갯마루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 한 가지는 동쪽으로 내달려 일월산(영양), 청량산(안동), 주방산(청송), 보현산(청송), 단석산(경주), 토함산(경주), 운문산(청도), 원적산(울산), 금정산(동래) 등이 되어 동남쪽 바닷가로 뻗어 내려 간다.

태백산은 본도 북쪽에 있는 봉화군의 북쪽 70리 쯤에 있으니 강원, 충청북도와 세 도가 만나는 곳에 펼쳐진 높은 산이다. 그 산은 바위돌이 적고 흙이 많아 봉우리들이 모두 만둥산으로 산꼭대기에 황지가 있어 그 연못의 물이 졸졸 흘러나오며 풍경이 빼어나다. 연못가에 마을을 이루어 사람들이 모여 산다. 조와 감자가 주식이다. 고개 아래에 각화사와 홍제암은 왕왕 고승이 머무는 곳으로 나라의 사고(史庫)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백산은 순흥군 서북쪽에 우뚝 솟은 흙산으로 암석이 없는 까닭으로 산은 웅대하나 빼어남이 적다. 멀리 바라보면 산봉우리들이 구름 안개 피어나듯 펼쳐져 있어 행운유수가 하늘에 닿은 듯하다. 상봉은 국망봉이라 한다. 우경암, 원륜암 등의 암자와 육금, 양곡의 동천이 있어 신령스럽고 영묘한 경지를 더해 준다.

청량산은 안동군 재산(才山)고현에 있으니 고운 최치원이 일찍이 이 산에서 글을 읽음으로 차원봉과 난가대가 특별히 유명하고 그 옆 석굴 안에 한 노파의 상이 있는데 이는 고운의 찬비라 한다. 또 송대풍혈(松臺風穴)의 기이하고도 빼어난 곳이 있는데 퇴계 이황이 수련하던 곳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이 무이구곡에 비함으로 그 명성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 문수봉, 천등봉, 백병봉, 문필봉, 원지봉, 봉래봉 등 여러 봉우리들이 사방에 도열하듯 벌여 있다.

조령은 본도 서북 경계에 있어 구름 위로 외연히 솟아 있어 험하고 위태롭게 남북을 끊어 놓는다. 그 중 한 고개가 점점 낮아지며 우회함이 마치 긴 뱀과 같다. 인마의 통행이 지난날 경성을 통하는 큰길이 되어 내왕이 빈번하였는데 경부 철로 부설이 추풍령을 관통하니 행인의 왕래가 뚝 떨어져 주막이 쓸쓸해졌다. 조령은 나라 방위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산 가운데 3중의 성채를 둘러치고 세 관문을 만들었다. 여기에 진영장을 두어 수비하게 하였는데 오늘날은 폐지되었다. 산림이 4.50리에 우거져 궁실의 배와 수레를 만드는 목재가 많이 생산되었지만 이를 지키는 이가 없어지니 마구 베어내어 점점 숲이 사라져 간다.

그 중 어유동은 고려 공민왕이 피난하여 머물던 곳으로 궁궐의 남은 터가 아직도 있다. 용추는 초점(草帖) 위에 있으니 기암괴석이 우뚝하고 떨어지는 폭포가 뜻을 이룬 곳에 삼석굴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어금니를 감추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 용송그리게 한다.

그 남쪽에 꽃갑천(관갑천)이 마치 돌을 뚫어 낸듯 빙 둘러진 벼랑에 있어 나무 사다리를 세우고 구부러진 길이 6.7백 보나 이어진다. 전해오기를 고려 태조 왕건이 남정(南征)할 때 이곳에 이르러 길을 잊고 헤맬 때 문득 토끼가 빙 둘린 벼랑을 타고 달아나니 드디어 길을 열고 나갈 수 있었기에 이곳의 이름을 '토끼천(兔遷)'이라 하였다. 이 아래로는 견탄이 돌아 흐르며 서쪽은 희양산, 청화산, 선유 등 여러 산이 어울려 솟아 있다.

태백산의 한 가지가 남으로 벌어나가 검마산, 일월산 등이 되니 검마산은 그 봉우리가 마치 칼날과 같이 날카롭고 뾰족하게 솟아 올라 오르기 어렵고, 일월산은 깊고도 빼어나 멀리 산봉우리가 첨첩하다. 동남으로 주방산, 보현산, 용두산 등이 되니 주방산의 학소암과 용두산의 위정수(葦井水)는 신령스런 곳으로 유명하다.

치술령은 경주 남쪽 30리에 있는 곳으로 신라 박제상의 부인이 통곡하다가 자진한 곳이다. 치술령의 한 가지는 동으로 토함산, 명활산, 낭산, 함월산 등이 되어 경주 바닷가에 우뚝하다. 또 한 가지는 동남으로 동대산, 황제산이 되어 울산 바다 쪽으로 이어진다.

보현산(일명 모자산)은 동쪽으로 큰 바다를 임해 있고 북으로 조령을 바라보며 법화동에는 냉천이 솟아나와 무더운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고 그 남쪽에 무학산이 극히 험준하며 더 남으로 운문산이 우뚝 솟아 여러 군에 그 산세를 멀치고 있다. 골짜기가 깊고 멀어 기암과 맑은 연담(淵潭)이 많다. 그 중 낙화암과 기연(妓淵)은 신라왕의 놀이터였으니 기녀가 떨어진 곳으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운문사는 도내에서 유명한 큰 절로 그 동쪽에 마곡산과 관문산이 깎아 지른 듯이 우뚝 솟아 있고, 청도 서북의 팔조령은 고갯길이 험준하여 적을 기다려 막을 만한 남방의 요해지이다.

팔공산은 대구 북부에 우뚝 솟아 신녕, 영천 등 7읍이 서로 만나는 곳에 둘려 있는 큰산이다. 그 중에 수도동은 백 척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있고 또 선주암, 집선대 등 경치가 빼어나고 동화사와 은해사가 아주 유명하다. 동화사에 흥진(弘眞)의 비가 있으며 명승의 자취가 많다. 이 산은 신라 때에는 부악(父巒)이라 하고 중사(中祀)에 제사했다.(바람, 구름, 우레, 비, 산, 바다, 내의 신과 선농, 선잠, 우사, 문선왕 및 역대 시조에게 지내던 나라의 제사. 대사보다 좀 간략함) 그 서쪽은 가산(架山, 칠곡)이니 숙종 때 산성을 쌓아 남쪽을 보호하고 뒷받침했고, 그 북쪽은 유악산(인동)이니 금오산(선산)과 강을 사이하

여 서로 마주 보고 솟아 있다.

금오산은 일명 남고로 이 산에 산성이 있어 진지와 보루를 설치하였다. 성안에 아홉 개의 우물과 일곱 연못이 있으며 북쪽으로 큰 굴이 있다. 백 길 폭포가 수직으로 떨어지는데 고려 말에 야은 길재가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하던 곳이다. 채미정, 종국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비슬산(현풍)의 또 다른 이름은 포산이다. 산세가 험준하다. 대견봉, 천왕봉이 있으며 신라 도승 관기, 도성이 함께 수도하던 곳이다.

(하류)

낙동강은 태백산의 황지에서 발원하여 산줄기를 헤치고 남으로 흘러 매토천(봉화)이 되고 안동, 예안, 진보, 영천, 용궁, 문경, 예천 등 여러 군의 물을 받아 상주 동쪽에 이르러 낙동강이 되고 본도 서부 중앙을 훑뚫고 경상남도로 흘러간다. 대체로 도내의 하천과 시내를 모두 모아 7백여 리를 넓고 깊고 아득히 흘러 한 줄기 물 갈래(一條派)로 바다에 가 닿는다. 속칭 영남인의 성질이 이 물과 같이 굳세고 바르며 꺾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낙동강(낙강) 이외는 다른 큰 물줄기가 없고 다만 지류에 불과하니 금호강(琴湖江)은 근원이 청송 보현산에서 시작되어 남으로 흘러 빙천, 자을, 아천이 되고 영천, 신녕, 하양, 경산 등 여러 군의 물을 합쳐 대구 북쪽에 이르러 사수(泗水)가 되고 또 해안천, 팔려천을 합하여 사문진에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니 얕은 여울이 많아 큰 배가 오갈 수는 없으나 관개용으로 유익한 강이다.

(해만 및 도서)

경상북도는 동쪽 전면 모두가 동해를 면하였으나 해만과 곳이 많지 않고 약간의 포구와 작은 섬이 있을 뿐이다. 근년에 강원도 올도(울릉도)를 본도에 속하게 하였다. 올도는 북위 39도 45분, 동경 37도 34분으로 울진 동쪽 3백여 리에 있어 일명 우릉(羽陵, 또는 무릉)으로 세 봉우리가 가파르고 높이 솟아 하늘을 베티고 있는 듯하다.(높이 4천 척) 바람과 해가 맑고 명랑하면 봉우리의 수목과 물가 모래사장과 산뿌리가 역력히 다 보인다. 지방은 약 5백4 방리(方里)이니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목사자(木獅子)로 꽤어내 복속시킨 나라이다.

고려 아래로 공물이 끊이지 않았는데 후에 여진으로부터 여러 차례 노략질을 당하여 이곳을 비워 두었고 의종 아래로 현을 두고자 하였지만 바람과 파도가 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조선조 태종조에 안무사 김인우에게 명하여 유랑하는 동포를 본국으로 데려 오게 하고, 세종 20년에 만호 남호를 보내어 포민(逋民, 세상을 떠나 피했던 사람) 김환 등 70여 인을 본국으로 데리고 와 그곳을 비워 두었다. 광해 7년에 와선 2척이 정박함으로 조정이 문서를 보내어 꾸짖어 보냈고, 숙종 19년에 마도 수령 의신이 표민(漂民) 2가구를 강제로 끌어 가지고 문서의 뜻이 모호하다 하여 여러 차례 왕복하다가 안용복의 사건이 생겨나고 마침내 모두 돌아오게 하였다. 이 사실은 따로 기록하겠다.

이 섬은 시호(柴胡), 석남(石楠), 고본(藁本) 등 약초가 생산되며 땅이 기름져 대나무가 깃대처럼 자라고 쥐크기가 고양이 만하며, 복숭아 씨가 되박 만하다. 여러 가지 물고기가 많이 잡히며, 물푸레나무와 박달나무는 단단하고 치밀하여 선박 제조의 좋은 재목이다. 기타 삼림도 풍부하다. 콩은 한 해 생산량이 5,6백 석에 달하고 가을철에는 산비둘기가 모여 들어 섬사람들이 이를 잡아 고기와 기름을 식품과 등기름으로 쓴다. 또 우뭇가사리, 산포도 등이 수출되기도 하며 섬 안에는 좋은 약샘이 있다.

축산포는 영해군 동쪽에 있어 예전에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그 북쪽은 평해군과 경계를 이루고 그 동쪽은 축산도인데 그 형국이 소와 같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여기에 관어대가 있어 산을 의지하고 바다에 바짝 붙어 있어 일망 천리요 백석정(모래사장), 망곡포, 고포, 대진, 경정 등이 남북에 아득히 펼쳐져 있다. 그 남쪽은 영덕 조포와 청하 개포와 흥해 칠포 등이 있다.

영일만은 연일군 동쪽에 돌출한 곳으로 동을배곶(東乙背串)이다. 만 안의 넓이가 수(數) 리에 걸쳐 있고 깊이가 수십 척이 되어 상선과 군함이 정박하기에 편리하다. 동북풍은 피하기 어려우며 그 남안은 구릉과 언덕 지대이고 서북 해안은 모래와 푸른빛 자갈이 연해 있어 풍광이 빼어나다. 그 북은 죽도와 포항이니 포항은 주진(注津)의 입구요 형산강의 하류이다. 매년 겨울에 청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생산되므로 임금께 예물로 바친 후에 여러 읍에서 잡기 시작하는데 실로 동해의 큰 포구 시장으로 유명하다.

(도회, 승지)

대구(大丘, 일명 達句)는 본도 관찰사의 으뜸 지역이다. 사방에 산악이 둉그렇게 에워싸고 있고 중앙에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다. 금호강이 동에서 서로 흘려가니 토지가 기름져 농작이 풍요하고 한 도의 중심에 있으므로 온갖 산물과 재화가 부챗살처럼 모여든다. 따라서 상업이 번창하고 시장이 넉넉하고 풍성하여 여각(旅館)이 즐비하니 실로 우리나라 남쪽의 최대 도시이다.

요즈음은 또 경부 철도가 가로질러 부설되어 큰 정거장이 되어 외국인의 가옥과 상점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등 상공업이 날로 발달해 가고 있다. 동쪽에 동수(桐叢)는 고려 태조가 견훤에게 포위되었을 때 장절공 신숭겸이 전몰한 곳이고, 서쪽 전탄(箭灘)은 동수의 싸움에서 화살이 물 속에 쌓인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달성은 성 서쪽의 한 높은 언덕인데 예전 서씨(徐氏)의 유허지이다.

경주(계림, 동경)은 신라의 고도이다. 서북은 산악이 둥그렇게 둘러싸고 동남은 바다를 임하여 있다. 밭이 랑이 종횡으로 넓고 길며 토지가 비옥하고 인구가 조밀하다. 물화가 넘쳐나니 실로 영척(嶺脊, 대관령을 척추로 남쪽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의 아홉 개 군 중 오뜸가는 시가이다. 남산에는 청백홍자색 옥석이 생산되며, 금오산에 포석정의 옛터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그 동은 서출지(書出池)요 월명(月明) 거리는 처용(處容)의 가무지(歌舞地)이다. 성의 서쪽 선도산에 성모사(聖母祠)의 유적과 나정(蘿井), 시림(始林), 알영정(闕英井)의 옛터는 지금은 촌 노인네의 전설 속에 허탄하게 들리나 궁궐의 남은 터와 첨성대, 창립사의 지나간 행적은 다만 굴러 떨어진 섬돌 조각이 남은 노을에 옛 흔적을 헛되어 남겨 망국의 여한을 감개무량하게 할 뿐이다. 신라 삼보(三寶)에 옥대(玉帶), 장륙존상(丈六尊像)은 그 흔적을 알 수 없으나 한 쌍의 옥저(玉箸)는 그대로 남아 가을 잎 비껴 해에 감회를 금할 길이 없다. 반월 고성과 진한 6부에 3성(姓) 고적이 여러 가지 많지만 이제 와 글로 쓰기에 겨를이 없다.

상주(沙梁, 上洛, 陀阿, 商山)는 본래 사벌국으로 역시 영남의 큰 도회지이다. 북은 조령(鳥嶺)을 잡아 당기며 동은 낙동강을 허리에 두르고 수륙의 운송이 편리하여 온갖 물화가 모여 쌓이고 많은 상인이 고라니 모이듯 하며, 성첩과 시가가 넓고도 풍부하고 밭과 들판이 비옥하여 곡물이 풍성하게 생산된다.

사벌 옛성은 상주 동쪽 병풍산 아래에 있고 북쪽 경계 쪽에 있는 공검지(恭檢池)는 고려 때 최정분이 예전의 뜻을 보수한 것인데 길이 865척, 둘레 16,647척으로 농업용 관개에 크게 이롭다. 서쪽의 용화, 율면 촌은 질 좋은 소나무 등 궁실의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성주(일명 경산, 성산, 대주, 흥안)는 본래 벽진 가야국인데 그 동은 낙동강을 암하고 그 서북에는 비지산(斐旨山, 태자암이 있음), 도덕산, 가야산 등이 응크려 서린 듯하고 이가(伊伽) 양천이 흘러 온 들이 비옥하며 관개의 편리가 도내에서 제일이다.

화원(花園) 고현의 북쪽 성산은 신라 왕들이 꽃을 감상하던 곳으로 전해지며 상국리 세자지 등 마을이 있고 독용(禿用) 산성은 산림이 우거진 곳이다.

선산(善山, 일명 嵩善, 善州)은 낙동강 서안과 감천의 북에 있으니 금오산이 남에 솟아 있고 비봉산이 북에 진치듯 솟아 있다. 산천이 맑고 빼어나기에 옛말에 한국의 인재는 반이 영남에 있고, 영남 인재의 반이 선산에 있다고 전해진다.

군의 남쪽 감천이 매년 큰비에 불어 넘치면 논밭과 가옥이 마구 쓸려 나가므로 페재 문간공 김종직이 느릅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수해를 막으니 그곳을 동지숲이라 부른다. 군 동쪽 태조산은 고려 태조가 머물던 곳이고 발견포(拔甄浦)는 왕건이 견훤을 완패시킨 곳으로 옛 성채가 지금도 남아 있다. 또 냉산 도리사(桃李寺)는 신라 아도화상(阿道和尚)이 머물던 옛 절이다.

아도가 산 아래 다달은 때가 한 겨울인데도 복숭아, 오얏꽃이 활짝 피었음으로 도리사라 하였고 그 지명도 도개부곡(桃開部曲)이라 하였다. 또 금오산 북에 도선굴이 있으니 천 길 암벽 이에 저절로 생긴 바위굴이 있어 굴안에 옛 집터가 있다. 그 아래는 야은(冶隱) 길재(吉再)의 옛 사당이 있고 그 북쪽 봉계리는 야은의 고향 마을로 약가(藥哥)의 집이 있다.

시골 여인 약가는 야은의 충절을 사모하여 수절하고 개가하지 않으니 오늘에 이르러 야은과 충절을 함께 기리는 바 되었는데 이 빛나는 정표(旌表)에 '百世清風八年孤燈'이라 여덟 자가 크게 새겨져 있다. 의로운 개와 소의 무덤도 있다. 옛날에는 개와 소가 능히 주인을 위해 우환을 막아 내다가 힘이 다해 죽음을 애달파 무덤을 지은 것이다.

낙동강 가에는 이매연(鯉埋淵), 노자석(鷲鷺石, 가마우지 바위), 견탄(犬灘), 월파정(月波亭), 보천탄(寶泉灘) 등 명소가 아주 많다.

선산의 서쪽은 개녕군이니 곧 옛날 감문국(甘文國)이다. 신라 조문왕이 멸망시키고 청주(青州)를 설치하니 북쪽은 감문산, 남쪽은 감천으로 토지가 기름지다. 군 북쪽 20리에 옛 금효왕릉이 있고 군 서쪽 웅현리에 감문왕비 장부인능이 있으며 군 동쪽 유산(柳山)에 옛 궁터가 있다.

개녕의 서는 금산군이니 황악산이 가장 높고 험하며 직지사는 경치가 그윽하고도 기이하다. 그 동쪽 감천의 서안(西岸) 김천 시장은 호남과 영남의 교차 지점에 있어 물화가 부챗살처럼 모여드는 곳으로 가게가 번창하다.

고령(고양, 영천)군은 본래 대가야국이니 시조 이진아고왕이 개국하여 도설지왕 때 신라 진흥왕에 멸망했다. 16세 520년이다. 군의 남쪽 1리에 옛 궁궐터와 돌우물이 아직 있으며 서쪽에 금립왕릉이 있고 그 북금곡촌은 우륵이 가야금을 익히던 곳이라 한다.

안동군(古陶, 古昌, 永嘉福州)은 태백산, 남화산 동쪽에 있는 도회지이다. 황수(潢水)가 그 동남을 에워

싸고 그 위에 영호루가 있으나 고려 공민왕이 남천할 때 이곳에 머물며 ‘영호루(映湖樓)식’ 자를 친히 써 지금까지도 그 친필이 빛나고 있으며 누의 북쪽에 신라 고찰의 유적이 완연하며 또 서악사, 귀래정, 임청각 등 옛터가 있어 문인과 나그네의 회고의 정을 느끼게 한다.

안동의 동은 진보, 청송, 영양 등 작은 군들이 산간에 궁벽하게 자리잡고 있다. 청송의 남천은 기암과 첨석(疊石)의 형상이 빼어나고, 진보의 신한천은 강 가의 석벽이 놓고 험하게 솟아 있으며 그 동쪽에 있는 영덕, 영해군은 바다 모퉁이에 붙어 있는 작은 읍이지만 봄철에 대게(大蟹)를 잡아 올리는데 이 게가 바퀴나 키와 같아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중의 진품이 된다.

영해의 축산포는 바닷물이 깊고도 넓어 백 톤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는 좋은 항구이며 어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다. 송현 남쪽은 세종, 성종 때 땅이 불타오르는 구덩이가 있어 연기와 불꽃이 생겨나 나무와 돌을 다 태워버리고 비가 내려도 끼지지 않았다.

서읍령은 지인이 송별하던 곳이며 함안동 연지계는 관청 기녀들의 옛 거주지이며 또 유사정, 관어대, 정신방 등 고적이 많다.

안동의 북은 예안군이니 도산, 건지산과 비암, 단사협, 탁영담, 풍월담 등 명승지가 많다. 모두 강가의 아름다운 경치이다. 단사협은 돌 빛깔이 붉다. 또 왕모성, 만선대가 있으니 퇴계 이문순공이 도를 강론하던 옛 마을이다. 고인의 발자취가 지금도 완연하고 후세에 사모하여 우러름이 교남(嶠南)의 궐리(闕里)(*안동의 별칭으로 영남 지방의 대궐)라고 이르는 곳이 바로 여기인 줄 알겠다. 그 서쪽 구산(龜山)은 평지에 불끈 솟았는데 암벽이 솟은 것이 마치 거북이와 닮아 동서구대의 이름이 붙었다.

부석사는 기이한 부석(浮石)이 있으므로 유명하다. 신라 명승 의상이 창건한 절이다. 지금 처마 밑에 이름 모를 오랜 나무가 있으니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상이 입적할 때 지팡이를 심어 놓은 것이라 한다.

사자산 폐사지에 일월선사의 비는 신라 감생의 전본으로 지금 자민루 아래에 있다.

의성군은 옛날 소문국(召文國)이니 신라에 멸망된 나라이다. 이제 그 남쪽 소문리에 옛 궁궐과 우물의 터가 남아 있으며 그 동쪽 얼음산은 얼음굴이 있어 여름에 얼고 겨울에 풀리니 그 깊이는 알 수 없다. 그 남쪽 의흥군(부계에 속한 현)에는 화산에 풍혈이 있는데 역시 여름에 얼음이 얼고 그 아래 바위 절벽 위에 인각사(麟角寺)가 높다랗게 서 있다. 의흥의 서쪽은 군위군으로 김유신 장군의 옛 사당이 있다.

문경군은 주흘산 남에 있으니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다. 산천이 험하여 위태롭지만 밭과 들이 비옥하고 산림 및 곡물이 넉넉히 생산되는 곳이다. 군 북쪽에 있는 계립령은 신라, 고려 때 국경 지역으로 수많은 싸움이 있던 고개이다. 조령성은 숙종 34년에 축조된 바 조령, 조동, 주흘 등 3중 판문을 세우고 군량 장고를 짓고 그 동쪽 어류성은 지형이 특별히 험하고 막혀 있다.

고부, 고모 두 성은 토천 서남쪽에 마주하고 있으니 양협곡이 가시와 같고 너른 시내는 중반(中盤)하여 실로 천험(天險)의 땅이다. 가은의 고현에 견훤성이 있으니 견훤이 태어난 곳이다.

군의 남쪽 소둔산에 조천(潮泉)이 둘 있는데 그 근원이 하나는 토굴에서 나오며 또 하나는 바위굴에서 나온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뿐어 올라 동구를 적시는데 마치 바닷가 조수와 같아 그런 이름이 붙었다.

회양산의 봉암사(일명 양산사)는 최고운의 찬한 비(碑) 중 지증의 비와 고려 진정(眞靜)의 비가 있으니 모두 천여 년의 고적이다.

예천군은 용문, 작성의 혐준한 데가 있으며 낙동강의 흐름에 임해 있다. 군 북쪽에 주천(酒泉)은 그 맛이 차고 달다. 명나라 장군 양호가 마시고 이 군의 이름이 이에서 연유한다고 하였다.

경산군은 옛날 압량(일명 압독)국이니 지금 현의 동쪽 압량역에 옛 나라의 터가 아직도 쓸쓸히 남아 있다. 그 남쪽 청도군은 옛날 이서국(伊西國)이니 그 동쪽 취성은 바위 벼랑이 동서로 끊어진 곳으로 고려 태조가 이곳에 은거한 산적을 염습하여 대파한 곳이다. 그 남 오산에 높고도 묘한 동천(洞天)이 있으니 그곳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로 풍우를 점쳤다고 한다. 그 남쪽 유천은 자천과 운문천을 합하여 남류하니 농업용수의 이로움이 아주 크고, 잉어 메기 등이 많이 잡힌다. 이제 경부 철도 정거장이 있어 외국인의 집들이 많다.

영천군은 골화국(骨化國)의 옛 땅이다. 공산(公山)을 등에 지고 남북으로 그 시내가 우회하여 흘러 영주라 부른다. 명원루(일명 조양각)는 시내를 끼고 바위 절벽을 타고 서 있어 넓디너른 평야를 내려다 보니 풍광이 아름답고 곱다. 경개가 맑고도 빼어나 예로부터 유인과객(遊人過客)이 다투어 오르던 곳이다. 정(鄭) 도은(圖隱) (군 동쪽에 포은의 옛 마을이 있다)의 시에, ‘風流太守二千石 邂逅故人三百盃’ 구절이 천고에 회자함으로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이 대구(對句)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안동군(옥산)은 낙동강의 동에 있어 천생산을 의지하니 천생산성은 사면 석벽이 마치 깎아 세운 듯하여 유명하다. 신라 시조왕이 처음 축성한 것으로 또 다른 이름은 혁거세성이라고도 한다. 선조 임진에 흥의 장군 꽈재우가 여기에 진을 치고 일병(日兵)을 대파하고 충창 병기를 다수 노획하여 성중에 두고, 그 후에 다시 찰리사(察里使)써 조정에 품계하여 외성(外城)을 더 쌓았다. 군 서쪽 오태산에 야은 길재의 묘가 있고 그 동쪽에 ‘지주중류(砥柱中流)(지주는 황하 가운데 있는 산으로 격류 속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움직

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난세에 처해 있으면서도 절조를 지키는 일)의 넉 자를 쓴 큰 비가 있으며, 그 아래는 곧 향랑연이니 선산 산골에 사는 한 여인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지 못하여 억울함을 안고 여기서 ‘산유화곡’(山有花曲)을 노래하고 바위 아래로 투신하였기에 향랑연이라 한다. 그 서쪽 고산 아래 선봉사의 폐찰(廢刹)에는 고려 의천국사의 옛 비가 있는데 이끼 낀 비문이 오래 되어 글하고 깎여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 남쪽은 약목(若木) 고현이다.

그 남은 왜관이니 낙동강을 끼고 있는 나루터라 장삿배가 모여들고 물고기와 소금이 쌓이더니 근래에는 경부철도 정거장이 세워지고 일본인 가옥이 날로 증가한다. 수륙 운송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5) 100년전 전라북도

(위치. 경계)

전라북도는 북은 충청남도, 동북은 충청북도, 동은 경상남도, 서는 바다와, 남은 전라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서가 약 3백 리요 남북이 약 2백 여리다. 북위 35도 20분에서 36도 30분에 이르며, 동경 126도 30분에서 128도에 이르니 그 지형이 동남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부분이 남도 쪽으로 깊이 들어가 있고 서남으로 격포의 뾰족한 부분이 고부 만에 튀어 나왔으며 북으로 돌출된 부분은 충청남도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 모서리 부분이 길고 짧음이 가지런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삼각형 모형이다.

(연혁)

전라북도는 본래 마한의 땅이다. 후에 백제 땅이 되었다가 신라 무열왕이 당병과 함께 치고 5도독부를 두었을 때 본도는 마한, 부여, 덕안 등 부에 속하였는데 얼마 후 신라의 점령 지역이 되어 전주를 두었고 후에 후백제 견훤이 점거하였다가 고려에 멸한 바 되었다.

성종 14년에 전영, 순마 등 주(州)로 강남도를 삼았고 현종 9년에 해양도를 합하여 전라도라 개정하였다. 조선조에서도 이 이름을 쓰다가 고종 33년에 전라남북도를 나누니 모두 26개 군이다.

(산령)

속리산의 남쪽 가지가 본도 동북 지경에 이르러 덕유산이 되니 경상, 충청도와 서로 경계를 이루게 된다. 이 산이 높고도 넓어 웅장한데 그 북에 삼도봉이 솟아 있고 이 산자락에 구천동이 있다. 구천동은 천석(泉石)이 빼어나 신령스럽고 풍광이 아름다워 그 동쪽에 있는 대덕산과 서쪽에 있는 적상산이 나란히 솟아 있다. 적상산은 나라의 사고(史庫)가 있다.

덕유산의 한 가지는 서쪽으로 전주의 동에 이르러 마이산(馬耳山)이 되었는데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구름 위에 솟아 그 모양이 말 귀와 흡사하여 태종 임금이 전주에서 무술을 익히시고 이 산에 이르러 마이산이라 이름 불였다.

마이산의 한 가지가 서남으로 달려 모악산(母岳山, 金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부흥산(淳昌)과 노령(井邑)이 되며 또 한 가지는 북으로 주취산(龍潭)과 대둔산(珍山)이 되고 서로 전주에 이르러 위봉산, 건지산이 되니 조선 시조의 능묘가 있으므로 봉금(封禁)을 삼갔다. 주취산 북쪽 한 가지는 서쪽으로 탄현이 되어 용화산(沃溝), 채운산(礪山)이 되니 용화산 위에 마한 왕의 옛 성이 있고 채운은 들판 가운데 외딴 봉우리가 하나 우뚝 솟아 있고 산꼭대기에 양음, 영천 2 동학이 있으니 세상에 백제왕이 연회를 베풀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다. 대둔산은 두솔산이라고도 하는데 바위 봉우리가 조릿대처럼 떼지어 솟아 있어 극히 응대하다.

덕유산의 한 가지가 남으로 자리산에서 그치니 백두산맥이 여기에 이르러 그치므로 두류(頭流)라 하니 산세가 광대하여 수백 리를 걸쳐 있다. 전라북도, 경상도의 각 군이 이 산에 둘려 있는 것이 모두 수십 군에 이른다. 신라 때부터 ‘남악(南嶽)’이라 일러 종사(中祀)에 제했으며 천왕(天王), 반야(般若) 두 봉우리가 가장 높아 산허리에는 비구름이 걸쳐 있다. 그 위는 늘 쾌청하다.

덕유, 자리의 중간에 육십치(구례, 안의), 팔량치(운봉, 함양), 장안산 등이 협준하고 가늘며, 황산(운봉)은 정산과 나란히 솟아 올라 고려 말에 이 성계가 왜병을 대파하고 아지발도를 쏘아 죽인 곳이다. 백운산, 오봉산(구례)은 자리산의 남은 산줄기이다.

덕유의 한 가닥이 교룡산, 보련산, 풍악(남원), 성수산(임실), 회문산, 광덕산, 적성산(세 봉우리가 천길 절벽 위에 서 있다), 백방산(순창)이 되어 전라남도와 경계를 나누고 문제산, 문수산(고산)은 산세가 아주 높

고 험하여 구름 위에 솟아 있다. 금성산, 진락산, 서대산(금산), 만인산(진산), 미륵산(여산) 등은 북쪽 경계에 넓게 펼쳐져 산봉우리가 중첩되고 울릉불릉 구불구불하다.

변산(일명 능가, 영주)은 부안 바닷가에 있는 큰 산이다. 산봉우리가 빙 둘려 있고 바위 계곡이 깊어 고려 이래로 궁실이나 선박 목재를 모두 이 산에서 취했다. 작은 산들이 백여 리에 가득한데 의상대사가 창건한 소래사(蘇來寺) 등 사찰이 산재해 있어 유인묵객(遊人墨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불사의방장(不思議方丈)은 신라 때 진표율사가 지은 것인데 백 척의 나무사다리를 내려 방장에 이르면 만길이나 되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굴로 쇠줄로 당겨 바위 사이에 방을 꾸며 놓으니 세상에 해룡(海龍)이 지은 것이라 전한다.

만경강은 덕유산 서쪽 기슭 운제산, 위봉산, 청량산(전주) 등 여러 산에서 발원하여 전주 북쪽 범두리를 지나 쇄수(酒水)가 되고 또 김제, 함열, 임피, 만경 등 여러 군을 지나 율포(김제), 신창진(만경), 고사포(옥구)가 되어 서해에 들어 가니 출렁이는 물결이 비록 넓고 깊지는 않지만 배들이 능히 다닐 만하다.

김제강은 동진강 또는 장수라고도 부른다. 이 강은 정읍, 노령 및 태안 등 군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김제군 서쪽을 지나 다시 서로 돌아 만경강 남으로 들어 가니 강 흐름은 작지만 펼쳐진 자연의 그윽하고 우아한 경치는 인심을 누그려뜨리고 기쁘게 한다. 강 연안에 인의, 덕립 등 여러 명승지가 있다.

(해안 및 도서)

서쪽 지역 일대는 모두 바다와 연해 있는 곳으로 큰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신창진(일명 泗浦)은 만경, 김제 등 군의 중간에 끼어 뱃길이 자못 편리하며 그 앞은 고군산도와 위도가 얼마간 크고 이 밖에 많은 섬들이 있다. 애미도, 야화도는 들짐승의 서식지에 불과하고 고군산도(만경 서쪽에 있다)는 둘레가 60리이니 인조 2년에 수군진을 설치하니 항만에는 배가 정박하기에 편리하고 와, 보 등 여러 섬이 빙 둘려 항구를 상대로 있기 때문에 군산도라고 한다.

군산항은 옥구 북쪽 20리 금강 남쪽 포구에 있고 옛날 용안군에 속하여 조창이 있어 득성창이라 하고 종종 무렵에 옥구로 옮기니 전 수군진이 있었던 곳이다. 충청도 장암진과 마주하여 있고 북은 북정(北亭) 언덕 아래 금강에 임해 있고, 서남은 망월산을 등지고 동남은 넓은 들판에 연해 있으니 형승이 기장(奇壯)하다. 항구(港口)는 넓지만 수심이 3尋(尋은 두팔을 벌린 길이, 7~8자, 3심은 약 24척)에 불과하고, 하구에는 암초와 쌓인 모래가 많아 3.4백 톤 이상의 기선은 입항이 어렵다. 또 조수 간만의 차가 20척 내외에 미쳐 썰물 때는 조류가 급류로 바뀌어 작은 선박은 자주 조난을 당하게 된다.

광무3년에 군산항을 열었는데 그 당시는 적막하기 짝이 없는 일개 어촌에 불과했다. 그 후로 도로를 닦고 도량 물 밑바닥을 파내는 등의 공사와, 가옥과 창고들이 착착 지어져 면모가 일신되며 상업이 점차 발전했다.

격포는 변산의 서쪽 끝이 바다 쪽으로 날카롭게 들이박힌 곳으로 조수가 불어나면 호수를 이루고 물이 빠지면 곧 바닥이 드러난다. 인조 때 수군진을 설치한 곳이고 그 앞쪽에 벌려 있는 여러 섬들은 위도(蠣島)로 여기에도 숙종 8년에 설치한 수군진이 있었다. 이 섬에서는 청어가 많이 생산되므로 주민들이 이로써 주업을 삼으니 매년 봄철에 서울 등지에서 상선이 수없이 모여 듈다.

계화도에는 어민들이 많이 산다. 섬 주변에는 특별한 바위가 있어 그 위에 백여 명이 앉을 만하다. 서쪽은 대해를 임한다. 동진강 입구에 있는 장포(일명 덕건포)는 동으로부터 조수를 삼키기도 하고 뺏어내기도 한다.

옥구의 여러 산과 군산의 많은 섬들이 바다를 사이하여 벌여 있으니 참으로 그 경승이 빼어나다. 그 외 대립도, 소립도, 배도, 격도, 왕등도 등은 멀리 또는 아득히 파도와 격랑 사이에 가라앉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한다.

(도회.승지)

전주(견성, 완산)는 경성 남쪽 5백여 리에 있으니 관찰부 소재지이다. 동은 위봉산을 의자하고 서북은 기린봉과 건지산을 품고 망망히 너른 들을 펼치고 있어 실로 지세가 뛰어난 곳이다. 사수(泗水)가 대야를 가로 질러 율담, 양전포, 신창포가 되어 관개가 편리하며 배들이 통행할 수 있다. 논밭이 기름져 곡식과 대나무, 감은 물로 물고기, 소금이 많이 생산된다. 사람과 물산이 다 넉넉함이 삼남의 제일이다. 불행히 동학의 소요를 지나 쇠퇴함을 면치 못했으나 이제 점점 지난날의 상태를 회복하고 있다.

군의 북쪽에 옛날 건훤 성터가 있으니 곧 후백제의 옛 도읍지이다. 또 이곳은 국조(國朝) 발상(發祥)의 땅이기도 하다. 조경단묘(肇慶壇廟)와 경기전(慶基殿)이 있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해져 있다. 동쪽에는 웅치가 있으니 도원수 권율이 일병을 무찔렀던 곳이며 옥성산은 서북쪽 들판에 외로이 솟은 산으로 꼭대기에 우락암이 있어 5,60명이 앉아 쉴만한 바위가 있다. 고달산에 있는 만경대는 석벽이 마치 그림과 같고 황학대는 바위가 우람하여 풍경이 빼어나다. 덕진 연못은 둘레가 9천여 척으로 관개 사업에 아주 편리

하다.

남원(대방, 용성)은 마이산 남쪽에 있는 큰 도회지로 전주와 130여 리 떨어져 있다. 백제가 망하자 당이 이곳에 남대방주를 두었다가 나중에 신라에 귀속되니 경덕왕이 남원소경을 설치하였다. 유인궤의 옛 성터가 아직도 있다.

또 읍내에 정전(井田) 아홉 구역을 나누어 마을과 시장의 질서정연한 법제가 지금도 완연하다. 선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양원이 성곽을 수축하여 왜군이 북상하는 것을 방어하고 이 성의 북쪽에 교룡산성을 쌓아 긴 뿔(기각)을 삼았는데 이는 남원이 동남으로 운봉 팔랑치와 순천 좌수영과 구례 광양을 통하는 요충지인 까닭이었다. 고려 말에 아지발도가 병선 수백 척을 이끌고 3도로 들어오다가 운봉 인월역에 이르러 태조 이성계에게 섬멸된 것도 역시 이 요충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남의 성원(星園)은 계곡과 산의 경치가 빼어나고, 그 남에 말례현이 중간을 통하여 너른 들판으로 이어져 있고, 서쪽의 봉동과 동쪽의 화암연곡은 산세가 기이하고 수려하다. 또 동으로 안신현을 넘으면 곧 운봉이니 남은 순천과 섬진강을 경계 짓는 곳이다. 광한루는 성북에 있는데 그 건물이 굉장하고 풍경이 아주 아름답다. 익산군은 예전 마한국의 도읍지이니 전주 서북쪽 30리에 있다. 군북 미륵산의 남 용화산 위에 기준(基準) 고성이 있고 그 서쪽에 보덕성의 남은 터가 아직도 있다. 고구려가 망한 후에 신라왕이 구려왕자 안승을 봉하여 보덕왕을 삼고 금마에 두었다가 후에 징계하여 소판(蘇判)을 삼으니 이곳이 그곳이다.(*金馬도處後徵蘇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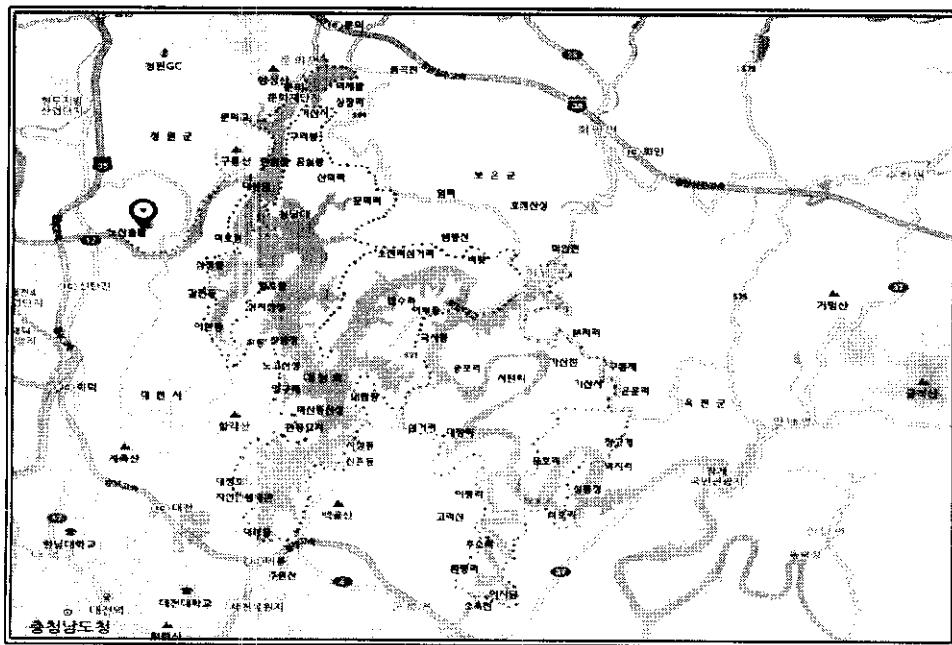
쌍룡은 오금사 서쪽에 있으니 무강왕과 선화부인의 능이라 하고 또 미륵사는 용화산에 있으니 무강왕이 선화부인과 즐기며 잔치하던 곳이라고 전한다. 세 미륵과 돌탑을 세우니 높이가 수십 길이다. 용화 남에 장군봉과 등잔암이 유명하다. 왕궁정은 성의 남쪽 고궁 유허지에 있으니 당산(唐山)은 *삼숙률(三熟粟)이 유명하고 고적이 많다. 군의 서쪽 황등포(黃登浦) 둑은 거북다리라고도 불리는데 둘레가 25리로 관개 유역이 아주 넓다.

여산(호산, 여양, 낭산)군은 전주 북쪽 70리에 있다. 전라북도의 황성을 통하는 큰길이다. 그 북쪽 황산장은 금강 가에 있는 작은 언덕이지만 강경포와 아주 가까이 있는 까닭으로 상업이 성하다. 작지(鶴旨, 또는 작원)는 역시 은진과 가까이 있어 매년 7월 보름에 근방 주민이 모두 모여 수박회(手搏戲)를 행한다. 누항은 시내가 있어 높은 산에서 흘러 내린다. 호산 아래 이르러 누입복류(漏入伏流)하다가 시내를 이루므로 누항이라 한다. 또 화산은 강가에 우뚝 솟아 경치가 빼어나다.

김제군의 벽골제(碧骨堤)는 근원이 금구 모악산과 태안 상두산에서 발원하여 고부 놀제의 물과 동진강에 합하여 만경을 지나 바다에 들어 가니 삼국시대에 만들어졌고 신라 원성왕 때 증축하였다가 고려 현종, 인종 때 다시 보수하였다. 그 후 조선 태종 15년에 중수하니 길이가 6만8백43척이다. 다섯 도량(五渠)을 열고 논을 관개함이 무릇 9천8백40여 결이요, 둘레가 80여 리에 달해 나라 안에서 이 벽골제와 고부 놀제, 익산 황등제를 합쳐 삼호(三湖)라 부르니 전라도를 호남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부군 서쪽에 있는 놀제호는 길이 1천2백 보, 둘레가 40여 리로 놀천의 물을 가득 가두어 만들었다. 그 동남에 두승산(일명 도순산)이 우뚝 솟아 있고 북쪽은 천태산이다.

금성산 밖은 옛날 전쟁터였다. 임진왜란 당시에 중봉 조한이 7백의사를 이끌고 일병을 차다가 한꺼번에 전몰한 곳이다. 7백의사의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어 지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매에 눈물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 동쪽 취병협 계곡은 월영산, 신음산이 동서로 대치하고 푸른 절벽이 병풍 같이 서 있고 금수(錦水)가 그 가운데 휘돌아 흐르며 푸른 벼랑에 아득한 둘길이 나 있으니 이를 금산천(錦山遷)이라 하고 제원촌은 제원천 위에 있어 토지가 비옥하고 관개가 아주 이롭다.

◆ 생명의 호수 대청호 둘레길 ◆



대청호는 충북과 대전지역이 함께하는 광역형 호수로 대청호를 활용하여 충청권의 만남의 장으로 만들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청호둘레길 조성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1. 장소

충북과 대전, 충남지역 금강의 중심지 대청호

대청댐과 옥천 장계관광단지 사이 대청호 일원.

종기적으로는 대청호 상류와 하류를 연계하는 대청호 문화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2. 효과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는 문화와 생태환경을 활용한 전국의 대표적인 대청호 둘레길, 대청호 둘레산길, 자전거길, 마라톤코스 등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코스로 만들어 사계절 다목적 공간으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댐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상태로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수질보존의 필요와 소중한 점을 보고 배울 수 있는 문화생태탐방과 체험의 장소가 된다.
- 국토의 중앙지점에 위치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쉬우며 순차적으로 1차 청원군, 보은군, 대전 지역 대청호 걷기길 조성, 2차 옥천과 보은 지역 대청호 걷기길 조성, 3차 대청호 상하류 지역인 충남지

역 걷기길 조성으로 충청권이 함께하는 광역형 관광개발로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4. 대청호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이용 문화, 관광, 레저공간으로 활용,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여 활용가능하며 수질보존과 같은 자연보호운동을 펼칠 수 있다.

3. 내용

1. 대청호 둘레길을 따라가며 대청호 지역의 청남대, 문의문화재단지, 정지용 문학관, 대청호물문화관, 대청호 자연생태관, 청풍정 등등 많은 곳을 활용하여 문화생태탐방의 명소로 만든다.

2. 추소리, 석호리, 추동 등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은운리, 용호리, 막지리 소전리 한지체험 등 산간오지마을의 생활을 체험을 할 수 있다.

3. 대청호 주변의 조현선생 묘소와 사당, 육영수여사 생가, 미륵원 관동묘려, 김정선생 사당, 청풍정, 호점산성, 훙산성, 성치산성, 등 역사문화와 연계하는 걷기길을 만들 수 있다.

4. 대청호 주변의 계족산, 구룡산, 국사봉, 샘봉산, 고리산 산길과 대전지역 산성트레킹을 연계하여 등을 호반길과 산행길을 이용 대청호를 조망하는 걷기길을 만들 수 있다.

대청호 둘레길, 대청호 둘레산길, 대청호 자전거길 코스를 모두 연계할 수 있어 걷기 길의 활용이 좋고 호반, 계곡, 옛길, 명소 등 아름다운 풍광과 여러 가지 볼거리 체험요소들이 있어 탐방객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코스가 된다.

5. 대청호 둘레길

출발점 대청댐 현암정, 도착점 대청댐물문화관

대청댐-문의 문화재단지-청남대-문덕리 산간마을-가호리-소전리-회인지역-어부동과 내탑동지역-분지리 은운리-용호리 막지리-석호리 추소리지역-방아실 지역-대전 신촌동 신상동지역-마산동지역-직동지역-미호동지역-대청댐

충북 청원, 보은, 옥천지역과 대전지역을 연계하는 8자형 또는 0자형으로 답사길을 만들어 활용 할 수 있다. 8자형이 충북과 대전지역을 잘 활용하여 대청호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코스가 된다.

6. 거리

대청호둘레 약 200km, 1차 구간 120km, 2차 구간 80km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1일 걷는 거리 약 10km내외, 선호하는 걷기시간 4~5시간 이내로 걷기 구간을 선정 할 수 있으며 현장에 따라 걷기거리와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7. 교통접근성

경부고속도로 청원, 대전, 옥천 나들목 이용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 청원 문의, 보은회인, 보은 나들목 이용. 청주, 대전지역은 접근성 매우 좋다.

8. 볼거리 체험거리

대청호의 주변의 다양한 축제를 활용 할 수 있으며 현암정, 문의문화재단지, 청남대, 소전리, 향수 시인 정지용의 생가이야기, 육영수 여사 생가, 김옥균과 기생 명월의 사랑이야기,

충봉 조현선생과 임진왜란 이야기, 생봉산의 분화구 이야기, 집안을 일으킨 어머니 이야기 등등 대청호 주변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코스로 좋은 여건을 간직하고 있다.

- 1) 풍광 : 대청호 둘레를 따라가며 아름다운 호반길과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2) 역사문화재 : 삼국시대 접경지역으로 대청호 주변에 산재한 산성과 각종 문화재를 활용 할 수 있다.
- 3) 청남대 축제 : 대통령별장을 이 용한 다양한 볼거리
- 4) 문의 문화재단지 : 대청댐 완공으로 수몰지역 문화재를 모아 놓은 곳으로 중부지방의 민속 문화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다.
- 5) 문화예술체험 장소
대청호의 해맞이 행사, 대청호 예술제, 소전리 한지체험, 정지용 문학제, 오장환 문학제, 문의 장승제, 대청호 마라톤대회, 대전 대청호 국화축제 등
- 6) 특산물 : 대청호 주변의 농산물, 음식, 등 특산품 발굴 판매 필요

9. 비사항(조사연구 필요)

1. 기존의 답사길을 활용하여 연계코스 정비필요, 답사코스 중 2~3곳
가파른 협곡지대를 건너가는 방법으로 배를 타고 건너는 방식과 대청호를 가로 지르는 출렁다리 설치가 필요하다.
2. 답사길 주변 잡목제거와 탐방로 정비, 안내판 설치, 쉼터, 화장실, 주차공간 순환버스, 숙박장소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3. 농촌체험 마을조성, 산나물 채취체험 행사, 물고기 잡기, 대청호 농산물 팔아주기 등의 지역민들에게
 - 도움이 되고 탐방객들이 직접 즐가 할 수 있는 현장에 알맞은 행사 필요.
 - 자연환경 절대 보존지역 지정 필요성
 - 보은 송포리, 서탄리, 옥천 용호리와 황호동 섬 지역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접근이 어려운 4곳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보존이 필요.
 - 걷기길 중 많은 곳이 안전한 걷기길 조성 정비가 필요
 - 대청호 호반길 조성(현장답사완료, 종주, 순환형 걷기길로 조성필요)
 - 대청호 둘레산길 조성(현장답사완료, 순환형 산길로 조성필요)
 - 대청호 자전거길 조성(현장답사완료, 호반길과 연계필요)

10. 대청호 둘레길 1차구간(충북 청원, 보은, 대전)

1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대청댐-현암정-문의대교 앞 호반길(정비필요)-문의 문화재단지-문의-문의 중학교 앞-대청호 호반-미천리 앞 포도밭-노현리앞 호반길(정비필요)

2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삶결따라 2500리

노현리 앞 호반길- 괴곡리 앞 호반길(정비필요)-좌골-가산사-청남대 가로수길과 호반-섯밭-청남대(정비필요).

3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기산사-구룡재 옛길(정비필요)-산덕리 상산마을-외마루-문덕교-문덕리 염티-월리사길-가이고개-소전삼거리

4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소전삼거리-벼랫마을-소전리

5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문의 소전삼거리-후곡리 쑥고개(숯고개)-이다리-진사골-
가호리 대청호.

6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소전리 서낭당고개-벼랫마을-소전재(정비필요)-보은 남대문리 거구리-남대문교 앞 대청호

7구간(충북지역 청원. 보은)

남대문교-571번도로 호반길-양지공원-회남대교-여부동-
매산리(정비필요)-산수리-법수리-우무동마을

8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우무동마을-대전 오동 호반길(정비필요)-탑봉앞 호반-내탑동 호반-사성동 앞 호반길

9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사성동 모래재 앞 호반(정비필요)-신촌동 앞-세챙이 동산고개 앞 호반길-신하동 토끼봉호반길-충암 김정 유적지-신상교

10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신상교앞 호반-옹기재-주산동 줄뫼(정비필요)-용계동 취수탑 앞 호반-대청호 생태문화관-주동-애미-마산동삼거리.

11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마산동 미륵원-관동묘려(정비필요)-마산동산성-호반길-직동 노고산성-찬샘정-직동농촌체험마을-아랫피골.

12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직동 피골마을-호반길-성치산성(정비필요)-황호동 보호수-
황호동 마을터-황호동 앞 호반(성치산성으로 순환)

13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호평초교 삼거리-삼삼천-배고개 앞 호반-갈전동 호반-
새말 앞-부수동-삼전동 삼거리

14구간(대전구간 대전지역과 협조필요)

삼정동 삼거리-이촌-미호산성(정비필요)-보조댐-미호동 호반-대청댐 물문화관-광장.

11. 대청호 둘레길 2차 구간(보은.옥천.대전)

보은 회남면-분저리-구름재-은운리-옥천 안남면-막지리.

용호리-석호리. 청풍정-이평리. 이지당-추소리, 병풍바위-대정리 방화실-꽃봉-국사봉-어부동-회남대교-회남면. 약 90km.(현장답사 완료)

1구간

보은 회남면 회남초교-거산교-사담마루-대청호 호반-눈개미-분저리 마을.

2구간

회남면 분저리-대청호 호반-구름재-은운리 언목마을-가산천-옥천군 안내면 담양리.

3구간

안내면 담양리-양지골-장고개-막지리 1 호반길-막지리 2호반길-뱃길 -소정리 안말 호반길.

4구간

소정리 밖안말 호반길-소터골재-신촌 삼거리-불거리고개-함치 호반길-청풍정 호반길-석호리 마을.

5구간

석호리 호반길-석결-이평리-옥천매립장(추동방향 개척정비필요)-양지말-소옥천-이지당-환평리-추소리 호반길, 부소담 악.

6구간

추소리 호반길-추실 호반길-공곡재, 공곡재마을-항골마을-대정리 방화실.

7구간

대정리 방화실 호반길-삼거리-대전 주촌동-대전오동-보은 법수리-법수초교-어부동.

8구간

어부동-회남대교-풍암봉-뒷골 호반길-남대문교-회남호반길-보은회남초교.

12. 대청호 둘레산길(대청호 순환형 산길. 정비필요)

대청호는 충북, 대전, 충남, 전북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내륙지방의 커다란 호수로 호반의 중심은 대청댐으로부터 옥천군 장계국민관광단지까지를 말하며 대청호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 대청호의 중요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대전 청주, 청주 대전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대청호 둘레산길을 조성하여 지역민과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대청호가 되도록 한다.

산길추가 가능

(산, 위치, 높이, 코스, 교통편, 지도, 볼거리, 먹거리 등 자료정리 필요)

1. 구룡산(九龍산 370.3m)과 현암사

위치 : 청원군 문의면과 현도면

높이 : 구룡산(九龍산 370.3m) 원점회귀 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 약 40분소요, 대전기점 약 40분소요.

산행시간 : 약 3~4시간

코스 : 현도면 하석리 오가리 주차장-현암사-오충석탑-돌탑지대-구룡산

용머리-구룡산 정상-좌측갈림길-진장골-장승공원-진장골고개-

오가리주차장. 현암정휴게소

구룡산과 현암사에서 바라보는 대청댐과 호수조망이 매우 뛰어나다.

2. 양성산(養成山 297m).작두산과 문의 문화재단지

위치 : 청원군 문의면

높이 : 양성산(養成山 297m) 원점회귀 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 약 30분소요, 대전기점 약 50분

산행시간 : 약 3~4시간

코스 :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우측능선-양성산 산성터-양성산 정상-

전망대 팔각정(378봉)-독수리바위-주차장-문화재단지.

양성산 팔각정에서 보는 대청호전망이 좋다. 문화재단지 탐방

3. 구리봉(315m)과 곰실봉(328m)

위치 :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와 신대리

높이 : 곰실봉(321m) 순환형 산길

교통 : 청주기점 약 40분, 대전기점 약 1시간

산행시간 : 약 4시간 30분

코스: 문의 509번도로 구룡고개- 좌측 구리봉능선- 능선 갈림길-우측

묘자로 원위치-산덕리

구리봉능선-갈림길로 원위치-곰실봉 능선- 고개- 묘자-곰실봉 정상-

상산마을방향 능선- 상산마을 마을길-509번

도로- 구룡고개. 순환형(원점회귀)산행코스.

4. 청남대의 주변 산길

위치 : 청원군 문의면 신대리

높이 : 220m 순환형

교통 : 청주기점 약 40분, 대전기점 약 1시간

산행시간 : 4시간

코스 : 청남대 입구 섯밭골 계곡입구-계곡길-능선-청남대 전망대-

청남대 산책길-청남대 산책길 오각정- 청남대 입구 섯발골.
청남대 가로수길 툴립나무(목백합)숲길 걸어보기,
청남대 대통령별장 탐방,

5. 샘봉산(461m)과 벼랏마을

위치 : 문의 영티리

높이 : 샘봉산(461m)

교통 : 청주기점 약 50분소요, 대전기점 약 1시간 소요.

산행시간 : 약 4~5시간

1코스(순환형 산길)

문의 소전리 벼랏마을-서낭당고개-샘봉산 남능-샘봉산 정상, 분화구-
샘봉산 동능-380봉 갈림길-소전리 방향 계곡길-소전리 벼랏마을.

2코스(순환형 산길)

문의 운덕리-가이고개-월리사 입구 우측능선-고개-갈림길-분화구-샘봉산 정상-정상 좌측계곡-옛 절터-월리사-운덕리 가이고개 월리사 입구.

샘봉산의 전설 백두산의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통하는 곳.

샘봉산 분화구 정비필요, 영티 찾아보기, 샘봉산 산성지표조사 필요.

6. 이팔봉과 가호리

위치 :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높이 : 280m

교통 : 청주기점 약 50분소요.

대전기점 약 1시간 소요.

산행시간 : 4시간

코스 : 문의면 후곡리 쑥고개-이팔봉정상-이팔봉 남쪽능선-228봉-가호리
보호수-대청호-임도-뒷골-이다리-쑥고개.
대청호를 향하여 길게 뻗어 내린 가호리를 볼 수 있다.

7. 호점산과 호점산성

위치 : 보은군 회북면 용곡리, 회남면 남대문리

높이 : 호점산(354m) 원점회귀 딥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피반령경유 약 50분소요)

대전기점(회남대교경유 약 50분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용곡리 주차장-계곡 산성입구-갈미봉-산성-전망대-산성-호점산-
치일봉-주차장

회남면 남대문리 거교리와 회북면 용곡리 경계에 있는 호점산을 중심으로 해발 280m 이상의 산봉우리 5개를 연결 그 사이에 계곡을 둘러싼 석성이나 지형이 매우 험하고 가파른 서남1.2km는 축으로 쌓은 토석축산성으로 전체적 둘레는 2,722m이다.

대부분의 옛 기록에 고을의 남쪽 9리에 있고 둘레는 858보로 매우 험하고 오래되어 무너졌으며 안에 1개의 쟁이 있었다 한다.

8. 국사봉(國師峯)과 마전사

위치 : 보은 회남면 조곡리

높이 : 551m

교통 : 청주기점(청주-회인-회남 약 1시간)

대전기점(대전-회남 약 50분)

산행시간 : 약 4~5시간

보은 회남면 조곡리 571번도로 갈림길-금곡리 스승골-국사봉 남쪽능선-

국사봉 정상-동쪽능선-광업소 자리-조곡리 마전사 절터. 은행나무-

마을길-사실마을-새설마을-사담마루-갈림길

9. 국사봉(國師峯)과 어부동

위치 : 보은 회남면 사온리 어부동

높이 : 국사봉(319m)원점회귀

교통 : 청주기점(피반령-회남 약 1시간소요)

대전기점(대전역-회남 약 40분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보은 회남 어부동-국사봉 북쪽능선-국사봉정상-서쪽능선-57·1번

도로 충북과 대전 도경계선-우무동-대청호길-법수초교-어부동.

국사봉 산길을 따라가며 좌우로 펼쳐지는 대청호의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부동이야기.

10. 채운산(517.5m)과 가산사

위치 : 옥천 안내 현리 용호리

높이 : 대청산517.5m 종주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피반령-수리티재-답양리 약 42km, 1시간 소요)

대전기점(세천동-옥천-장계단지-답양리 약 1시간 소요)

산행시간 : 약 3~5시간

1코스(순환형 산길)

옥천군 안내면 현리 357번 도로 현리교-탑산이-470고지-517.5m-장고개- 401고지-가산사-지경마을
502번도로(포장도로)

남쪽으로 보이는 대청호의 시원스런 모습이 한눈에, 중봉사당.

2코스(순환형 산길)

502번 도로, 답양3교 가산천-양지골-농로-막지리, 용호리 갈림길- 장고개-채운산(401m)-우
측계곡-가산사-502번도로(지경마을까지 포장도로)

환산과 청풍정, 용호리와 막지리 앞 추소리 부근 대청호가 잘 보인다.

옥천 안내면 은운리 언목 마을에서 보은 회남면 분제리 분저실 마을로 가는 구름재는 비포장 산악도로
차량통행 주의

11. 백토산과 청풍정

위치 :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높이 : 170m

교통 : 청주기점 1시간 10분, 청주-피반령-비석박물관-회남대교-군북면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군북면 석호리 돌거리고개-호반길-백토산-청풍정-도호리-호반길

12. 둔주봉과 한반도 지도

위치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높이 : 383m

교통 : 청주기점 1시간 30분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둔주봉

안남면 575번 도로-연주리마을-동락정-둔주봉 정상-둔주봉 북쪽 능선
길-대청호 호반길-안피실마을-동락정

-점촌고개-점촌마을

한반도 지도를 닮은 지형과 대청호 살펴보기.

13. 할애비산(289), 이슬봉(454.9), 참나무골산(422)

위치 : 옥천읍 교동리 도호리

높이 : 참나무골산(422) 종주답사 산행

교통 : 청주기점(고속도로 옥천 약 1시간 10분)

대전기점(대전역-도호리 약 40~50분 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30분

코스 : 옥천읍 교동리 늘치-할애비산-며느리재-이슬봉-참나무골산 우측
하산-장계리 증골소류지-호반길-장계교-장계국민관광단지.
청풍정(도호리), 또는 정자용 문학관 찾아보기
대청호의 물줄기가 한눈에.

14. 환산(고리산 579.3m)

위치 :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높이 : 환산(고리산 579.3m 대청호 제일봉) 원점회귀 답사 산행

교통 : 청주기점(피반령-회남대교-추소리 약 1시간 소요)

대전기점(40~50분 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30분

코스 : 옥천 군북면 추소리- 서낭당-세심원-마당재-황룡사-환산-공곡재-
호반길-추실-추소리(추소리-세심원 우측 능선-정상-공곡재 능선-
호반길-추소리)
환산 산성, 공곡재 찾아보기. 대청호 둘레산길 제일봉
대청호를 내려다보는 산 환산을 올라보자. 소옥천 살펴보기

15. 꽃봉과 방화실

위치 :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대전시 주촌동

높이 : 284m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 경유 약 1시간)

대전기점(40분 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삶결따라 2500리

코스 : 옥천 군북면 571번도로 대정삼거리-충북과 대전 도경 계선 능선- 꽃봉 정상-방화실마을-대청호 호반길-대촌마을-대정삼거리

16.태봉(276).꾀꼬리봉(324).백골산(346).꾀꼬리봉(337)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산하동 사성동

높이 : 백골산(346)종주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 경유 약 1시간)

 대전기점(40분 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대전시 산하동 총암 김정 유적지-요골장승-작은태봉-큰태봉-

 꾀꼬리봉-백골산-백골산성-독골재-충북.대전 경계선-

 꾀꼬리봉 337m-231.7봉-사성동 경수마을.

 대전과 충북을 함께 걸어보며 대청호를 만난다.

17..함각산(314.5) 마산동 산성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추동

높이 : 함각산(314.5)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경유 약 1시간)

 대전기점(약 40분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32번 호반도로 함각산 입구-함각산-마산서동 산성-관동묘려-

 미륵원-32번 호반도로.

 동쪽으로 대청호가 넓게 보인다. 산길정비필요

18.이현봉(327).연봉(270.5) 겸토대상

위치 : 대전시 대덕구 이현동

높이 : 이현봉(327m).연봉(270.5m) 종주답사산행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대전시 이현동 삼곡-이현산성-이현봉-덕고개-연봉-32번도로

 대전시가지와 대청호를 함께 바라보며

 군부대 철조망으로 우회, 코스개척필요

19.성치산(193.2m), 노고산성과 성치산성

위치 : 대전시 직동

높이 : 193.2m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경유 약 50분소요)

 대전기점(40~50분소요)

산행시간 : 약 4시간

코스 : 직동 농촌체험마을- 피골 마을길- 노고산성, 대청호 전망대-성치산

 능선길-성치산성

-황호리 호반길-피골버스종점-황호리 옛길 느티 나무-팽나무-직동 주차장

직동마을 농촌체험 참여하기, 성치산성, 노고산성 찾아보기.

성치산 방향에서 바라보는 대청호와 청남대

20. 계족산

위치 : 대전시

높이 : 계족산 423.6m 종주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경유 약 50분소요)

대전기점(40분소요)

산행시간 : 약 5시간

코스 : 대전시 용계동-대청호 자연생태관-질현성-성재산-응봉산 옥류각-

계족산 봉황정- 204.1봉-한국수자원공사.

대청호와 대전시가지를 바라보며 대청호 생태와 물 사랑 산행.

21. 미호봉(149.2m)

위치 : 대덕구 미호동

높이 : 미호봉(149.2) 종주답사산행

교통 : 청주기점(대청댐경유 약 40-50분 소요)

대전기점 약 40분

산행시간 : 약 3시간 30분

코스 : 대청댐 주차장-대청댐관리사무소-홍보관- 웃말- 쥐백정- 미호봉-

이촌-민평기 가옥-호반도로-석봉정수장

(미호동 보조댐 지나서 주차장으로 원점회귀, 산길 개척정비필요)

대청댐관리사무소와 잔디밭광장 주변살펴보기

대청호 둘레길 답사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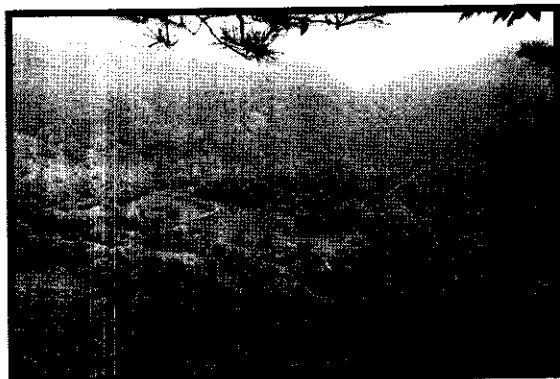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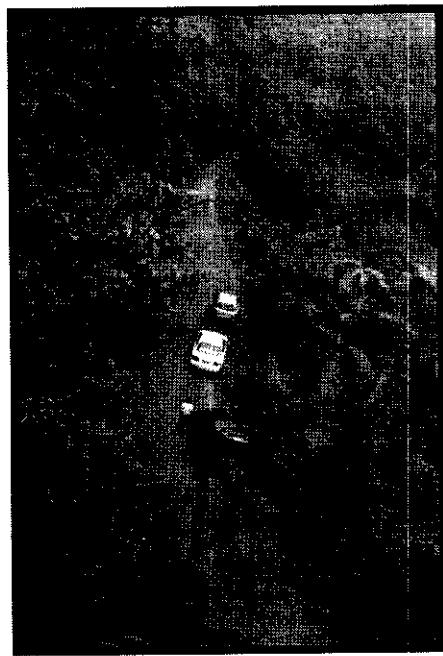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대청호 답사(대청댐 현암정앞에서)



충북과 대전의 경계지점 보은군 화남면 국사봉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바라본 대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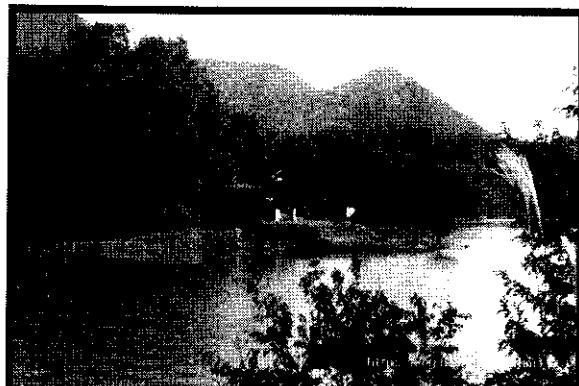


대청호 오지마을 충북 보은 은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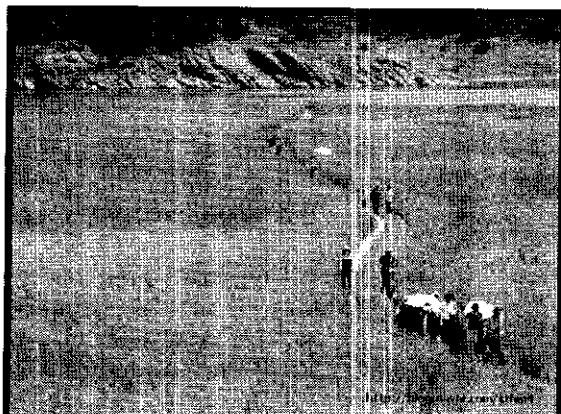
대청호의 오지마을 은운리 가는 길 보은지역 구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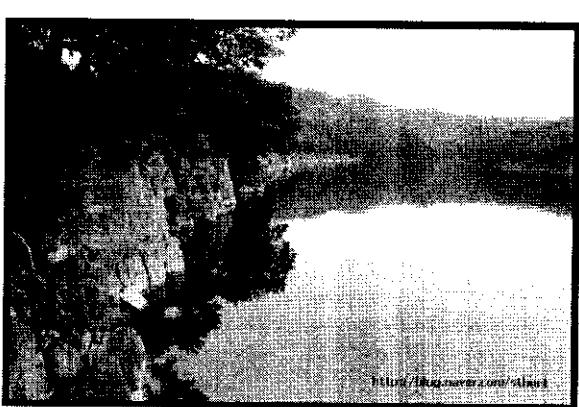
대청호 충북 옥천 막지리 부근



대청호 풍광 충북 옥천 청풍정



충북 옥천 고리산에서 본 대청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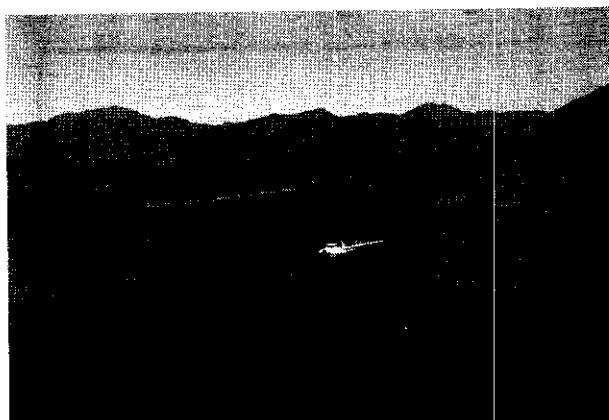


대청호 풍광 충북 옥천 추소리 병풍바위



대청호 보은 회남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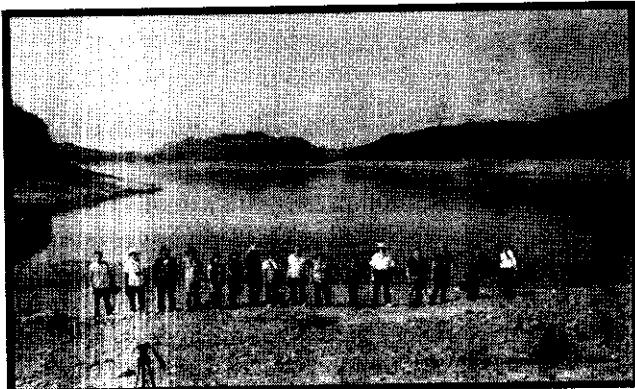
대청호 보은 회남대교



충북과 대전시민들과 함께 대청호답사. 대전 신하동부근



대청호 대전 세챙이 마을 부근



대청호답사 대전 황호동 부근



충청북도도계탐사보고서

삶결따라 2500리

충북도계탐사단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86-3번지
T.222-3313 F.252-3313

이 보고서는 충청북도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